

정책연구 2008

유휴청년연구

머 리 말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통계적으로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공식통계상 실업자로 포착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유휴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현실에 기초를 둔 실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 이 연구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휴청년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수요·공급 충격이 유휴청년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유휴청년층의 특성은 무엇이며, 과연 이들은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유휴상태에서의 탈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사실(facts)들과 정책 제언이 정부의 청년층 취업난 해소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연구진을 도와 통계분석 등 여러 지원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준 정수연, 이현희 위촉연구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주된 연구내용 · 5

제2장 유희청년층의 규모 및 시계열 추이

제1절 문제제기 · 7

제2절 NEET의 정의 · 9

제3절 NEET의 규모 및 특성 · 17

제4절 NEET의 시계열 변화 추이 · 21

제5절 회귀분석 결과 · 27

제6절 소결 · 30

제3장 수요·공급충격과 유희청년층

제1절 문제제기 · 33

ii 목차

제2절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 35

1.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 · 35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 36
3.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 38
4.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 39
5. 분산분해분석(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 40

제3절 실증분석 · 41

1. 자료의 구성 · 41
2. 기초통계 · 44
3.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 46
4.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 47
5.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한 인과검정 · 50
6. 충격반응함수 분석(Impulse Response Function) · 54
7.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 58

제4절 주요 결론 및 시사점 · 60

제4장 유휴청년층의 특성

제1절 자료 및 유휴청년(NEET)의 정의 · 65

1. 자료 · 65
2. 유휴청년(NEET)의 정의 · 67

제2절 유휴청년의 인적 속성과 가족 배경 · 70

제3절 학교 교육과 유휴청년 · 76

1. 학교 교육 · 76
2. 학교 생활 · 78

3. 훈련과 기타 훈련 경험 · 79

제4절 유휴청년의 사회 인식 · 81

제5절 유휴청년 결정요인 분석 · 85

제6절 소결 · 97

제5장 유휴청년층의 생활시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9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 100

1. 분석자료 · 100
2. 변수의 분류 및 정의 · 101
3. 분석 방법 · 110

제3절 분석 결과 · 112

1. 니트의 규모 및 특성 · 112
2. 유휴청년층 NEET의 생활시간 · 120
3. 유휴청년층과 청년 취업자, 실업자 비교 · 127
4. 대응분석 결과 · 133

제4절 소결 · 137

제6장 NEET 상태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

제1절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141

제2절 NEET 상태의 장기적 지속 여부 · 150

iv 목차

제3절 NEET 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 155

제4절 NEET 경험 정도에 따른 특성 차이 · 167

제5절 소결 · 170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73

제2절 정책제언 · 176

1. NEET 파악 및 추적 · 176
2.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제공 · 178
3.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강화 · 180
4. NEET 발생의 예방 노력 강화 · 180

부록 · 183

참고문헌 · 209

〈표목차〉

- <표 II-1> 기존 연구들의 NEET에 대한 개념 정의 · 11
- <표 II-2> 구직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2007, 경활) · 13
- <표 II-3> ‘가사’ 종사자의 혼인상태 분포(2007, 경활) · 16
- <표 II-4> 연령대별 니트 규모(2007, 경활) · 18
- <표 II-5> NEET와 실업자의 인적 속성 비교(2007, 경활) · 19
- <표 II-6> NEET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경험 비교(2007, 경활) · 20
- <표 II-7> 연도별 NEET 규모 추세 · 22
- <표 II-8> 연도별 NEET의 인적 속성 추세(<정의 1> 기준) · 25
- <표 II-9> 연도별 NEET의 노동시장 경험 추세(<정의 1> 기준) · 26
- <표 II-10> NEET 결정요인: PROBIT 분석의 한계 효과(<정의 1> 기준) · 28
- <표 II-11>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분석: PROBIT 분석의 한계 효과 · 30

- <표 III-1> 변수 설명 · 43
- <표 III-2> 경제활동인구조사표상의 유희청년층 식별 문항 비교표 · 43
- <표 III-3> ADF 검정 결과표 · 47
- <표 III-4> 시차구조 결정을 위한 검정통계량 · 48
- <표 III-5> 29세 이하 유희청년층 공적분검정 결과표(시차: 1, AIC SC기준) · 49
- <표 III-6> 34세 이하 유희청년층 공적분검정 결과표(시차: 1, AIC SC기준) · 50
- <표 III-7> 오차수정모형 1(남녀전체, 15~29세) · 52
- <표 III-8> 오차수정모형 4(남녀전체, 15~34세) · 53
- <표 III-9> 29세 이하 유희청년층 장·단기 인과관계 결과표 · 54
- <표 III-10> 34세 이하 유희청년층 장·단기 인과관계 결과표 · 54

- <표 IV-1> 한국노동패널의 주요 분석 변수 · 66
- <표 IV-2> 유희청년의 정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67
- <표 IV-3> ‘지난 1주간 활동’ 조사 문항 비교 · 68

<표 IV-4> 유휴청년의 정의 비교	· 69
<표 IV-5> 유휴청년의 규모(15~29세 대상)	· 70
<표 IV-6> 유휴청년의 인적 속성	· 71
<표 IV-7> 현재의 가구 상태	· 73
<표 IV-8> 성장기(14세 무렵)의 가정환경	· 74
<표 IV-9> 유휴청년의 출생지와 성장지	· 75
<표 IV-10> 사교육 경험과 혼자 학습한 시간	· 77
<표 IV-11> 중학교와 대학에서의 성적 분포	· 78
<표 IV-12> 중고등학교에서 지각 경험	· 79
<표 IV-13> 교육 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의 경험과 희망	· 80
<표 IV-14>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위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 82
<표 IV-15> 좋은 일자리의 조건과 임금 수준	· 83
<표 IV-16> 유휴청년의 생활만족도	· 84
<표 IV-17> 회귀분석 모형의 변수 구성	· 86
<표 IV-18> 분석에 사용한 변수 설명	· 87
<표 IV-19> NEET 결정요인: [모형 1], [모형 2] 분석 결과	· 90
<표 IV-20> NEET 결정요인: [모형 3] 분석 결과(1) - 학교교육의 효과	· 92
<표 IV-21> NEET 결정요인: [모형 3] 분석 결과(2) - 문화, 생활의 효과	· 94
<표 IV-22> NEET 결정요인: [모형 4] 분석 결과	· 96
<표 V-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개인유지	· 104
<표 V-2>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일	· 105
<표 V-3>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학습	· 105
<표 V-4>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가정관리	· 106
<표 V-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가족보살피기	· 107
<표 V-6>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참여 및 봉사활동	· 108
<표 V-7>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교제 및 여가활동	· 109
<표 V-8> 생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NEET 규모 비교	· 112
<표 V-9> 생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NEET의 개인적 특성(2004)	· 113

- <표 V-10> 지역, 경제수준, 농가 여부별 NEET 실태(2004) · 117
- <표 V-11> 요일별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 120
- <표 V-12> 요일별 개인유지 관련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 122
- <표 V-13> 요일별 교제/여가 관련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1 · 124
- <표 V-14> 요일별 교제/여가 관련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2 · 125
- <표 V-15>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평일 평균생활 시간량 비교 · 128
- <표 V-16>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토요일 평균생활 시간량 비교 · 129
- <표 V-17>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일요일 평균생활 시간량 비교 · 129
- <표 V-18>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평일 개인유지 관련 시간량 비교 · 130
- <표 V-19>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평일 교제/여가활동 시간 비교 · 132
- <표 V-20> 대응분석 결과 요약표 · 133
- <표 V-21> 대응분석에서 행좌표 통계지수 및 산출값 · 134
- <표 V-22> 대응분석에서 열좌표 통계지수 및 산출값 · 134

- <표 VI-1> t기와 t+1기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143
- <표 VI-2>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한 다항로짓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 144
- <표 VI-3>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 147
- <표 VI-4> 2002년 NEET의 2006년까지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151
- <표 VI-5> 2002년 NEET 경험자의 5년간 NEET 경험회수별 분포 · 152
- <표 VI-6> NEET 계층의 월별 변화 추세(2007년) · 153
- <표 VI-7> 실업자 계층의 월별 변화 추세(2007년) · 155
- <표 VI-8> 2006년 중 NEET 비율, 취업률, 임금수준 비교 · 157
- <표 VI-9>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 및 OLS 모형(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 158
- <표 VI-10>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 · 160
- <표 VI-11> 2006년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 · 161

- <표 VI-12> 2006년 취업자의 임금합수 추정(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 · 162
- <표 VI-13> 2006년 중 NEET 경험자의 비율 · 163
- <표 VI-14>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경험 청년층 대상)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 165
- <표 VI-15>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경험 청년층 대상) · 166
- <표 VI-16> NEET 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 168

- <부표 II-1> 지난 1주간 주된 활동(2007, 경활) · 185
- <부표 II-2> 니트와 실업자의 인적 속성 비교: 30~34세 포함(2007, 경활) · 186
- <부표 II-3> 니트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경험 비교: 30~34세 포함(2007, 경활) · 187
- <부표 II-4> 연도별 니트 규모 추세: 30~34세 포함 · 188
- <부표 II-5> 연도별 니트의 인적 속성 추세: 30~34세 포함(<정의 1> 기준) · 189
- <부표 II-6> 연도별 니트의 노동시장 경험 추세: 30~34세 포함(<정의 1> 기준) · 190

- <부표 III-1>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1(Cholesky Ordering: GDP J35_W J29 NJ29 NT29) · 197
- <부표 III-2>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2(Cholesky Ordering: GDP J35_W J29 NJ29 NT29_M) · 198
- <부표 III-3>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3(Cholesky Ordering: GDP J35_W J29 NJ29 NT29_W) · 199
- <부표 III-4>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4(Cholesky Ordering: GDP J34 J35_W NJ34 NT34) · 200
- <부표 III-5>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5(Cholesky Ordering: GDP J34 J35_W NJ34 NT34_M) · 201
- <부표 III-6>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6(Cholesky Ordering: GDP J34 J35_W NJ34 NT34_W) · 202

[그림목차]

- [그림 II-1] 실업률의 시계열 추이 · 8
- [그림 II-2] 경제활동참가율의 시계열 추이 · 9
- [그림 II-3] 지난 1주간 활동이 ‘그 외’인 경우의 비율(전체 인구 대상) · 10
- [그림 II-4] NEET와 실업자 규모의 시계열 추이 · 23

- [그림 III-1] GDP와 유휴청년 · 44
- [그림 III-2] 35세 이상 여성취업과 유휴청년 · 45
- [그림 III-3] 청년취업과 유휴청년 · 45
- [그림 III-4] 청년실업과 유휴청년 · 45
- [그림 III-5] 34세 이하와 29세 이하 유휴청년 · 46
- [그림 III-6] 충격반응함수 · 56
- [그림 III-7] 분산분해 · 59

- [그림 V-1] 가구주와의 관계별 전체 청년인구 중 NEET 비중 · 115
- [그림 V-2] 성별, 학력별 청년 인구 중 NEET 비중 · 115
- [그림 V-3] 연령별 청년 인구 중 NEET 비중 · 116
- [그림 V-4] 지역별 청년 인구 중 NEET 비중 · 118
- [그림 V-5] 자가/자가용 보유 여부별 전체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 · 119
- [그림 V-6] 농가 여부별 전체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 · 119
- [그림 V-7]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생활시간 비교 · 121
- [그림 V-9]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개인유지시간 비교 1 · 123
- [그림 V-10]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개인유지시간 비교 2 · 123
- [그림 V-11]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주요 여가시간 비교 · 126
- [그림 V-12] 일요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주요 여가시간 비교 · 127
- [그림 V-13] 생활시간 행동유형과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대응분석 그래프 · 135

[부록그림 II-1]	니트와 실업자 규모의 시계열 추이: 30~34세 포함	· 188
[부록그림 III-1]	충격반응함수-모델 1(GDP J35_W J29 NJ29 NT29)	· 191
[부록그림 III-2]	충격반응함수-모델 2(GDP J35_W J29 NJ29 NT29_M)	· 192
[부록그림 III-3]	충격반응함수-모델 3(GDP J35_W J29 NJ29 NT29_W)	· 193
[부록그림 III-4]	충격반응함수-모델 4(GDP J34 J35_W NJ34 NT34)	· 194
[부록그림 III-5]	충격반응함수-모델 5(GDP J34 J35_W NJ34 NT34_M)	· 195
[부록그림 III-7]	분산분해 결과-모델 1(GDP J35_W J29 NJ29 NT29)	· 203
[부록그림 III-8]	분산분해 결과-모델 2(GDP J35_W J29 NJ29 NT29_M)	· 204
[부록그림 III-9]	분산분해 결과-모델 3(GDP J35_W J29 NJ29 NT29_W)	· 205
[부록그림 III-10]	분산분해 결과-모델 4(GDP J34 J35_W NJ34 NT34)	· 206
[부록그림 III-11]	분산분해 결과-모델 5(GDP J34 J35_W NJ34 NT34_M)	· 207
[부록그림 III-12]	분산분해 결과-모델 6(GDP J34 J35_W NJ34 NT34_W)	· 208

【 요약 】

1. 연구 목적

청년실업자 수가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청년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은 통계상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는 유휴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휴청년과 관련된 주요 이슈(유휴청년층의 규모와 시계열 추이, 수요·공급 충격과 유휴청년의 관계, 유휴청년층의 특성과 생활시간 사용 실태, NEET 상태의 지속 가능성 등)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주요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NEET를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정의 1). 실업자를 NEET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종래의 청년 실업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 미혼 ‘가사’ 종사자의 경우 NEET 계층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NEET에 포함하는 형태로 개념 확대를 시도해 보았다(정의 2). 끝으로 기존 경찰 자료의 한계 내에서 시계열 자료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NEET의 정의를 보다 확대하기도 하였다(정의 3=정의 2+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취업준비’+‘진학준비’+‘군입대 대기’+‘결혼준비’+‘기타’인 사람). 연령층은 기본적으로 청년층인 15~29세에 국한시켰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34세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의 1>과 <정의 2>에 기초할 경우 2007년 NEET의 규모는 25만~30만명 수준(전체 인구의 2~3%)으로 동일 연령대의 실업자 수 30만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NEET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NEET의 특성을 실업자와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NEET는 실업자에 비해 보다 저학력, 저연령,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노동시장 경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계열 분석 결과, 유휴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GDP증감률이며 그 효과도 지속적이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유휴청년층 규모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 3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경우 유휴청년은 감소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넷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충격 시 남성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휴청년이 증가하나 이러한 효과는 4분기 이후 대부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2분기까지 유휴청년층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음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청년실업자의 증가는 유휴청년을 감소시키며, 그 영향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여, 청년취업의 증가가 유휴청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보면, 유휴청년과 청년실업 간의 상태이동이 보다 지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휴청년의 증가충격은 충격발생 후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이유로 경제 내에 유휴청년층이 한번 형성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

이 아니라 경제 내에 지속적으로 존속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인적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NEET는 20대 초반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졸 미혼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든 과거든 가구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할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장기 가정형편을 통제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NEET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경험, 학교성적, 혼자 학습한 시간 등은 모두 NEET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혼자서 공부한 시간의 효과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컸다. 한편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문화활동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청년층의 NEET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을수록 NEET 경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여섯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청년 NEET들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와 관련된 필수생활시간이 전체 청년인구의 그것보다 길었으며, 이 중 특히 청년 NEET들의 수면시간은 해당 연령대는 물론 15세 이상 70세 이하 전 연령대의 평균 수면시간보다 길었다. 청년 NEET의 경우 교제 및 여가시간도 전체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이 중 특히 길었던 행동유형은 TV시청과 컴퓨터 게임시간으로 전체 청년인구 평균보다 1시간 이상 길게 나타났다. 한편 생활시간에 대한 요일별 분석에서는 NEET 청년들의 경우 평일과 휴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 청년 NEET들은 교제활동 중에서도 교제 관련 전화통화,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시간 등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제 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미디어 이용실태에서도 TV시청 시간, 인터넷 정보검색 시간 등 홀로 하는 활동 시간이 길었고, 식사시간의 경우도 혼자 하는 식사시간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보다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측면에서 NEET는 취업자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취업자의 대다수가 1년 뒤에도 여전히 취업 상태에 있는 반면, NEET의 경우 1/3 이상이 여전히

NEET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뒤에도 NEET 상태에 있는 비율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NEET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취업 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은 NEET의 경우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실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50% 수준에 달했다.

여덟째, 장기간 NEET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면 3/4은 NEET 상태에서 탈출한다. 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세 달 안에 NEET 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NEET 경험자 중 15% 내외는 NEET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아홉째, NEET를 한번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다시 NEET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취업 시의 임금수준도 낮았다. 또 NEET 1회 경험자와 2회 경험자 간에는 NEET 재진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NEET 3회 이상 경험자는 이들 두 집단에 비해 NEET 재진입 가능성이 무려 5배 정도 높았다.

3.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실업대책만으로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할 수 없고, 이들 유휴청년에 초점을 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유휴청년의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누가 유휴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유휴청년들이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유휴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싶어도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가 파악되기 힘든 실정으므로, 누가 유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유휴청년의 파악과 추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이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비진학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인 추적·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미취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추적·상담하며, 이들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실업자훈련 참여자에 대해 훈련 수료 후 6개월간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나아가 일정 기간의 추적·상담 이후에도 여전히 유휴 상태로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고용안정센터에서 계속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공지와 연결 의무를 교육훈련기관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지원 대상과 특성이 파악되면, 이들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청년 개개인별로 심층 상담을 통해 이들이 유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와 유휴 상태에서 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들의 생활패턴이 일반적인 청년들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심층상담 후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선택(informed choices)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취업의욕이나 능력개발의욕이 부진한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당의 지급 없이 유휴청년층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당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개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적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자기개발 계획에는 교육훈련 참여, 적극적 구직활

동,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 등을 적시하도록 한다.

물론 노동부만의 정책 노력으로 유휴청년층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는 어렵다.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부나 청소년 문체를 다루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정책 협력도 필요하다. 다양한 정부부처와 교육 및 훈련기관, NGO, 지자체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NEET가 이미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NEET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효과성도 높지 않은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NEET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NEET화 가능성 정도를 보여주는 가칭 NEET 위험성지수 등의 개발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나 학업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실태, 친구관계 등등을 조합하여 NEET 위험성 지수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층은 가장 최선의 학교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그들이 획득한 지식의 새롭고 발전적인 성격 때문에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은 그 자체로서 기업혁신의 자극제가 되며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층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제약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교육투자의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의 노령화로 경제의 활동성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이 취업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자신감 상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까지 연결되면 실업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사회불안이라든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청년층 인적자원의 원활한 양성 및 공급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어 이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청년층이 충분하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은 단순한 실업률 지표상에서는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7~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12%대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이후 2002년에는 6.6%까지 하락하였고, 그 이후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2004년에 8.3%(실업자 수 41.2만명)를 기록하였다가, 재차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 2/4분기에는 7.4%(실업자 수 32.8만명)를 나타냈다. 이렇게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은 여전하며,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실업률 지표와 체감하는 취업난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취업애로층(구직단념자+취업준비+쉬었음)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애로층의 규모는 2003년의 52.4만명에서 2007년에는 69.2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75.4만명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 청년층 실업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완화되지 않은 것도 결국 공식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유휴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업, 비경제활동, 취업의 경계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30대 이상 성인 노동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업을 계측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0대 이상 성인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 집단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상호간의 유동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특히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대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여러 요인들에 기인한다.

첫째, 청년층의 경우 직장탐색비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구직기간이 장기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공사 등과 같이 각종의 지필 입사시험을 기초로 신입직원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경활인구로 포착되는 각종 입사시험 준비생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청년층은 일의 세계에 이제 막 진출한 신참자이기 때문에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낮고, 본인의 능력, 적성 등에 비추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즉, 청년층은 자신의 일궁합(job match)-근로자와 일자리 간의 적합도-을 높이기 위해 신중한 구직기간을 거치기도 하지만, 잦은 직장이동을 통해 일궁합을 개선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08)에서 전국 100인 이상 3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의 입사 포기율은 23.7%, 입사 1년 이내 퇴사율은 전체 신입직원의 27.9%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 대학진학률이 84%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재학생의 약 20% 정도가 공공부문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오호영, 2006)가 말해 주듯, 대학은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성격이 점차 변모하고 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휴학을 하면서 졸업을 늦추고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는 점도 더 이상 대학생을 노동시장과 무관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넷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 등 불안정 취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청년기는 취업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에 머물면서 자격증 취득, 입사준비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비록 통계조사상에는 취업자로 구분될지라도 사실상 취업

준비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역시 고용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업자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실상의 실업에 해당하는 유휴청년 인구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작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대한 논의와 연구¹⁾를 국내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휴청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그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 연구도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의 유휴청년 관련 연구는 크게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 실증연구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해외사례 연구와 관련해서는 정후식(2004), 김기현(2005), 강영배(2005) 등에서 주로 일본의 NEET에 대한 소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실증연구로는 남재량(2006), 김기현 외(2006), Oh, Min-Hong(2007), 조준모 외(2007) 등이 있다. 남재량(2006)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NEET의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 NEET의 결정요인(KLIPS 자료 활용)과 NEET의 취업으로의 탈출요인(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활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04년 현재 8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NEET의 규모가 크며, 학력이 낮을수록 NEET로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아버지가 비정규직이거나 가족종사자 및 고용주인 경우, 그리고 1인당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NEET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1) NEET에 대한 관심은 원래 영국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용어 자체도 영국 부총리실 산하의 한 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NEET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초점을 맞춘 대상은 원래 중등교육단계에서 학교로부터 이탈한 16~18세의 청소년층이었고, 이 보고서는 주로 사회적으로 배제(social exclusion)된 취약계층이란 맥락에서 이들의 실태와 등장 배경,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진단 및 정책적 제안을 내리고 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떠도는 무업자군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나, 본격적으로 NEET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2004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발간한 「노동경제백서(平成16年版 労働經濟白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30%는 1년 후에도 그대로 NEET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NEET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Oh, Min-Hong(2007)의 경우에도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한 가정의 자녀가 NEET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 남재량(2006)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김기현 외(2006)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EET 청소년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보았다. 또 조준모 외(2007)에서는 NEET의 새로운 정의와 유형화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주된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NEET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 NEET 청년층의 정상적 취업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절 주된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2장에서는 유희청년층을 최근 회자되는 NEET로 규정하고, NEET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 NEET의 전체적인 규모나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활용 관점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NEET를 개념 규정한다. 또 기존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롭게 NEET를 재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NEET에 대한 정의를 세운 후, 이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NEET 청년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NEET 청년층의 시계열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나 여성취업증가

와 같은 노동공급의 변동이 NEET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 청년층 내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변동이 유휴청년층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 ECM) 등을 적용할 것이다.

4장에서는 NEET 청년층이 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어떤 특성을 지닌 청년층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하는 것은, NEET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가 주로 분석된다.

5장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EET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를 분석한다. NEET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NEET의 생활시간이 동일 연령대의 청년 취업자나 청년 실업자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주된 분석방법은 생활시간량 분석과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이다.

6장에서는 NEET 상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NEET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NEET 상태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청년층과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장기간 머물러 있는 청년층의 NEET 재진입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과 NEET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도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가 주로 활용된다.

끝으로 7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주요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며,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와 영국의 정책 사례 등을 주로 참조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 2 장 유휴청년층의 규모 및 시계열 추이

제1절 문제제기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변동 과정을 겪고 있다. 다음 [그림 II-1]에서 보여지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 2%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1998년 7.0%, 1999년 6.3%로 크게 증가한 뒤, 2000년대 들어 3%대로 하락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청년층의 경우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990년대 중반 4%대의 실업률 수준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10~11%대까지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 추세가 보다 더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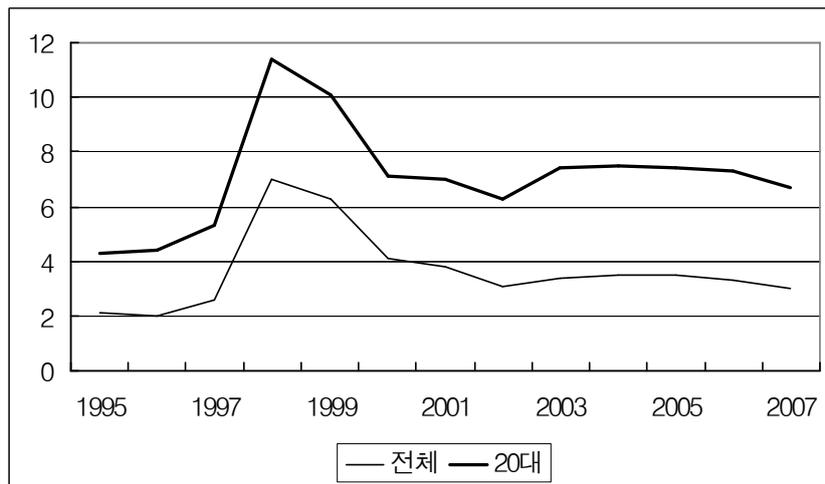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실업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II-2]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시계열 추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전체 인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1999년간 1~2% 감소했다가, 2000년대 이후 원래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보다 더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는 통학이나 가사 등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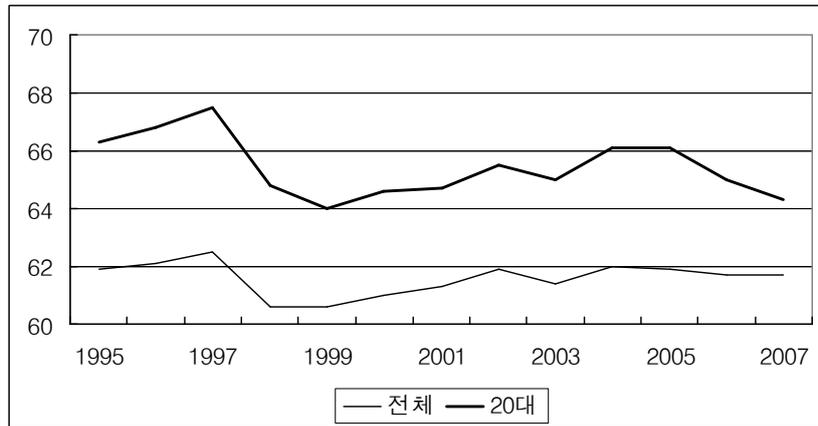
리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집단 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도 하지 않고 또한 취업할 의사도 가지지 않은 계층도 존재한다. 소위 유휴청년층(NEET)으로 불리는 이러한 계층은 인적자본 축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격리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생산성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경우 NEET 계층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II-1] 실업률의 시계열 추이



[그림 II-2] 경제활동참가율의 시계열 추이



제2절 NEET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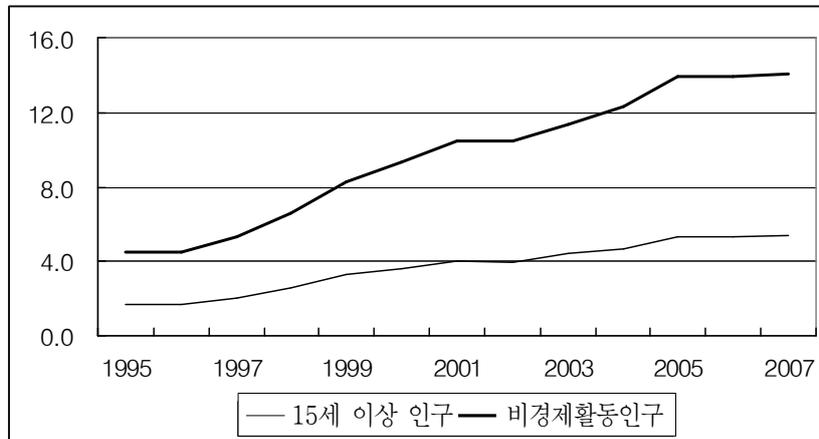
통상 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칭하는 용어로, 취업해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젊은 청년층을 의미한다. 이는 1999년 영국 정부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무교육을 종료한 후 진학 또는 취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16~18세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는 NEET 인구가 해당 연령 청소년의 9%, 약 16.1만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일본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비노동력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15~34세 사이에 해당하는 미혼 계층이 일본형 NEET 또는 무업자로 분류된다. 2000년 기준으로 일본형 NEET 인구는 75만명,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總務省, 2004, 國勢調査).

한국의 경우에도 NEET 계층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계층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그림 II-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활동이 ‘그 외’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을 도표화한 것이다(이는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인 경우를 제외한 것임. 주로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인 경우임. 자세한 분류 내용은 그림의 주를 참조할 것). 이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계층 중 이 집단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 4~5%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까지 상승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이 집단의 비율 역시 1990년대 중반 1~2% 수준이었던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 5%대를 넘어서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활동이 ‘그 외’에 속하는 사람 중에는 청년층 NEET 계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중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까지를 NEET 계층으로 포괄할 수 있을까?

[그림 II-3] 지난 1주간 활동이 ‘그 외’인 경우의 비율(전체 인구 대상)



주: ‘그 외’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지난 1주간 활동 기준).
 ①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상태이지만 취업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 (구직기간 1주 기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②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인 경우

우선 기존 한국의 연구들에서는 NEET 계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표 II-1>은 최근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남재량(2006), 오민홍(2007), 조준모 외(2007)의 연구에서 NEET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각 연구마다 NEET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상이한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

- 1) 모든 연구에서 취업자와 정규교육 참여자는 NEET 계층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NEET의 정의상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된다.

<표 II-1> 기존 연구들의 NEET에 대한 개념 정의

	남재량(2006) ¹⁾	오민홍(2007)	조준모 외(2007) ²⁾
대상 연령	15~34세	20~29세	15~29세
기혼자 포함 여부	배우자가 없는 경우만 포함	미혼자만 포함	기혼자도 포함
Employment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여부)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제외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제외	구직무급종사자 및 실업자 포함
Employment (비경활)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제외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제외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제외 (가사노동자 포함)
Education	정규교육 미참여	정규교육 미참여	정규교육 미참여
Training	입시학원 또는 취업학원 미통학자	직업훈련 미참여	입시학원 미통학자
분류	구직니트, 비구직니트	구직희망니트, 비구직희망니트	(주)

주: 1) 남재량(2006)의 경우

구직니트: 지난 주에 직장을 위한 사람+지난 1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4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한 사람.

비구직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2002년까지 - 심신장애, '기타', 그 외(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2003년 이후 -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 그 외

2) 조준모 외(2007)의 경우

구직니트: Type A(가족노동형, 구직무급종사자+가사노동자), Type B(청년실업자)

비구직니트: Type C(합정형, 고시족 및 공시족), Type D(현실회피형, 일본형 니트)

- 2) 대상 연령은 15~34세, 20~29세, 15~29세로 연구마다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10대 후반 및 30대 초반 계층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해 10대의 경제활동 참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NEET 계층의 규모도 작은 수준이다(뒤의 <표 II-4>를 보면 2007년의 경우 엄격한 정의에 기초할 때 이 규모는 3만여명 수준임). 그러나 여전히 중등교육 단계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러한 10대 계층을 NEET에서 제외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30대 초반 계층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통상 통계적 분류에서 30대 이상은 청년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의 NEET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병역의 문제와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해 20대 후반에야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대 초반이면서 NEET의 성격을 갖는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연령을 기본적으로 15~29세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여기에 30대 초반까지 포함하는 경우의 분석 결과는 부표로 제시한다.²⁾
- 3)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혼자도 포함할 것인지도 주요한 논점 중의 하나이다. 기혼자를 배제하는 논리는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세 연구 모두 ‘가사’나 ‘육아’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NEET 계층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조준모(2007)의 경우 가사노동자는 NEET 내에서 별도의 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이 유지되는 한 기혼자 전체를 NEET 계층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미혼이면서 ‘가사’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계층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2) <부표 II-2>~<부표II-6>까지 제시되어 있다.

NEET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모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가사’에만 전념하는 계층과 통상적인 NEET 계층은 그 구별이 모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2> 구직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2007, 경찰)

(단위: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구직무급가족종사자	-	2,672 (0.36)	-	2,672 (0.01)
위가 아닌 경우	23,432,757 (100.00)	730,457 (99.64)	15,004,069 (100.00)	39,169,283 (99.99)
전체	23,432,757 (100.00) [59.82]	733,129 (100.00) [1.87]	15,004,069 (100.00) [38.31]	39,169,955 (100.00) [100.00]

4) NEET를 정의하는 데 있어 실업자를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도 구직을 희망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할지 여부 또한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우선 실업자를 NEET에 포함시키는 것은 NEET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NEET라는 독립적인 계층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종래의 청년층 실업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과연 NEET 계층의 특성이 실업자들과는 서로 상이한지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NEET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NEUET(Not in Employment, Un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NEET이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3) NEET 계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이를 준비할 의사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게는 단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실업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NEET 계층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실업자가 아닌 NEET보다는 NEET가 아닌 실업자와 더 유사하다는 선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⁴⁾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구직을 희망하는 계층이라 하더라도 NEET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업자 특성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 II-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통계적 분류 기준에 따르면 구직을 희망하는(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규모는 2007년 현재 2,67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업자 그리고 구직을 희망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NEET 계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5)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 중 ‘지난 1주일의 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한 사람들을 NEET로 정의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 ① ‘지난 1주일의 활동’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이지만 취업자나 실업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 계층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제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므로 NEET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기존 연구들도 제외하고 있음).
 - ② ‘지난 1주일의 활동’이 ‘육아’, ‘가사’인 경우 그리고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인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NEET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기존 연구들에서도 대체로 이들을 제외하고 있음).
 - ③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로’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심신장애’인 경우는 존재하는데, 이들은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NEET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음).
 - ④ 2002년 이전 경제활동인구조사표상의 ‘기타’ 항목은 2003년 이후 조사에서는 세분화되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

4) 물론 이러한 판단의 타당성도 실증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로 돌린다.

혼준비', '쉬었음', '기타'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의 조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2년 이전 조사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는 사람 전체를 NEET 계층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 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NEET는 '지난 1주일의 활동'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계층으로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를 하는 계층은 고용 단계에 들어섰거나 혹은 일종의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NEET에 포함되기 어렵다. '군입대 대기'나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계층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쉬고 있는 계층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정확한 특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NEET로 분류되기는 곤란하다.

NEET의 정의와 관련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NEET 계층은 '비경제활동인구' 계층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② 2002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인 사람을 모두 포괄할 수밖에 없다.⁵⁾
- ③ 그러나 200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할 때는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아 있는 문제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혼 이면서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가사'라고 응답하고 있는 계층 중 상당 수가 사실상 NEET 계층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표 II-3>은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사' 종사자의 취업여부 및 혼인여부를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5) <부표 II-1>은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층별로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2002년 이전 자료에서 '기타'로 처리된 항목들이다.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가사’인 계층은 11만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이 11만명의 미혼 ‘가사’ 종사자들의 인적 속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해 ‘가구주’라는 응답이 48,294명(43.70%), ‘미혼자녀’라는 응답이 47,125명(42.64%), 그 외 ‘손자녀’, ‘미혼형제·자매’, ‘기타’라는 응답이 15,099명(13.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0,997명(19.00%), ‘여자’가 89,521명(81.00%)이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17,005명(15.39%), ‘고졸’ 52,466명(47.47%), ‘전문대졸’ 18,336명(16.59%), ‘대졸’ 21,417명(19.38%), ‘대학원’ 1,294명(1.17%)이다. 이들 계층 내에 가구주인 경우, 남자인 경우, 고학력자인 경우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계층 내에 사실상의 NEET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표 II-3> ‘가사’ 종사자의 혼인상태 분포(2007, 경찰)

(단위: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미혼	8,065	371	110,518 (2.06)	118,954
유배우	229,723	14,371	4,033,349 (75.34)	4,277,443
사별	44,520	1,211	1,057,718 (19.76)	1,103,449
이혼	10,507	1,287	151,979 (2.84)	163,773
전체	292,816	17,239	5,353,564 (100.00)	5,663,62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NEET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정의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
- <정의 2> 정의 1+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 ‘가사’인 사람
- <정의 3> 정의 2+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취업준비’+‘진학준비’+‘군입대 대기’+‘결혼준비’+‘기타’인 사람

제3절 NEET의 규모 및 특성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방식에 기초할 경우 NEET 계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주로 이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4>는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을 경우 각 연령층 별로 <정의 1>, <정의 2>, <정의 3>에 기초한 NEET 계층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의 1>과 <정의 2>에 기초할 경우 NEET의 규모는 25만~30만명 수준(전체 인구의 2~3%)으로 동일 연령대의 실업자 수 30만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광의의 정의인 <정의 3>을 따를 경우 NEET 규모는 78만명 수준이다. NEET를 엄격하게 정의하더라도 그 규모가 실업자 수에 거의 근접한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한창 경험을 쌓고 기능을 익혀야 할 청년기에 일을 찾을 의사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교육·훈련에 참가하지도 않는 계층이 이렇게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NEET 계층은 20대 초반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감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지만, 30대 초반에도 전체 인구의 2~3%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NEET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고학력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업자 계층은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NEET가 실업자에 비해 보다 저연령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I-4> 연령대별 니트 규모(2007, 경황)

(단위: 명(%))

		15~19	20~24	25~29	<합계>	30~34
니트	<정의 1>	29,957 (0.94)	109,838 (4.02)	111,915 (2.86)	251,710 (2.55)	88,177 (2.24)
	<정의 2>	32,396 (1.01)	123,358 (4.51)	138,995 (3.55)	294,749 (2.92)	107,213 (2.73)
	<정의 3>	101,058 (3.16)	324,965 (11.88)	350,503 (8.95)	776,526 (7.88)	175,325 (4.46)
실업자		18,604 (0.58)	117,284 (4.29)	168,151 (4.29)	304,039 (3.09)	101,987 (2.59)
전체 인구		3,202,253 (100.00)	2,735,032 (100.00)	3,917,654 (100.0)	9,854,939 (100.00)	3,933,441 (100.00)

그렇다면 이들 NEET 계층은 실업자와는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II-5>에서는 각 정의별 NEET 계층과(15~29세의) 실업자 계층의 주요 인적 속성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NEET는 실업자에 비해 가구주인 비율은 낮은 반면, 대신 미혼자녀인 비율이 더 높으므로 나타났다(대략 10%p 정도). 또한 NEET는 실업자에 비해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비율이 더 높았다(대략 20%p 정도).⁶⁾ NEET는 실업자에 비해 여자일 확률 그리고 미혼일 확률이 높지만, 그 차이는 3~5%p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다면 NEET 계층은 실업자 계층에 비해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학력수준도 낮은 사람의 비율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 <표 II-6>은 NEET 계층과 실업자 계층의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NEET는 실업자에 비해 ‘이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그만둔 지가 1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있더라도 그만둔 지가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NEET는 실업자에 비해 13~15%p 더 적다.⁷⁾ 그만큼 NEET는 실업자에 비

6) 이는 <정의 1>과 <정의 2>를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정의 3>을 기준으로 할 경우 NEET는 실업자에 비해 고졸 이하 학력층의 비율이 5% 정도 더 높다.

7) <정의 3>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격차는 25%에 달하고 있다.

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보다 강함을 보여준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가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보면, NEET는 ‘개인·가족 관련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실업자는 ‘작업여건 불만족’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대략 20%p 정도). 이는 NEET의 경우 개인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II-5> NEET와 실업자의 인적 속성 비교(2007, 경찰)

(단위: 명(%))

		NEET			실업자
		<정의 1>	<정의 2>	<정의 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18,298 (7.27)	26,233 (8.90)	61,153 (7.88)	52,232 (17.18)
	배우자	4,133 (1.64)	4,133 (1.40)	8,668 (1.12)	7,051 (2.32)
	미혼자녀	205,500 (81.64)	236,934 (80.39)	640,588 (82.49)	214,982 (70.71)
	기혼자녀	4,435 (1.76)	4,435 (1.50)	6,408 (0.83)	4,324 (1.42)
	그 외	19,345 (7.69)	23,014 (7.81)	59,710 (7.69)	25,450 (8.37)
성	남자	148,418 (58.96)	153,278 (52.00)	448,057 (57.70)	186,702 (61.41)
	여자	103,292 (41.04)	141,471 (48.00)	328,469 (42.30)	117,337 (38.59)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455 (9.32)	28,834 (9.78)	45,131 (5.81)	15,079 (4.96)
	고졸	164,129 (65.21)	190,847 (64.75)	432,866 (55.74)	151,617 (49.87)
	전문대졸	38,176 (15.17)	46,158 (15.66)	108,068 (13.92)	70,286 (23.12)
	대졸 이상	25,951 (10.31)	28,909 (9.81)	190,461 (24.53)	67,056 (22.06)
혼인상태	미혼	239,344 (95.09)	282,383 (95.80)	754,255 (97.13)	282,755 (93.00)
	유배우, 사별, 이혼	12,366 (4.91)	12,366 (4.20)	22,272 (2.87)	21,283 (7.00)
전체		251,710 (100.00)	294,749 (100.00)	776,526 (100.00)	304,039 (100.00)

<표 II-6> NEET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경험 비교(2007, 경찰)

(단위: 명(%))

		NEET			실업자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없었음	49,624 (19.71)	55,013 (18.66)	200,420 (25.81)	36,254 (11.92)
	1년 이상	71,951 (28.58)	93,870 (31.85)	269,425 (34.70)	71,622 (23.56)
	1년 미만	130,136 (51.70)	145,866 (49.49)	306,682 (39.49)	196,162 (64.52)
전체		251,710 (100.00)	294,749 (100.00)	776,526 (100.00)	304,039 (100.00)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 가족 관련 이유	61,429 (47.20)	70,762 (48.51)	176,119 (57.43)	50,400 (25.69)
	육아	-	-	110 (0.04)	31 (0.02)
	가사	53 (0.04)	53 (0.04)	53 (0.02)	-
	심신장애	1,275 (0.98)	1,275 (0.87)	1,375 (0.45)	368 (0.19)
	정년퇴직, 연로	269 (0.21)	269 (0.18)	269 (0.09)	-
	작업여건 불만족	41,054 (31.55)	45,612 (31.27)	75,166 (24.51)	101,609 (51.80)
	직장 휴폐업	2,794 (2.15)	3,307 (2.27)	6,468 (2.11)	6,912 (3.52)
	명퇴, 정리해고	1,300 (1.00)	1,474 (1.01)	4,799 (1.56)	5,865 (2.99)
	임시, 계절적 일의 완료	9,918 (7.62)	10,290 (7.05)	20,868 (6.80)	15,515 (7.91)
	일거리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	10,585 (8.13)	11,365 (7.79)	16,749 (5.46)	13,921 (7.10)
	기타	1,458 (1.12)	1,458 (1.00)	4,706 (1.53)	1,542 (0.79)
직장 그만둔 지 1년 미만		130,136 (100.00)	145,866 (100.00)	306,682 (100.00)	196,162 (100.00)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내 NEET 계층이 청년실업자 층과 비슷한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점, 그리고 이들 NEET는 실업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 실업자와는 별도로 NEET 계층을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4절 NEET의 시계열 변화 추이

이 절에서는 NEET가 시계열적으로는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연도별 NEET 규모를 추계하여 정리한 <표 II-7>을 보면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정의를 이용하더라도 NEET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 1>의 엄격한 정의를 사용할 경우 이 기간 동안 NEET 계층은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2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NEET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서 2.5%로 0.3%p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5~29세 청년층 인구가 50만명 가량 감소하고 실업자 수도 8만명 정도 감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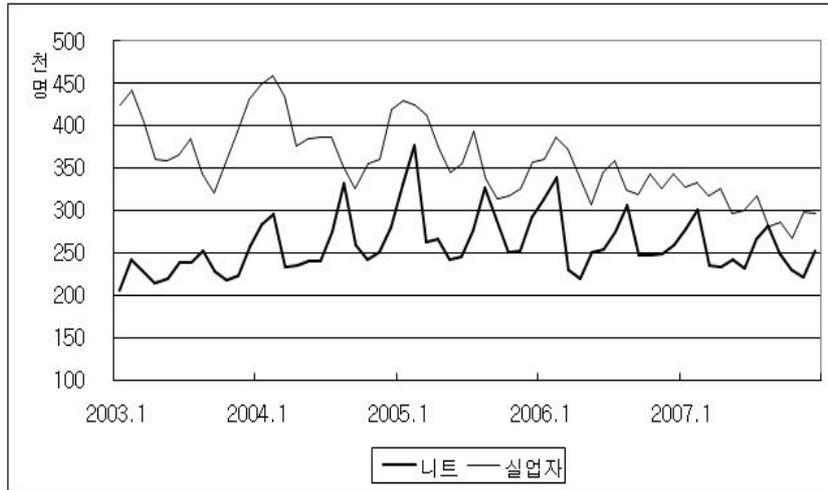
<표 II-7> 연도별 NEET 규모 추세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니트	<정의 1>	230,452 (2.22)	263,989 (2.60)	284,304 (2.87)	265,784 (2.70)	251,710 (2.55)
	<정의 2>	307,393 (2.96)	341,218 (3.36)	327,893 (3.31)	309,006 (3.14)	294,749 (2.92)
	<정의 3>	707,352 (6.82)	737,265 (7.27)	770,184 (7.76)	784,270 (7.97)	776,526 (7.88)
실업자		382,549 (3.69)	390,985 (3.86)	365,614 (3.69)	343,596 (3.49)	304,039 (3.09)
전체 인구		10,367,728 (100.00)	10,140,569 (100.00)	9,919,622 (100.00)	9,842,785 (100.00)	9,854,939 (100.00)

다음 [그림 II-4]는 <정의 1>을 기준으로 한 NEET 계층의 규모와 실업자 계층의 규모를 월별로 추계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업자 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NEET 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NEET 수나 실업자 수 모두 월별로는 규칙적인 진폭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주로 1~2월과 7~8월에 규모가 확대되는데, 이는 각급 학교의 졸업 혹은 방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II-4] NEET와 실업자 규모의 시계열 추이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NEET 계층의 특성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II-8>에서는 <정의 1>을 기준으로 NEET 계층의 인적 속성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NEET는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대신 ‘미혼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략 5% 정도). ‘남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10대’나 ‘20대 초반’의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20대 후반’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고졸 이하’ 계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미혼자녀, 여성, 고연령층, 고학력층이 NEET 계층에 합류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NEET 계층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현상이다. NEET 성향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이 NEET 계층의 인적 특성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EET 계층의 노동시장 경험이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II-9>이다. 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NEET 계층 내에 ‘이전

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4% 정도 감소하였지만, '있더라도 그만둔 지가 1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향이 다소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가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 '개인·가족 관련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 가량 감소한 반면, '작업여건 불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 이유보다는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우가 보다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업자 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NEET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미혼자녀, 여성, 고연령층, 고학력층이 NEET 계층에 합류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추세도 다소 강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NEET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8> 연도별 NEET의 인적 속성 추세(<정의 1> 기준)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7,800 (12.06)	26,752 (10.13)	25,821 (9.08)	21,828 (8.21)	18,298 (7.27)
	배우자	2,902 (1.26)	2,479 (0.94)	2,986 (1.05)	2,310 (0.87)	4,133 (1.64)
	미혼자녀	176,420 (76.55)	209,154 (79.23)	224,802 (79.07)	213,008 (80.14)	205,500 (81.64)
	기혼자녀	1,740 (0.76)	1,930 (0.73)	4,081 (1.44)	4,249 (1.60)	4,435 (1.76)
	그 외	21,598 (9.37)	23,674 (8.97)	26,613 (9.36)	24,389 (9.18)	19,345 (7.69)
성	남자	145,691 (63.22)	165,700 (62.77)	165,938 (58.37)	156,576 (58.91)	148,418 (58.96)
	여자	84,761 (36.78)	98,289 (37.23)	118,366 (41.63)	109,208 (41.09)	103,292 (41.04)
연령	15~19	30,874 (13.40)	33,175 (12.57)	37,737 (13.27)	33,498 (12.60)	29,957 (11.90)
	20~24	116,572 (50.58)	143,420 (54.33)	150,031 (52.77)	127,959 (48.14)	109,838 (43.64)
	25~29	83,006 (36.02)	87,393 (33.10)	96,536 (33.96)	104,327 (39.25)	111,915 (44.46)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925 (9.95)	25,521 (9.67)	28,506 (10.03)	27,518 (10.35)	23,455 (9.32)
	고졸	161,537 (70.10)	179,363 (67.94)	188,663 (66.36)	172,377 (64.86)	164,129 (65.21)
	전문대졸	25,785 (11.19)	34,921 (13.23)	43,344 (15.25)	42,306 (15.92)	38,176 (15.17)
	대졸 이상	20,204 (8.77)	24,184 (9.16)	23,791 (8.37)	23,583 (8.87)	25,951 (10.31)
혼인상태	미혼	217,699 (94.47)	253,220 (95.92)	270,602 (95.18)	254,802 (95.87)	239,344 (95.09)
	유배우, 사별, 이혼	12,752 (5.53)	10,769 (4.08)	13,702 (4.82)	10,982 (4.13)	12,366 (4.91)
전체		230,452 (100.00)	263,989 (100.00)	284,304 (100.00)	265,784 (100.00)	251,710 (100.00)

<표 II-9> 연도별 NEET의 노동시장 경험 추세(<정의 1> 기준)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없었음	54,027 (23.44)	50,015 (18.95)	57,905 (20.37)	51,536 (19.39)	49,624 (19.71)
	1년 이상	44,988 (19.52)	59,847 (22.67)	67,848 (23.86)	74,024 (27.85)	71,951 (28.58)
	1년 미만	131,437 (57.03)	154,127 (58.38)	158,551 (55.77)	140,224 (52.76)	130,136 (51.70)
전체		230,452 (100.00)	263,989 (100.00)	284,304 (100.00)	265,784 (100.00)	251,710 (100.00)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 가족 관련 이유	68,422 (29.68)	79,260 (29.99)	72,652 (25.53)	68,745 (25.86)	61,429 (24.38)
	육아	148 (0.06)	150 (0.06)	154 (0.05)	43 (0.02)	-
	가사	-	-	-	-	53 (0.02)
	심신장애	-	-	759 (0.27)	1,640 (0.61)	1,275 (0.50)
	정년퇴직, 연로	53 (0.02)	-	-	-	269 (0.11)
	작업여건 불만족	34,773 (15.10)	40,272 (15.26)	48,246 (16.94)	45,036 (16.94)	41,054 (16.31)
	직장 휴폐업	4,031 (1.75)	3,774 (1.43)	3,013 (1.06)	3,546 (1.33)	2,794 (1.11)
	명퇴, 정리해고	1,015 (0.44)	2,868 (1.08)	4,356 (1.53)	2,854 (1.07)	1,300 (0.51)
	임시, 계절적 일의 완료	9,757 (4.23)	11,247 (4.26)	10,059 (3.54)	8,152 (3.07)	9,918 (3.94)
	일거리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	10,820 (4.69)	15,096 (5.70)	16,283 (5.75)	8,422 (3.17)	10,585 (4.20)
	기타	2,418 (1.05)	1,459 (0.55)	3,029 (1.07)	1,787 (0.67)	1,458 (0.58)
직장 그만둔 지 1년 미만		131,437 (100.00)	154,127 (100.00)	158,551 (100.00)	140,224 (100.00)	130,136 (100.00)

제5절 회귀분석 결과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 NEET 계층은 실업자 계층에 비해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도 낮으며 미혼인 사람의 비율이 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NEET 계층은 실업자에 비해 ‘이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그만둔 지가 1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단순한 교차표의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절에서는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분석대상은 NEET 계층(정의 1)과 실업자 계층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NEET 계층이 실업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이 있는지, 따라서 NEET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분석의 주목적이 있다.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두 가지이다. NEET 계층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없었음’ 혹은 ‘그만둔 지 1년 이상임’이라고 응답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이므로 여기서는 PROBIT 모형을 사용하고, 각 변수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남자인지 여부, 연령 및 그 제곱, 학력 더미변수들, 미혼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계절적 특수성을 통제하기 위해 조사월에 관한 11개의 더미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먼저 NEET 계층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II-10>을 보자. 계수값과 유의도가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NEET가 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고졸 학력자는 5~10%, 전문대졸 학력자는 15~20%, 대졸 이상 학력자는 21~28% 정도 NEET가 될 확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 NEET가 될 확률은 낮아지는

데, 낮아지는 속도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 역시 미혼자에 비해 NEET가 될 확률이 10% 내외 정도 더 낮다. 한국에서는 주로 저학력 저연령의 계층에서 실업자보다는 NEET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자인지 여부와 NEET와의 관련성은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2003~2004년까지는 남자일 경우가 NEET가 될 확률이 4~5% 더 높았지만, 그 값이 점점 낮아져 2007년에는 여자일 경우가 NEET가 될 확률이 6%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여자가 NEET가 되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0> NEET 결정요인: PROBIT 분석의 한계 효과(<정의 1>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자	0.046*** (0.009)	0.042*** (0.009)	0.020** (0.010)	-0.001 (0.010)	-0.060*** (0.011)
연령	-0.058*** (0.020)	0.007 (0.020)	-0.054*** (0.020)	-0.092*** (0.022)	-0.115*** (0.023)
연령 제곱	0.0011*** (0.0004)	-0.0002 (0.0004)	0.0009** (0.0004)	0.0017*** (0.0005)	0.0023*** (0.0005)
고졸	-0.047*** (0.018)	-0.105*** (0.018)	-0.078*** (0.018)	-0.067*** (0.019)	-0.045** (0.021)
전문대졸	-0.192*** (0.017)	-0.206*** (0.018)	-0.161*** (0.019)	-0.144*** (0.021)	-0.192*** (0.022)
대졸 이상	-0.211*** (0.017)	-0.263*** (0.017)	-0.232*** (0.019)	-0.264*** (0.019)	-0.278*** (0.020)
미혼	0.118*** (0.016)	0.155*** (0.017)	0.085*** (0.019)	0.028 (0.022)	0.101*** (0.021)
Pseudo R2	0.0332	0.0336	0.0304	0.0371	0.0424
N	12,389	12,622	12,357	11,385	9,711

주: 종속변수는 NEET 계층이면 1, 그렇지 않고 실업자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계수값은 연속변수의 경우 dF/dx , 더미변수의 경우 0에서 1로 증가 시 확률의 변화분.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는 10%, **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학력은 '중졸 이하'가 기준임. 11개의 월에 대한 더미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하였음.
NEET(정의 1) 계층과 실업자 계층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임.

다음으로는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 II-11>은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었음’ 혹은 ‘그만 둔 지 1년 이상임’이라고 응답했는지(최근 노동시장 경험이 없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PROBIT 분석 결과의 한계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일관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남자인지 여부, 대졸 이상, 그리고 미혼 변수이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8~9% 정도, 대졸 이상 학력자는 중졸 이하 학력자에 비해 15~30% 정도, 미혼은 기혼에 비해 9~14% 정도 최근에 노동시장 경험을 가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NEET는 실업자에 비해 최근에 노동시장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강화되고 있다. 확률의 차이는 2003년 8.6%, 2004년 11.4%에서 2007년에는 14.0%까지 증가하고 있다. NEET는 실업자에 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보다 강하고, 또 그러한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1>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분석: PROBIT 분석의 한계 효과

	2003	2004	2005	2006	2007
NEET	0.086*** (0.009)	0.114*** (0.009)	0.130*** (0.009)	0.126*** (0.010)	0.140*** (0.010)
남자	0.093*** (0.009)	0.098*** (0.009)	0.081*** (0.009)	0.085*** (0.010)	0.098*** (0.011)
연령	-0.027 (0.020)	-0.018 (0.019)	-0.010 (0.019)	-0.054** (0.021)	-0.110*** (0.023)
연령 제곱	0.0001 (0.0004)	-0.0002 (0.0004)	-0.0003 (0.0004)	0.0007 (0.0004)	0.0017*** (0.0005)
고졸	0.0004 (0.017)	0.026 (0.017)	-0.027 (0.017)	-0.021 (0.019)	0.054*** (0.021)
전문대졸	-0.096*** (0.019)	-0.006 (0.020)	-0.031 (0.020)	-0.081*** (0.021)	0.0004 (0.024)
대졸 이상	0.147*** (0.023)	0.213*** (0.023)	0.180*** (0.023)	0.210*** (0.023)	0.290*** (0.024)
미혼	0.125*** (0.016)	0.107*** (0.018)	0.139*** (0.018)	0.087*** (0.022)	0.088*** (0.022)
Pseudo R2	0.0533	0.0534	0.0464	0.0471	0.0578
N	12,389	12,622	12,357	11,385	9,711

주: 종속변수는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었음' 혹은 '그만둔 지 1년 이상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인 더미변수. 계수값은 연속변수의 경우 dF/dx , 더미변수의 경우 0에서 1로 증가 시 확률의 변화분.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는 10%, **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학력은 '중졸 이하'가 기준임. 11개의 월에 대한 더미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하였음. NEET(정의 1) 계층과 실업자 계층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임.

제6절 소결

이 장에서의 논의는 이어지는 다음 장들의 분석을 위해 NEET 계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NEET의 규모와 시계열 추이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좁은 의미의 NEET를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이 ‘쉬었음’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정의 1). 실업자를 NEET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종래의 청년실업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 미혼 ‘가사’ 종사자의 경우 NEET 계층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NEET에 포함하는 형태로 개념 확대를 시도해 보았다(정의 2). 끝으로 기존 경황 자료의 한계 내에서 시계열 자료의 일치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NEET의 정의를 보다 확대하기도 하였다(정의 3=정의 2+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취업준비’+‘진학준비’+‘군입대 대기’+‘결혼준비’+‘기타’인 사람). 연령층은 기본적으로 청년층인 15~29세로 국한시켰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34세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정의 1>과 <정의 2>에 기초할 경우 2007년 NEET의 규모는 25만~30만 명 수준(전체 인구의 2~3%)으로 동일 연령대의 실업자 수 30만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광의의 정의인 <정의 3>을 따를 경우 NEET 규모는 78만명 수준이다. NEET를 엄격하게 정의하더라도 그 규모가 실업자 수에 거의 근접한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NEET의 특성을 실업자와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NEET는 실업자에 비해 보다 저학력, 저연령,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노동시장 경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자와는 별도로 NEET 계층을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어떠한 정의를 이용하더라도 NEET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 1>의 엄격한 정의를 사용할 경우 이 기간 동안 NEET 계층은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2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에서 NEET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서 2.5%로 0.3%p 증가). 이 기간 동안 15~34세 청년층 인구가 50만명 가량 감소하고 실업자 수도 8만명 정도 감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기간 동안 미혼자녀, 여성, 고연령층, 고학

력층이 NEET 계층에 합류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추세도 다소 강화되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NEET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 NEET 계층의 성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제 3 장 수요·공급충격과 유휴청년층

제1절 문제제기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업자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실상의 실업에 해당하는 유휴청년 인구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유휴청년층의 규모는 노동수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편으로, 청년층의 취업-실업-비경제활동 간의 상태이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본장의 목적은 첫째로, 유휴청년층의 규모가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여성취업 증가와 같은 노동공급 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노동수요 및 공급 변동이 유휴청년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시차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청년실업대책 차원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일반적 믿음이 있으나, 노동수요 충격이 청년층의 고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노동수요 충격이 유휴청년층의 규모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진작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급충격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유동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서, 청년층 내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변동이 유휴청년층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예컨대, 청년실업과 유휴청년층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청년취업이 증가하면 유휴청년층은 감소하는지 등이 주된 관심이 된다. 실업에 대한 설명이론으로서 부가노동자가설(additional worker hypothesis), 실망노동자가설(discouraged worker hypothesis) 등은 실업에 관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유휴청년층의 규모를 설명함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기가 좋아지면 당초 노동시장 참여의사가 없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사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준비 등의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유휴청년층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 직접적 구직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유휴청년층의 증가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이론적 설명은 궁극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유동적 특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측에서 충격(shock)이 발생하였을 때 유휴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시차구조를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ECM)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이 유휴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수요 변동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변수로 경제성장률을 포함하였으며, 노동공급 측의 충격으로는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증감률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년층 경제활동상태의 유동성을 분석에 고려하기 위해 유휴청년층 증감률,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 청년층 실업자 수 증감률 등을 각각 포함하였다. 한편, 유휴청년층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5~29세 연령구간과 15~34세 연령구간으로 나누어 별도로 분석하였고, 해당 연령구간의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 청년유휴층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절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오차수정모형은 VAR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에서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이 추가된 형태를 가지며 차분된 종속변수를 오차수정항과 차분된 설명변수의 시차변수함수로 간주하고 있다. 오차수정모형은 VAR모형을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VAR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최근 시계열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VAR모형은 어떠한 경제이론을 기초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실제 관찰되는 경제시계열이 주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하는 장점을 갖는다. 전통적인 회귀모형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설명변수의 영향이 시간 t 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구조모형(structure model)은 경제이론에 따라 변수선택 및 내생·외생변수 선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형설계자의 주관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

둘째,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통하여 어떠한 변수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하여 각각의 내생변수의 변동 중에서 이들 변수들이 전체변동에 기여한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VAR모형은 연립방정식 체계와 비슷하나 모형의 오차항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오차수정모형은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모형추정,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

시계열 자료는 크게 불안정한 시계열과 안정한 시계열 2개의 범주로 구분

된다.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에서는 모든 경제변수에 대해 안정성을 갖는 시계열로 가정하고 분석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시계열은 불안정한 성격을 갖는데, 불안정한 시계열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계량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경제변수 간의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가 발생한다(김해경, 2005).

이 때문에 시계열 자료에 있어서 안정성(stationary) 만족 여부는 분석을 진행하기 전 파악해야 할 중요한 단계가 된다. 안정적이란 시계열 자료가 단기적 충격에 의해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한다. 시계열의 안정성 만족조건은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공분산이 계산되는 실제시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점 간의 거리 혹은 시차에만 의존해야 한다(박유성, 2002).

안정성 만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단위근 검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세요인의 존재 여부를 검정하여 차분을 통해 안정적인 시계열로 변환해야 한다. 단위근 존재 여부에 대한 검정 방법은 DF 검정법(Dickey and Fuller Test), ADF 검정법(Augmented Dickey and Fuller Test), PP 검정법(Phillips Perron Test)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흔히 쓰이는 ADF 검정법을 사용한다.⁸⁾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안정적 시계열이라 함은 외부 충격에 단기적 영향을 받더라도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위근이 존재하게 되면 충격 효과가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는 불안정한 시

8) 가장 간단한 단위근 검정방법은 DF검정으로 자료가 AR(1)에 따르는 경우 적합하나, 실제 경제변수는 AR(p), ARMA(p,q) 등과 같이 더 일반적인 종속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F검정보다 ADF검정을 흔히 사용한다. 또한 AIC기준과 SC기준에 의한 적정시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때는 시차를 사용하지 않는 PP검정을 이용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ADF검정을 사용한다(최문선, 2006).

계열이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에서는 기계적 차분을 통하여 시계열을 안정 상태로 만들어 준 후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런 경우 장기정보의 유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각 변수를 기계적으로 차분하여 사용하면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각 변수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유금록, 1998). 공적분 검정은 수준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 관계의 존재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수준변수를 차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시계열 변수들 각각은 불안정적이지만 이들의 선형 결합이 안정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준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 또는 균형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허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들의 수준 형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하는 것은 의미를 갖게 된다. 공적분 검정은 Engle-Granger(1987)에 의한 2단계 공적분 검정방법이 최초로 체계화되어 많이 사용되었으나, Johansen(1988)은 최우추정법에 의해 Engle and Granger보다 일반화된 공적분 검정법을 제시했다. Johansen 공적분 검정법은 Engle and Granger의 공적분 검정에서 변수의 위치 선정에 따른 상반된 결론 도출 문제를 보완하였다. 또한 공적분 관계 개수와 공적분 벡터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고 제약된 형태의 공적분 벡터와 조정속도모수를 검정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Monte Carlo연구에 의하면 Engle-Granger 검정법보다 Johansen 검정에 의한 추정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Johansen 공적분 검정에서 적정 시차의 결정은 VAR모형을 이용하는데 최적 시차의 결정 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SC(Schwarz Criteria)를 사용한다. 이 기준들이 극소가 되는 최적 시차를 공적분 검정에 적용시킴으로써 유효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AIC와 SC가 극소가 되는 시차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다음의 계산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begin{aligned}
 AIC(p) &= \ln|\Omega| + \frac{2n^2p}{T} \\
 SC(p) &= \ln|\Omega| + \frac{n^2p(\ln T)}{T}
 \end{aligned}
 \tag{1}$$

이 두 개의 식은 $-\ln(\text{likelihood}) + \alpha_i$ 로 해석할 수 있으며 MLE가 클수록 모수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AIC와 SC가 최소가 되는 p 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3.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공적분 검정은 불안정한 변수들 간 장기적 균형관계의 존재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인과 방향은 제시하지 않는다.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이고 제약이 없는 경우 Granger 또는 Sims의 인과 검정을 통해 변수 간 선행성 및 독립성을 알아낼 수 있다. X변수가 Y변수에 그랜저 인과한다는 것의 의미는 Y변수 값을 예측시 Y변수의 과거값과 X변수의 과거값을 동시에 이용했을 때 설명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Y_t = \beta_t + \sum_s Y_{t-s} + \sum_s X_{t-s} + \epsilon_t
 \tag{2}$$

즉, 선택 가능한 모든 s 범위에서 X변수의 과거치가 Y변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은 'X변수는 Y변수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에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Granger나 Sims의 인과검정 방법은 추정에 사용된 자료 기간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Granger(1988)는 두 변수 간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던 Granger 또는 Sims의 인과검정은 그 결과가 신뢰하기 어려

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면 두 변수 사이에는 한 개 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오차수정항이 포함된 오차수정모형의 사용을 권고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의 장점은 장기적 인과관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VAR모형과 달리 장단기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Granger(1988)는 오차수정모형에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첫째, 시차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하여 인과 방향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시차 연산자 $B(L)$ 이 F검정을 통해 결합적으로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y 는 x 로 인과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같은 논리에 의해 $D(L)$ 이 유의성을 갖는다면 x 는 y 로 인과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오차수정계수를 t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오차수정모형 구조식에서 b_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y 에서 x 로 인과하고 b_2 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면 x 에서 y 로 인과한다. 오차수정항은 Granger와 Sims의 인과검정이 간과한 부분으로 두 변수 사이의 인과 방향을 규명해주는 추가적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전기 오차수정항은 매 시차에서 균형 조정에 관여하므로 전기 오차수정항에 의해 도출된 인과관계는 장기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차분된 설명변수의 과거 시차변수에 의한 인과관계는 단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t 검정을 통한 유의성 검정은 장기적 인과 방향을, F 검정을 통한 유의성 검정은 단기적 인과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4.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충격반응분석은 특정 변수에 단위당 충격이 있을 때 이 충격이 다른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ECM모형의 추정결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단위당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른 변수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R(1)모형의 경우 0기에만 1만큼의 충격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앞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R(1)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_t = \rho^t Z_0 + \rho^{t-1} \epsilon_1 + \rho^{t-2} \epsilon_2 + \dots + \rho^1 \epsilon_{t-1} + \epsilon_t \quad (3)$$

이때, Z_t 의 충격반응은 오차항의 계수(ρ^{t-i})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를 일반화시켜 ECM모형에서도 오차항의 계수를 통해 충격 반응을 얻어낼 수 있고, 이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라 부른다. 충격반응분석은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변수의 순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충격반응분석 수행 전 정확한 인과관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5. 분산분해분석(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분산분해분석의 목적은 충격반응분석과 반대로 ECM모형 내에 각 변수의 변동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변수의 변동으로 분리해내는 것이다. 즉, 분산분해분석은 모형 내에서 변수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제시해주고 특정 변수의 변동을 자신의 충격에 의한 부분과 타 변수의 충격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준다.

분산분해는 Cholesky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오차항의 공분산을 분해함으로써 예측오차의 분산을 분해할 수 있다. 충격반응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산분해 역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순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잔차에 대한 공분산들이 작다면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번째 변수에 대한 b번째 변수의 기여도 C_{ab} 는 다음과 같다(문권순, 1997).

$$C_{ab} = \left(\frac{\sum_{s=0}^{k-1} (h_{sab})^2 \text{var}(U_b)}{\sum_{s=0}^{k-1} \sum_{i=1}^N (h_{sai})^2 \text{var}(U_i)} \right) \times 100 \quad (4)$$

제3절 실증분석

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유희청년층에 대한 경제 내의 영향을 수요충격, 공급충격, 그리고 청년층 내부에서의 경제활동 상태변동 충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구성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충격으로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국내총생산(GDP) 분기별 자료(2000년 기준, 명목, 원화표시)를 사용하였다. 노동수요는 제품수요의 파생수요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기변동은 노동수요 변동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1992년 3/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공급충격으로서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변수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에 나타난 대표적 공급충격으로서 여성취업의 증가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가 갖는 유동적 성격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희청년 수, 청년취업자 수, 청년실업자 수 등의 변수를 분석에 함께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해 자연로그값을 취한 후 당분기 값에서 전년동기값을 차감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계산하였다.

$$Var_{i,t} = \ln(Variable_{i,t}) - \ln(Variable_{i,t-4}) \quad (5)$$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가공 및 집계를 위하여 SAS 9.1 및 EXCEL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ECM 추정에는 Eviews 5.0이 이용되었다.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유희청년층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5~29세 연령구간과, 15~34세 연

령구간에 대해 별도로 유휴청년층 변수를 구축하였고, 분석에서도 이러한 연령구간을 별도로 적용한 모델을 각기 사용함으로써 정의상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존재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총 6개의 모델을 추정하였는데, 2개의 연령그룹(15~29세, 15~34세)별로 전체, 남자, 여자 등 3개를 별도로 추정하였다.

한편 유휴청년층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휴청년층 변수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지에는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이 분석기간(1992.3/4~2007.4/4)에 걸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본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유휴청년층을 식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선택지가 2003년 이후에는 비교적 자세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시기에는 ‘기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유휴청년층을 식별하기가 매우 곤란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들을 전 분석기간에 걸쳐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통학인데, 통학의 사전적인 정의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므로 2002년 이전의 응답자들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을 기타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타’로 간주하였다. 기타에 포함된 청년층 중 ‘발령대기’,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결혼준비’ 등은 유휴청년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상 시계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휴청년층에 부득이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표 III-1> 변수 설명

변수명	정 의
GDP	전년 동기대비 GDP 증감률
J35_W	전년 동기대비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증감률
J29	전년 동기대비 29세 이하 취업자 수 증감률
J34	전년 동기대비 34세 이하 취업자 수 증감률
NJ29	전년 동기대비 29세 이하 실업자 수 증감률
NJ34	전년 동기대비 34세 이하 실업자 수 증감률
NT29	전년 동기대비 29세 이하 유휴청년 수 증감률
NT29_M	전년 동기대비 29세 이하 남성 유휴청년 수 증감률
NT29_W	전년 동기대비 29세 이하 여성 유휴청년 수 증감률
NT34	전년 동기대비 34세 이하 유휴청년 수 증감률
NT34_M	전년 동기대비 34세 이하 남성 유휴청년 수 증감률
NT34_W	전년 동기대비 34세 이하 여성 유휴청년 수 증감률

<표 III-2> 경제활동인구조사표상의 유휴청년층 식별 문항 비교표

번호	2005~2007	2003~2004	1999~2002	1997~1998	1991~1996
1	일하였음	일하였음	일하였음	일하였음	일하였음
2	일시휴직	일시휴직	일시휴직	일시휴직	일시휴직
3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활동
5	육아	육아	육아	육아	가사
6	가사	가사	가사	가사	
7	정규 교육기관 통학	정규 교육기관 통학	통학	통학	통학
12	연로	연로	연소, 연로	연소, 연로	연소, 연로
13	심신장애	심신장애	심신장애	심신장애	심신장애
4	발령대기		기타	기타	기타
8	입시학원 통학	입시학원 통학			
9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10	취업준비	취업준비			
11	진학준비	진학준비			
14	군입대 대기	군입대 대기			
15	결혼준비	결혼준비			
16	쉬었음	쉬었음			
17	기타	기타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문항을 활용하여 작성.

2. 기초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분기별 증감률을 도시하였는데, 유휴청년(15~29세)과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GDP와 유휴청년층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두 변수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GDP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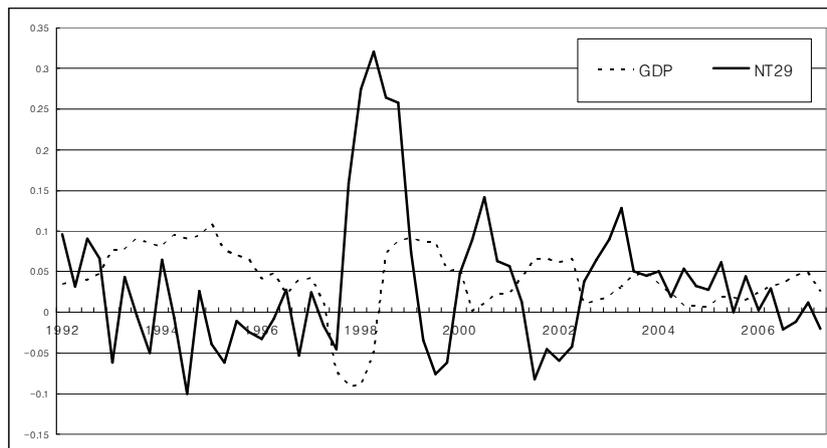
둘째,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와 유휴청년의 관계 역시 두 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셋째, 청년취업과 유휴청년 역시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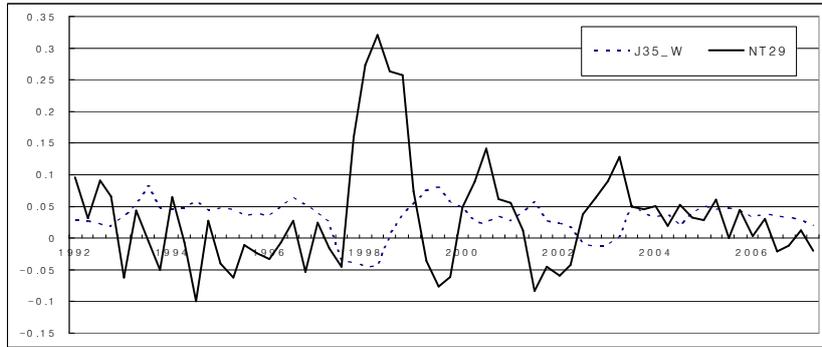
넷째, 청년실업과 유휴청년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나 2004년 이후 청년실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유휴청년층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유휴청년층의 정의와 관련하여 15~29세 연령구간과 15~34세 연령구간을 각각 정의하였는데, 두 변수의 움직임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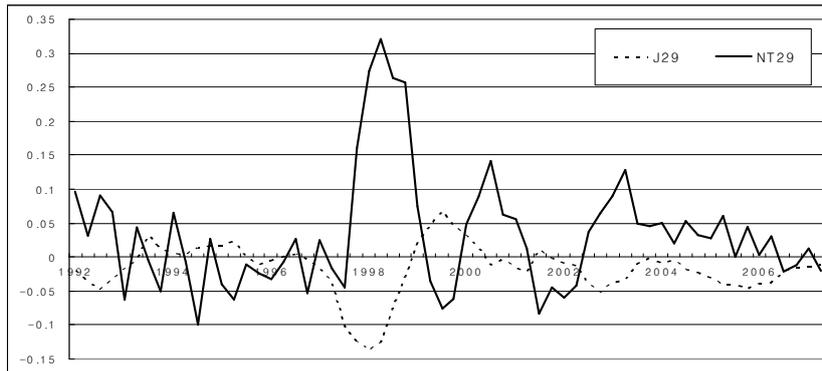
[그림 III-1] GDP와 유휴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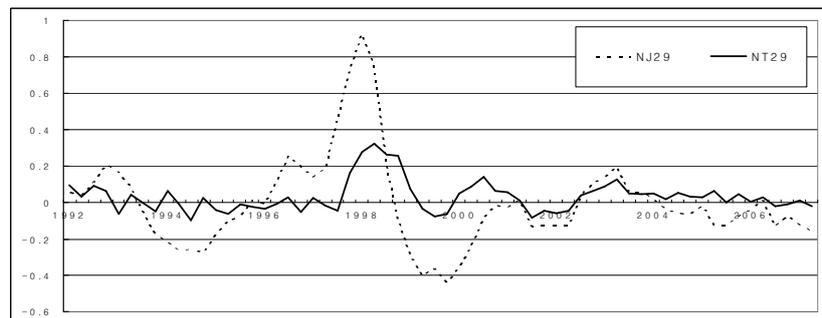
[그림 Ⅲ-2] 35세 이상 여성취업과 유휴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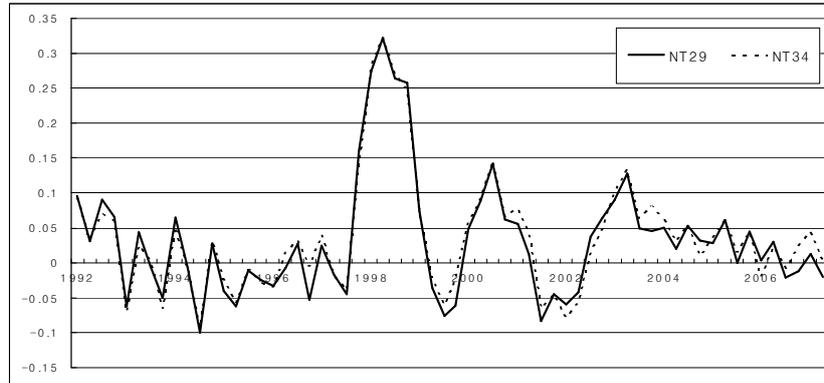
[그림 Ⅲ-3] 청년취업과 유휴청년



[그림 Ⅲ-4] 청년실업과 유휴청년



[그림 III-5] 34세 이하와 29세 이하 유휴청년



3.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본격적인 시계열 분석에 앞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일은 시계열의 안정성 만족 여부의 확인이다. 즉, 분석 대상이 될 시계열의 평균과 분산이 시간의 변화에 일정하고 공분산이 시차에만 의존해야 한다. 불안정적인 시계열에 대한 OLS는 허구적인 회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적분 추정에 선행해서 각 변수의 단위근 검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시계열의 단위근 존재와 적분의 차수가 동일한지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에서 상수항만 존재하는 모형과 상수항과 추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형에 대하여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실시하였고, 차분 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정을 시행했다.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기 전 계절성을 보이는 변수들에 대해선 X11-ARIMA 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성을 제거하였다.⁹⁾

<표 III-3>에는 ADF 검정의 시행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상수항과 추세를 포함할 경우 1% 유의수준에서 모든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였고, 1차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불안정 시계열인 랜덤워크 과정으로서 I(1)을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9) 계절성을 제거한 변수는 J35_W, NT29, NT29_M, NT29_W, NT34, NT34_M, NT34_W 등이다.

<표 III-3> ADF 검정 결과표

변수명	ADF Test Statistic			
	level		1차 차분 후	
	상수항	상수항+추세	상수항	상수항+추세
GDP	-2.471	-2.624	-5.793 ***	-5.744 ***
CT	-2.973	-2.860	-5.570 ***	-5.545 ***
J35_W	-2.710	-2.720	-6.393 ***	-6.342 ***
J55	-3.052	-3.026	-6.606 ***	-6.546 ***
NJ29	-1.961	-1.984	-4.303 ***	-4.268 ***
NT29	-3.341 **	-3.316 **	-8.094 ***	-8.022 ***
NT29_M	-3.969 ***	-3.936 **	-9.234 ***	-9.149 ***
NT29_W	-3.282 **	-3.280 *	-8.164 ***	-8.096 ***
NJ34	-1.903	-1.923	-4.002 **	-3.970 **
NT34	-3.253 **	-3.242 **	-7.713 ***	-7.641 ***
NT34_M	-3.760 ***	-3.730 **	-8.891 ***	-8.809 ***
NT34_W	-3.225 **	-3.239 *	-7.555 ***	-7.488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Level 수준 상수항 모형 임계값 : -3.542(1%), -2.910(5%), -2.593(10%)

Level 수준 상수항+추세 모형 임계값 : -4.116(1%), -3.485(5%), -3.171(10%)

1차 차분 후 상수항 모형 임계값 : -3.544(1%), -2.911(5%), -2.593(10%)

1차 차분 후 상수항+추세 모형 임계값 : -4.118(1%), -3.487(5%), -3.172(10%)

4.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Granger(1986)는 공적분 검정의 필요조건으로 각 변수가 동일한 차수의 적분을 갖는 불안정적인 시계열이거나, 두 시계열 모두 공통의 확률적 추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근 검정을 통해 모든 변수들이 I(1)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시계열 간 선형결합이 정상 시계열이 되는 공적분 관계의 존재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Johansen의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이용하여 변수조합에 따라 구성된 6

개 모델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시행한 결과, 15~29세 여성 유휴청년 모델에서 2개의 공적분관계가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모델에서 1개의 공적분관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각 수준변수가 불안정하더라도 변수 간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공적분 검정을 위해 사용된 시차(p)는 ECM모델을 적용하여 계산된 검정통계량으로서 AIC와 SC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표 III-4>에는 변수조합에 따라 구성된 6개 모델별로 AIC 및 SC 검정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차로 1이 가장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와 <표 III-6>에는 각 모델에 대한 공적분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델 3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에서 “공적분의 개수가 0개이다”라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으므로 공적분의 개수는 1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모델 3에서는 “공적분의 개수가 1개이다”라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으므로 공적분의 개수가 2개임을 알 수 있다.

<표 III-4> 시차구조 결정을 위한 검정통계량

시차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AIC	SC										
1	-22.00	-20.57	-21.50	-20.07	-21.51	-20.08	-22.63	-21.20	-22.30	-20.87	-22.28	-20.85
2	-21.84	-19.52	-21.47	-19.14	-21.58	-19.26	-22.60	-20.27	-22.26	-19.93	-22.48	-20.15
3	-22.10	-18.87	-21.93	-18.70	-21.50	-18.27	-22.62	-19.39	-22.32	-19.08	-22.33	-19.10
4	-22.48	-18.32	-22.61	-18.45	-21.67	-17.51	-22.82	-18.66	-22.80	-18.65	-22.17	-18.02

<표 III-5> 29세 이하 유휴청년층 공적분 검정 결과표(시차: 1, AIC SC 기준)

Model 1: GDP J35_W J29 NJ29 NT29			
공적분 개수	Eigenvalue	Likelihood Ratio	1% Critical Value
None ***	0.638	125.372	96.58
At most 1	0.343	64.470	70.05
At most 2	0.278	39.247	48.45
At most 3	0.179	19.704	30.45
At most 4	0.123	7.881	16.26
Model 2: GDP J35_W J29 NJ29 NT29_M			
공적분 개수	Eigenvalue	Likelihood Ratio	1% Critical Value
None ***	0.611	116.043	96.58
At most 1	0.322	59.455	70.05
At most 2	0.258	36.108	48.45
At most 3	0.158	18.209	30.45
At most 4	0.123	7.882	16.26
Model 3: GDP J35_W J29 NJ29 NT29_W			
공적분 개수	Eigenvalue	Likelihood Ratio	1% Critical Value
None ***	0.519	115.333	96.58
At most 1 ***	0.380	71.395	70.05
At most 2 **	0.288	42.673	48.45
At most 3	0.201	22.292	30.45
At most 4	0.137	8.854	16.26

주: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2) $H_0 : rank(\gamma) \leq k$ Vs $H_1 : rank(\gamma) = k+1$

<표 III-6> 34세 이하 유휴청년층 공적분 검정 결과표(시차: 1, AIC SC 기준)

Model 4: GDP J35_W J34 NJ34 NT34			
공적분 개수	Eigenvalue	Likelihood Ratio	1% Critical Value
None ***	0.589	106.610	96.58
At most 1	0.285	53.271	70.05
At most 2	0.259	33.143	48.45
At most 3	0.139	15.123	30.45
At most 4	0.097	6.125	16.26
Model 5: GDP J35_W J34 NJ34 NT34_M			
공적분 개수	Eigenvalue	Likelihood Ratio	1% Critical Value
None ***	0.627	107.825	96.58
At most 1	0.276	48.694	70.05
At most 2	0.218	29.298	48.45
At most 3	0.123	14.543	30.45
At most 4	0.105	6.642	16.26
Model 6: GDP J35_W J34 NJ34 NT34_W			
공적분 개수	Eigenvalue	Likelihood Ratio	1% Critical Value
None ***	0.490	98.265	96.58
At most 1	0.319	57.897	70.05
At most 2	0.261	34.844	48.45
At most 3	0.165	16.693	30.45
At most 4	0.094	5.906	16.26

주: 1)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H_0 : rank(\gamma) \leq k$ Vs $H_1 : rank(\gamma) = k+1$

5.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한 인과검정

시계열이 안정적이라면 VAR모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즉, 모든 변수들이 I(1)이고 선형결합이 안정 시계열이 되는 관계가 존재하므로 차분 후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VAR모형에 적용시켜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분은 해석상의 까다로움과 자료의 손실이라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공적분이 존재하는 자료를 차분된 VAR모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차분하여 모형설정 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시경제 변수 대부

분이 안정적 시계열 자료가 아니므로 단순한 VAR모형을 이용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변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하여 다중공선성이 높다는 점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공적분이 존재할 경우 차분된 VAR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ECM은 VAR모형에 제약이 추가된 모형이기 때문에 ECM의 사용이 더 효율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ranger(198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Granger(1969) 인과관계검정은 오차수정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정결과가 유효하지 않음이 강조되었고, 두 변수가 장기적 공동추세를 가지고 있다면 인과관계의 방향은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되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중 Model 1의 인과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오차수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elta gdp_t = & C_1 + b_1 EC_{t-1} + A(L) \Delta gdp_{t-1} + B(L) \Delta B5 w_{t-1} + C(L) \Delta j29_{t-1} \\ & + D(L) \Delta nj29_{t-1} + E(L) \Delta nt29_{t-1} + \epsilon_{1,t} \end{aligned} \quad (13)$$

$$\begin{aligned} \Delta B5 w_t = & C_2 + b_2 EC_{t-1} + F(L) \Delta B5 w_{t-1} + G(L) \Delta gdp_{t-1} + H(L) \Delta j29_{t-1} \\ & + I(L) \Delta nj29_{t-1} + J(L) \Delta nt29_{t-1} + \epsilon_{2,t} \end{aligned} \quad (14)$$

$$\begin{aligned} \Delta j29 = & C_3 + b_3 EC_{t-1} + K(L) \Delta j29_{t-1} + L(L) \Delta B5 w_{t-1} + M(L) \Delta gdp_{t-1} \\ & + N(L) \Delta nj29_{t-1} + O(L) \Delta nt29_{t-1} + \epsilon_{3,t} \end{aligned} \quad (15)$$

$$\begin{aligned} \Delta nj29 = & C_4 + b_4 EC_{t-1} + P(L) \Delta nj29_{t-1} + Q(L) \Delta B5 w_{t-1} + R(L) \Delta j29_{t-1} \\ & + S(L) \Delta gdp_{t-1} + T(L) \Delta nt29_{t-1} + \epsilon_{4,t} \end{aligned} \quad (16)$$

$$\begin{aligned} \Delta nt29 = & C_5 + b_5 EC_{t-1} + U(L) \Delta nt29_{t-1} + V(L) \Delta B5 w_{t-1} + W(L) \Delta j29_{t-1} \\ & + X(L) \Delta nj29_{t-1} + Y(L) \Delta gdp_{t-1} + \epsilon_{5,t} \end{aligned} \quad (17)$$

VAR모형과는 달리 오차수정모형은 장기적인 인과관계와 단기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주는 장점이 있다. 두 변수가 공적분 관계에 있다면 단기적 충격에 의해 평균에서 이탈하였을지라도 오차수정계수의 장기적 균형유지 기능을 통해 매 시차마다 평균으로 회귀하도록 조정받는다. 오차수정항이 내포하고 있는 장기적인 인과관계는 오차수정계수에 대한 t 검정을 이용하는데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장기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차분된 설명변수의 과거 시차변수에 의한 단기적인 인과관계는 시차다항식에 대한 F 검정을 이용한다. 각 모델별 오차수정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⁰⁾

<표 III-7> 오차수정모형 1(남녀 전체, 15~29세)

설명변수	종속변수				
	D(GDP)	D(J35_W)	D(J29)	D(NJ29)	D(NT29)
CE1	-0.114	0.195	0.327	-1.834	-2.468
	[-0.537]	[1.335]	[2.528] **	[-2.254] **	[-6.344] ***
D(GDP(-1))	0.296	0.153	0.147	-1.199	0.952
	[1.353]	[1.013]	[1.101]	[-1.431]	[2.376]
D(J35_W(-1))	-0.088	-0.098	0.055	0.849	0.053
	[-0.268]	[-0.434]	[0.275]	[0.675]	[0.087]
D(J29(-1))	0.294	-0.126	-0.076	-0.519	0.601
	[0.803]	[-0.499]	[-0.343]	[-0.370]	[0.896]
D(NJ29(-1))	-0.013	0.001	0.007	0.017	-0.125
	[-0.304]	[0.046]	[0.283]	[0.104]	[-1.595]
D(NT29(-1))	0.107	0.019	0.010	-0.005	0.039
	[1.708]	[0.449]	[0.272]	[-0.019]	[0.341]
C	0.000	0.000	0.000	-0.003	-0.001
	[-0.050]	[-0.055]	[0.197]	[-0.226]	[-0.243]
F-statistic	1.191	1.717	7.224 **	7.988 **	12.252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은 t 값을 의미함.

3) 시차는 AIC와 SC 기준에 의해 1로 정함.

10) 모델별 공적분벡터 추정식은 <부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8> 오차수정모형 4(남녀 전체, 15~34세)

설명변수	종속변수				
	D(GDP)	D(J35_W)	D(J34)	D(NJ34)	D(NT34)
CE1	-0.2237 [-0.992]	0.2103 [1.326]	0.2391 [2.278] **	-1.5178 [-1.775] *	-2.2631 [-5.282] ***
D(GDP(-1))	0.3170 [1.449]	0.1457 [0.947]	0.1485 [1.458]	-1.1190 [-1.349]	0.8045 [1.935]
D(J35_W(-1))	-0.0988 [-0.321]	-0.0944 [-0.437]	0.0016 [0.010]	0.4209 [0.361]	0.2662 [0.456]
D(J34(-1))	0.5207 [1.092]	-0.1211 [-0.361]	0.0489 [0.220]	-1.3515 [-0.747]	0.4914 [0.542]
D(NJ34(-1))	-0.0286 [-0.628]	0.0090 [0.281]	0.0043 [0.202]	0.0703 [0.407]	-0.0994 [-1.149]
D(NT34(-1))	0.1550 [2.331]	0.0207 [0.442]	0.0279 [0.902]	-0.1900 [-0.753]	0.0800 [0.632]
C	-0.0001 [-0.036]	-0.0001 [-0.064]	0.0001 [0.037]	-0.0031 [-0.254]	-0.0009 [-0.140]
F-statistic	1.6406	1.7546	9.6804 ***	9.7021 ***	9.8449 ***

주: 시차는 AIC와 SC 기준에 의해 1로 정함.

위에 제시된 추정 결과표를 바탕으로 장·단기 인과관계를 <표 III-9>, <표 III-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장·단기 인과관계에서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GDP증감률과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증감률은 거의 모든 변수에 원 인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관심 사항인 유희청년 수 증감률은 항상 결과 변수로 작용을 하였다.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에서는 분석 변수의 순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분석을 해본 결과 GDP증감률 →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증감률 → 취업자 수 증감률 → 실업자 수 증감률 → 유희청년 수 증감률의 순서대로 분석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II-9> 29세 이하 유휴청년층 장·단기 인과관계 결과표

장기 인과관계			단기 인과관계		
GDP	⇔	J35_W	GDP	⇔	J35_W
GDP	⇒	J29	GDP	⇒	J29
GDP	⇒	NJ29	GDP	⇒	NJ29
GDP	⇒	NT29	GDP	⇒	NT29
J35_W	⇒	J29	J35_W	⇒	J29
J35_W	⇒	NJ29	J35_W	⇒	NJ29
J35_W	⇒	NT29	J35_W	⇒	NT29
J29	⇔	NJ29	J29	⇔	NJ29
J29	⇔	NT29	J29	⇔	NT29
NJ29	⇔	NT29	NJ29	⇔	NT29

주: 인과 방향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작성.

<표 III-10> 34세 이하 유휴청년층 장·단기 인과관계 결과표

장기 인과관계			단기 인과관계		
GDP	⇔	J35_W	GDP	⇔	J35_W
GDP	⇒	J34	GDP	⇒	J34
GDP	⇔	NJ34	GDP	⇒	NJ34
GDP	⇒	NT34	GDP	⇒	NT34
J35_W	⇒	J34	J35_W	⇒	J34
J35_W	⇔	NJ34	J35_W	⇒	NJ34
J35_W	⇒	NT34	J35_W	⇒	NT34
J34	⇔	NJ34	J34	⇔	NJ34
J34	⇔	NT34	J34	⇔	NT34
NJ34	⇔	NT34	NJ34	⇔	NT34

주: 인과 방향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작성.

6. 충격반응함수 분석(Impulse Response Function)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인과분석으로부터 장·단기의 인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영향의 방향과 지속기간은 알아낼 수 없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수단이 충격반응함수 분석이다. 충격반응이란 각 변수들의 예측 오차에 대해 1단위의 충격¹¹⁾이 가해졌을 때 종속변수가 변하는 동태적 반응을 말한다. 즉, 어느 한 설명변수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모형 내에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림 III-6]에 제시된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 설명변수들에 1%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유휴청년 수 증감률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다.¹²⁾ 이를 살펴보면, 유휴청년층을 연령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하더라도 변수들의 충격반응은 일부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반면, 남녀간에는 충격반응이 상이한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그림 III-6]에 제시된 충격반응함수 그래프에 따라, 개별 변수별로 유휴청년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가 1% 증가하였을 때 유휴청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휴청년층을 연령구간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무관하게 대체로 3~6분기까지의 점진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음의 수요충격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설명변수의 충격에 따른 유휴청년 변수의 반응 크기를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보면, 수요충격이 유휴청년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지속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3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가 1%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유휴청년에는 음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다만, 유휴청년을 15~34세로 정의한 경우에는(NT34) 여성에 있어서 충격발생 후 최초 2분기까지는 양의 영향이 나타나다가 3분기 이후부터는 음의 영향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30~34세 여성집단의 경우 35세 이상 여성의 취업증가 충격을 구직기회의 증가로 인식하여 육아, 가사 등의 활동으로부터 취업준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휴청년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유휴청년의 취업이 증대하면서 충격발생 후 3분기 이후에는 음으로 전환된다고 해석된다.

셋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충격은 충격발생 후 3분기까지는 유휴청년을

11) 1단위의 충격에는 1표준편차, 혹은 해당변수의 1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명변수의 1% 충격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을 보기 위해 1단위를 사용하였다.

12) 이 그림은 <부록>의 [부록그림 III-1]~[부록그림 III-6]으로부터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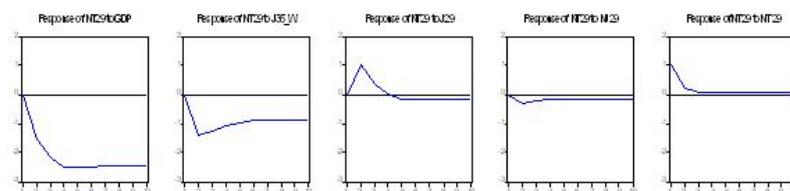
증가시키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연령구간별로 정의한 2개의 유휴청년층 변수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이 전체 반응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 반면, 여성은 2분기까지 유휴청년층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음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유휴청년이 증가하나 이러한 효과는 4분기 이후 대부분 소멸되었다.

넷째, 청년실업자의 증가는 유휴청년을 감소시키며, 그 영향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청년실업과 유휴청년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청년실업과 유휴청년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앞서 청년취업의 증가가 유휴청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보면, 유휴청년과 청년실업 간의 상태이동이 보다 지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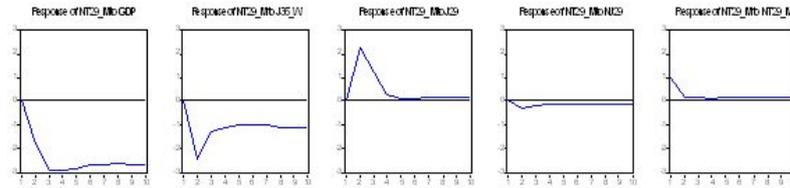
다섯째, 유휴청년의 증가충격은 충격발생 후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 경제 내에 유휴청년층이 한번 형성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속됨을 의미한다.

[그림 III-6]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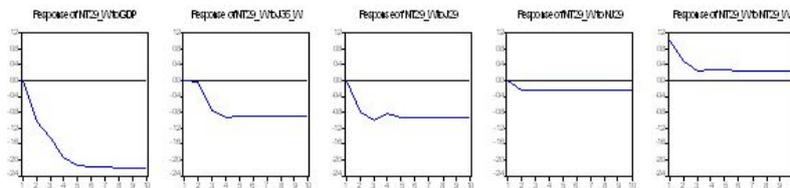
① 모델 1: 유휴청년층 전체(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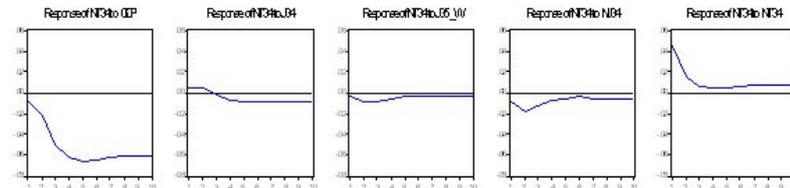
② 모델 2: 유희청년층 남자(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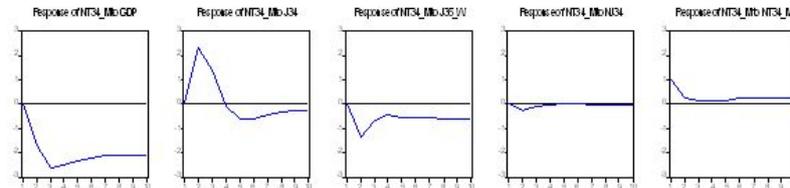
③ 모델 3: 유희청년층 여자(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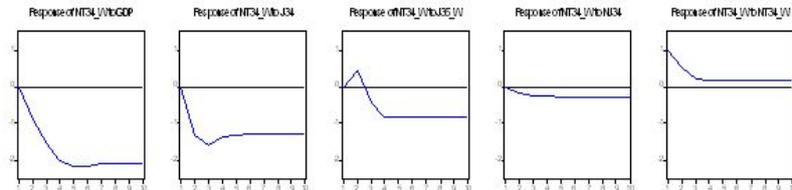
④ 모델 4: 유희청년층 전체(15~34세)



⑤ 모델 5: 유희청년층 남자(15~34세)



⑥ 모델 6: 유휴청년층 여자(15~34세)



7.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분산분해 분석이란 종속변수의 예측오차 중 설명변수의 예측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해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석을 말한다. 즉, 종속변수의 예측오차를 100이라고 했을 때 각 설명변수가 차지하는 예측오차의 크기를 파악함으로써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 오차요인이 대부분 종속변수 자체에서 기인한다면 이 변수를 외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III-7]에 제시된 분산분해 결과를 보면,¹³⁾ 추정된 6개 모델에서 유휴청년 수 증감률의 예측오차는 종속변수 그 자체와 GDP증감률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청년실업자 수 증감률은 대략 10~20% 가량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충격반응함수에서 GDP증감률이 유휴청년 수 증감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분산분해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휴청년층을 연령구간에 따라 추정한 두 모형 간에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분산분해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유휴청년의 연령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15~29세의 경우에는 유휴청년의 예측오차 중 GDP증감률의 예측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40% 수준에 그친 반면 종속변수 자체에 기인하는 부분의 비중

13) <부표 III-1>~<부표 III-6>의 분산분해결과표를 토대로 <부록>의 [부록그림 III-7]~[부록그림 III-12]가 작성되었으며, [그림 III-7]은 이 중 종속변수가 유휴청년인 것만을 추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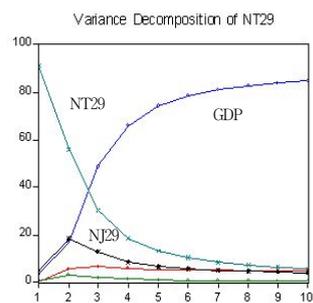
이 더 높아 강한 외생성을 보여줬다. 반면, 15~34세로 유휴청년층을 정의한 경우에는 7분기 정도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GDP증감률의 예측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신규취업자에 대한 연령제한으로 말미암아 30세 이상 남성 유휴청년층은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기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유휴청년층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력을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15~29세 연령구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지만, 15~34세 구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경우 30대로 접어들면 신규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20대에 취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여성에 비해 신규취업 연령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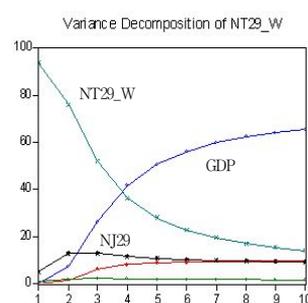
셋째, 유휴청년층에 대한 청년실업의 영향력이 10~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격반응함수에서 유휴청년층과 청년실업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유휴청년에 대한 청년실업의 음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로 비교해 보면, 유휴청년층에 대한 청년실업의 영향력이 남성에서 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 높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림 III-7] 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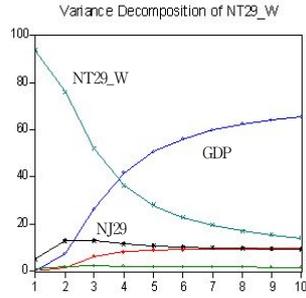
① 모델 1: 유휴청년층 전체(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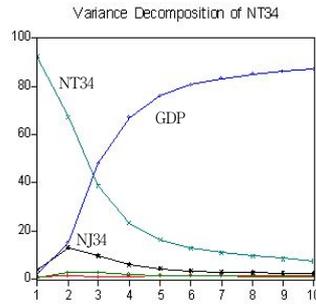
② 모델 2: 유휴청년층 남자(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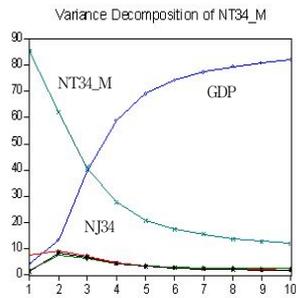
③ 모델 3: 유휴청년층 여자(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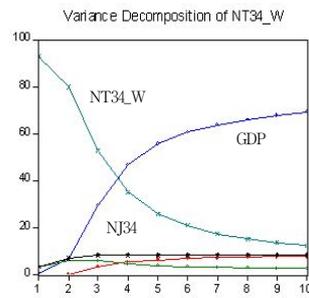
④ 모델 4: 유휴청년층 전체(15~34세)



⑤ 모델 5: 유휴청년층 남자(15~34세)



⑥ 모델 6: 유휴청년층 여자(15~34세)



제4절 주요 결론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측에서 충격(shock)이 발생하였을 때 유휴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시차구조를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 EC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성장이 유휴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수요 변동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변수로 경제성장률을 포함하였으며, 노동공급 측의 충격으로는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증감률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의 유동성을 분석에 고려하기 위해 유휴청년층 증감률,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 청년층 실업자 수 증감률 등을 각각 포함하였다. 한편, 유휴청년층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5~29세 연령구간과 15~34세 연령구간으로 나누어 별도로 분석하였고, 해당 연령구간의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 유휴청년층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휴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GDP증감률이며 그 효과도 지속적이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유휴청년층 규모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3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경우 유휴청년은 감소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다만, 유휴청년을 15~34세로 정의한 경우에는 여성에 있어서 충격발생 후 최초 2분기까지는 양의 영향이 나타나다가 3분기 이후부터는 음의 영향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30~34세 여성집단의 경우 35세 이상 여성의 취업증가 충격을 구직기회의 증가로 인식하여 육아, 가사 등의 활동으로부터 취업준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휴청년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유휴청년의 취업이 증대하면서 충격발생 후 3분기 이후에는 음으로 전환된다고 해석된다.

셋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충격은 충격발생 후 3분기까지는 유휴청년을 증가시키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이 전체반응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 반면, 여성은 2분기까지 유휴청년층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음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휴청년이 증가하나 이러한 효과는 4분기 이후 대부분 소멸되었다.

넷째, 청년실업자의 증가는 유휴청년을 감소시키며, 그 영향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청년실업과 유휴청년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청년실업과 유휴청년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앞서 청년취업의 증가가 유휴청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보면, 유휴청년과 청년실업 간의 상태이동이 보다 지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유휴청년의 증가충격은 충격발생 후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 경제 내에 유휴청년층이 한번 형성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지속적으로 존속됨을 의미한다.

여섯째, 유휴청년층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력을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15~29세 연령구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지만, 15~34세 구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경우 30대로 접어들면 신규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20대에 취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여성에 비해 신규취업 연령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유휴청년층에 대한 청년실업의 영향력이 10~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충격반응함수에서 유휴청년층과 청년실업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유휴청년층에 대한 청년실업의 음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로 비교해 보면, 유휴청년층에 대한 청년실업의 영향력이 남성에서 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 높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휴청년층은 무엇보다 경기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유휴청년층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다. 특히, 유휴청년층의 규모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들이 근로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계층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긴박하여 취업기회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청년층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상황에 실망한 유휴청년까지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휴청년층은 일단 형성이 되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을 통해 청년기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양호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로, 유휴청년층 중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상이하고, 20대와 30대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된다. 유휴청년층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20대보다는 30대가 좀 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시정책이 유효할 수 있지만, 특히 남성 20대 유휴청년의 경우 일자리 기회가 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미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초·중등 학교에서의 조기진로교육, 경제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관과 직업흥미, 직업적성 등을 조기에 키워주고, 대학에서는 취업역량을 키워주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진로상담 및 컨설팅,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구직알선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촉진하는 선제적 대응이 요청된다. 아울러, 이미 유휴청년화된 계층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노동시장에 대한 복귀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유휴청년과 청년실업은 역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 청년층 노동시장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패널자료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유휴청년층과 청년실업자 간의 상태이동이 보다 빈번할 가능성이 있고 청년실업이 감소하더라도 유휴청년이 증가할 경우 정책효과는 크게 낮아질 것이므로 유휴청년층을 포함한 정책대응이 요청된다. 유휴청년층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없음은 물론,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의욕도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인적자원을 활발하게 개발해야 할 청년기에 학교, 훈련,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자칫하면 평생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년실업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청년의 실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휴청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유휴청년층의 특성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유휴청년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KLIPS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2장에서 정의한 유휴청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시한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유휴청년의 특성을 인적 속성,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생활, 사회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취업자나 실업자와 비교한다. 6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유휴청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마지막 7절에서는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다.

제1절 자료 및 유휴청년(NEET)의 정의

1. 자료

선행 연구에서 유휴청년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청년패널(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청년패널을 분석한 Oh(2007)의 경우 인적 속성을 보여주는

성, 연령, 학력, 결혼여부 등과 가구소득만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남재량(2006)은 이런 변수 외에 아버지의 학력과 직종, 고용형태, 본인의 출생지, 성장지, 현거주지 등의 변수만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유휴청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들은 성장환경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휴청년의 결정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이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1차 조사 시점인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조사자료로서 학교생활과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조사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아 유휴청년을 분석하려면 좀 더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표 IV-1> 한국노동패널의 주요 분석 변수

분야	변수
인적 속성	성, 나이, 학력, 결혼여부, 현 거주지
가정 환경	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 가구 경제상태, 가구원 수, 가구주와 관계
성장 배경	아버지 학력, 성장지(출생지), 14세 가정형편, 14세 부(모) 직업과 고용형태
초·중등 단계 경험	사교육 경험, 혼자 공부시간, 중2 성적, 14세 문화활동, 14세 부모와 대화, 지각 경험 등 학교 생활
교육훈련	교육훈련 경험과 희망, 기타 교육훈련 경험과 희망
사회적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지위상승에 대한 인식, 생활만족도, 좋은 일자리(인식, 임금),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2006년) 자료를 사용한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사교육 경험을 비롯하여 중학교 2학년 무렵의 문화활동, 부모님과 대화, 학창시절의 경험 등 다

양한 측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유휴청년의 기본적인 인적 속성과 현재 가구의 특성 이외에 성장배경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표 IV-1>은 주요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2. 유휴청년(NEET)의 정의

유휴청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유휴청년을 정의해야 한다. 앞서 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표 IV-2>와 같이 유휴청년을 정의하였다.

<표 IV-2> 유휴청년의 정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NEET의 세 가지 정의

<정의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

<정의 2> 정의 1+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 '가사'인 사람

<정의 3> 정의 2+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기타'인 사람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에서 '지난 1주간 활동'에 대한 설문은 약간 다르다. 따라서 2장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IV-3>에서는 두 조사의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의 1>에서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 해당 설문항목이 없기 때문이다.¹⁴⁾ 가장 유사한 항목이 '기타'이므로, 이 장에서는 유휴청년의 [정의 1]을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기타'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경제활

14)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3차(2000년)와 4차(2001년) 조사에서는 '당분간 쉬고 있음'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후 해당 항목은 사라졌다.

동인구조사 문항과 비교하면 [정의 1]에는 ‘쉬었음’ 외에도 ‘발령대기’, ‘결혼 준비’, ‘기타’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 ‘지난 1주간 활동’ 조사 문항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2003년 이후)	한국노동패널 9차(2006년)
1. 일하였음	1. 일하였음
2. 일시 휴직	2. 일시 휴직
3. 구직활동	3. 구직활동
5. 육아	4. 가사 혹은 육아
6. 가사	
7. 정규교육기관 통학	5. 정규교육기관 통학
8. 입학학원 통학	6. 입학학원 통학
9.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7.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2. 연로	9. 연로
13. 심신장애	10. 심신장애
10. 취업준비	11. 취업준비
11. 진학준비	12. 진학준비
14. 군입대 대기	13. 군입대 대기
4. 발령대기	16. 기타
15. 결혼준비	
16. 쉬었음	
17. 기타	
	14. 지난 1주일은 일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 주에 일자리를 구했음
	15. 지난 1주일은 일했으나 조사 진행 주에 그 일을 그만둠
	8. 퇴직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사’에 대응하는 항목으로 한국노동패널에는 ‘가사 혹은 육아’가 있다. 따라서 유휴청년의 [정의 2]를 본 장에서는 [정의 1]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이며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가사 혹은 육아’라

고 응답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셋째, [정의 3]은 [정의 2]에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등의 항목을 응답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정의 3>에서 추가된 항목들 중 일부는 이미 [정의 1]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장의 <정의 3>과 한국노동패널을 기준으로 한 [정의 3]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의와 2장의 정의를 비교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유휴청년의 정의 비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간 주요 활동’이		
	정의 1	정의 2	정의 3
경제활동인구조사	쉬었음	미혼 & ‘가사’	발령대기, 결혼준비,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한국노동패널	기타 (발령대기, 결혼준비, 기타)	미혼 & ‘가사 혹은 육아’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이상의 정의를 적용하여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자료에서 유휴청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좁은 의미로 정의한 [정의 1]에 따르면 유휴청년의 규모는 청년층의 2.6%를 차지하며, 실업자와 비교하면 실업자 규모의 60% 수준이다. [정의 3]으로 넓게 정의하면 그 비중은 7.6%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실업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표 IV-5> 유휴청년의 규모(15~29세 대상)

(단위: 명(%))

	[정의 1]	[정의 2]	[정의 3]	실업자	취업자	전체 ¹⁾
규모	72	100	213	115	1,023	2,819
(비중)	(2.6)	(3.5)	(7.6)	(4.1)	(36.3)	(100.0)

주: '전체'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자료에서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 전체를 의미함. 4장에서 이하에 나오는 표에서 '전체'는 같은 뜻임.

제2절 유휴청년의 인적 속성과 가족 배경

<표 IV-6>에서는 유휴청년의 인적 속성을 실업자, 취업자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실업자와 NEET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군복무 때문에 남자가 노동시장 진출이 늦은 탓이다. 한편 유휴청년의 [정의 1]과 [정의 2]의 성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정의 2]에서 새로이 포함된 미혼의 '가사 혹은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취업자와 실업자는 20대 후반의 비중이 높은 반면, NEET는 20대 초반의 비중이 높다. 20대 후반의 비중을 보면, 취업자는 70.2%이고, 실업자는 그보다 낮은 53%인데, NEET는 37~43% 정도로 두 집단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평균 연령은 NEET가 23.8~24.1세로 가장 낮다. 이러한 연령 분포를 반영한 탓인지 혼인상태를 보면, 취업자는 미혼의 비중이 79.8%인 데 반해, 실업자는 90.4%로 높고 NEET는 거의 대부분인 99%가 미혼임을 알 수 있다.

<표 IV-6> 유휴청년의 인적 속성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성	남자	49 (68.1)	50 (50.0)	119 (55.9)	67 (58.3)	460 (45.0)	1,352
	여자	23 (31.9)	50 (50.0)	94 (44.1)	48 (41.7)	563 (55.0)	1,467
연령	15~19	5 (6.9)	6 (6.0)	20 (9.4)	8 (7.0)	27 (2.6)	900
	20~24	40 (55.6)	51 (51.0)	103 (48.4)	46 (40.0)	278 (27.2)	746
	25~29	27 (37.5)	43 (43.0)	90 (42.3)	61 (53.0)	718 (70.2)	1,173
	평균	23.8	24.1	23.8	24.5	25.7	
혼인 상태	미혼	71 (98.6)	99 (99.0)	211 (99.1)	104 (90.4)	816 (79.8)	2,432
	유배우, 사별, 이혼	1 (1.4)	1 (1.0)	2 (0.9)	11 (9.6)	207 (20.2)	38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9.7)	8 (8.0)	10 (4.7)	7 (6.1)	30 (2.9)	757
	고졸	45 (62.5)	62 (62.0)	125 (58.7)	59 (51.3)	422 (41.3)	1,227
	전문대졸	6 (8.3)	11 (11.0)	22 (10.3)	27 (23.5)	288 (28.2)	405
	대졸 이상	14 (19.4)	19 (19.0)	56 (26.3)	22 (19.1)	283 (27.7)	430
거주지	수도권	46 (63.9)	59 (59.0)	110 (51.6)	47 (40.9)	499 (48.8)	1,401
	비수도권	26 (36.1)	41 (41.0)	103 (48.4)	68 (59.1)	524 (51.2)	1,418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실업자는 고졸과 전문대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NEET는 고졸의 비중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데, [정의 3]에서는 대졸 이상의 비

중도 취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거주지는 크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실업자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반면, NEET는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표 IV-7>에서 현재의 가구 상태를 보면,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NEET는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미혼 자녀의 비중이 높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업자도 미혼자녀의 비중이 높지만 가구주의 비중도 8.7%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자는 이들에 비해서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한편, NEET나 실업자는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같이 살기 때문에 평균 가구원 수가 취업자에 비해 약간 높다.

2005년의 1인당 연간 총가구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가장 높고, 실업자와 NEET 집단이 낮다. 그런데 [정의 1]의 NEET 집단은 실업자와 비슷한 반면, [정의 3]의 NEET는 실업자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취업자는 보통이 51.6%를 차지하였으나, NEET와 실업자는 60%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인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NEET [정의 1]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33.3%로 실업자(28.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8>에서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취업자의 아버지 학력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 NEET 집단의 아버지는 전반적으로 고졸의 비중이 높고, 대졸 이상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14세 때 가구주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NEET의 경우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가구주의 직업은 관리직/전문가의 비중이 높고,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4세 무렵의 전반적인 가정형편¹⁵⁾에 대해서는 취업자가 평균 또는 평균보다 높다는 응답 비중이 높고, 실업자와 NEET는 평균 또는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NEET는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는 응답 비중이 취업자

15) 이 문항은 8차조사(2005년)에서 질문한 항목이다.

나 실업자에 비해 높아,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7> 현재의 가구 상태

(단위: 명(%), 만원)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 (5.6)	4 (4.0)	9 (4.2)	10 (8.7)	200 (19.6)	239
	배우자	0 (0.0)	0 (0.0)	0 (0.0)	3 (2.6)	101 (9.9)	248
	미혼자녀	64 (88.9)	92 (92.0)	196 (92.0)	95 (82.6)	681 (66.6)	2,214
	기혼자녀	1 (1.4)	1 (1.0)	1 (0.5)	1 (0.9)	4 (0.4)	6
	기타	3 (4.2)	3 (3.0)	7 (3.3)	6 (5.2)	37 (3.6)	112
평균 가구원수		3.8	3.8	3.9	3.8	3.5	
연간 총가구소득	전체	3,073	3,763	3,656	3,076	3,889	
	1인당	860	1,051	972	848	1,190	
월평균 생활비	전체	181	191	212	184	198	
	1인당	49.4	51.6	55.5	50.2	58.5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	매우여유	0 (0.0)	1 (1.0)	1 (0.5)	1 (0.9)	5 (0.5)	10
	여유	2 (2.8)	3 (3.0)	10 (4.7)	3 (2.6)	58 (5.7)	130
	보통	22 (30.6)	37 (37.0)	79 (37.1)	36 (31.6)	528 (51.6)	1,207
	어려움	24 (33.3)	31 (31.0)	69 (32.4)	42 (36.8)	328 (32.1)	963
	매우어려움	24 (33.3)	28 (28.0)	54 (25.4)	32 (28.1)	104 (10.2)	506

<표 IV-8> 성장기(14세 무렵)의 가정환경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24 (34.3)	40 (40.8)	71 (33.8)	55 (49.6)	470 (47.3)	985
	고졸	35 (50.0)	43 (43.9)	97 (46.2)	42 (37.8)	401 (40.4)	1,246
	전문대졸	2 (2.9)	2 (2.0)	6 (2.9)	3 (2.7)	20 (2.0)	113
	대졸 이상	9 (12.9)	13 (13.3)	36 (17.1)	11 (9.9)	102 (10.3)	411
14세 때 가구주 직업	관리직, 전문가	16 (28.6)	20 (25.6)	38 (23.0)	19 (20.9)	130 (16.1)	440
	사무직	1 (1.8)	3 (3.9)	12 (7.3)	3 (3.3)	72 (8.9)	229
	판매서비스	12 (21.4)	19 (24.4)	42 (25.5)	26 (28.6)	184 (22.7)	502
	생산직	26 (46.4)	35 (44.9)	71 (43.0)	43 (47.3)	415 (51.3)	1,144
	단순노무직	1 (1.8)	1 (1.3)	2 (1.2)	0 (0.0)	8 (1.0)	14
14세 때 가구주 고용형태	정규직	30 (44.1)	40 (41.7)	94 (46.1)	44 (39.3)	405 (41.8)	1,205
	비정규직	10 (14.7)	14 (14.6)	22 (10.8)	14 (12.5)	108 (11.1)	290
	고용주	13 (19.1)	20 (20.8)	35 (17.2)	16 (14.3)	123 (12.7)	381
	자영업자	13 (19.1)	20 (20.8)	44 (21.6)	33 (29.5)	317 (32.7)	757
	무급가족 종사자	1 (1.5)	1 (1.0)	5 (2.5)	3 (2.7)	9 (0.9)	33
	가정주부 /무직	1 (1.5)	1 (1.0)	4 (2.0)	2 (1.8)	8 (0.8)	53

<표 계속>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14세 때 가정형편	평균 크게 상회	0 (0.0)	0 (0.0)	1 (0.6)	2 (2.2)	9 (1.1)	26
	평균 상회	3 (5.7)	7 (8.9)	18 (10.6)	6 (6.5)	108 (12.6)	221
	평균수준	22 (41.5)	34 (43.0)	85 (50.0)	43 (46.7)	452 (52.6)	1,124
	평균 하회	19 (35.9)	25 (31.7)	44 (25.9)	33 (35.9)	220 (25.6)	501
	평균 크게 하회	9 (17.0)	13 (16.5)	22 (12.9)	8 (8.7)	71 (8.3)	138

마지막으로 유휴청년의 출생지와 성장지 분포를 <표 IV-9>에서 살펴보자. 출생지 분포를 살펴보면 NEET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실업자와 취업자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성장지는 출생지에 비해 청년층 전체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NEET의 경우 수도권에서 성장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표 IV-9> 유휴청년의 출생지와 성장지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출생지	수도권	36 (50.7)	47 (47.5)	97 (45.8)	32 (27.8)	370 (36.3)	1,180
	비수도권	35 (49.3)	52 (52.5)	115 (54.3)	83 (72.2)	648 (63.5)	1,629
	기타	0 (0.0)	0 (0.0)	0 (0.0)	0 (0.0)	2 (0.2)	2
성장지 (14세)	수도권	43 (59.7)	57 (57.0)	107 (50.2)	43 (37.4)	424 (41.5)	1,287
	비수도권	29 (40.3)	43 (43.0)	106 (49.8)	72 (62.6)	598 (58.5)	1,529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NEET는 20대 초반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졸(또는 대졸)의 미혼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NEET는 수도권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평균보다 낮은 가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가구의 경제상태가 어려운 편이다. 또한 NEET는 주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미혼자녀로서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다.

제3절 학교 교육과 유휴청년

1. 학교 교육

학생 시절 사교육 경험을 <표 IV-10>에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NEET는 특히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경험자의 비중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집단간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50% 내외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낮아지는데 실업자는 34.8%로 48% 안팎의 취업자, NEET보다 낮은 경험을 보이고 있다.

<표 IV-10> 사교육 경험과 혼자 학습한 시간

(단위: 명(%), 시간)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사교육경험: 초등4년	없음	24 (34.8)	37 (38.5)	69 (33.3)	54 (47.4)	477 (47.7)	1,016
	있음	45 (65.2)	59 (61.5)	138 (66.7)	60 (52.6)	524 (52.4)	1,753
사교육경험: 중2	없음	34 (49.3)	49 (51.0)	89 (43.0)	55 (48.7)	500 (50.2)	1,110
	있음	35 (50.7)	47 (49.0)	118 (57.0)	58 (51.3)	496 (49.8)	1,648
사교육경험: 고2	없음	36 (52.9)	53 (55.8)	103 (50.2)	73 (65.2)	509 (51.8)	1,230
	있음	32 (47.1)	42 (44.2)	102 (49.8)	39 (34.8)	474 (48.2)	1,331
혼자 학습시간	중2	1.3	1.4	1.4	1.3	1.5	
	고2	1.7	1.7	2.1	1.9	2.1	

한편 혼자서 공부한 시간은 하루 평균 중학생은 1.3~1.5시간, 고등학생은 1.7~2.1시간으로 나타났는데, NEET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가 조금이나마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차지하는 성적 분포를 보면, 취업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NEET이며, 실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위 40%의 비중만 보더라도 취업자는 45.2%, NEET는 37.9~46.6%를 차지하는 데 반해 실업자는 36.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의 전반적인 학점 수준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IV-11> 중학교와 대학에서의 성적 분포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중2 때 학교성적: 전체	상위 20%	13 (19.1)	17 (17.9)	46 (22.3)	16 (14.2)	183 (18.4)	568
	중상위 20%	15 (22.1)	19 (20.0)	50 (24.3)	25 (22.1)	266 (26.8)	776
	중간 20%	26 (38.2)	44 (46.3)	86 (41.8)	53 (46.9)	443 (44.6)	1,110
	중하위 20%	11 (16.2)	12 (12.6)	19 (9.2)	14 (12.4)	93 (9.4)	243
	하위 20%	3 (4.4)	3 (3.2)	5 (2.4)	5 (4.4)	9 (0.9)	55
대학/전문 대학에서 학점	상위 20%	5 (11.1)	8 (13.8)	32 (23.4)	9 (12.9)	174 (24.6)	356
	중상위 20%	15 (33.3)	17 (29.3)	45 (32.9)	22 (31.4)	260 (36.8)	589
	중간 20%	20 (44.4)	28 (48.3)	52 (38.0)	34 (48.6)	249 (35.2)	531
	중하위 20%	5 (11.1)	5 (8.6)	7 (5.1)	5 (7.1)	23 (3.3)	47
	하위 20%	0 (0.0)	0 (0.0)	1 (0.7)	0 (0.0)	1 (0.1)	7

2. 학교 생활

여기에서는 유휴청년의 학창시절 지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성실한 생활 태도가 유휴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표 IV-12>에서 중학교 시절 지각 경험을 보면, 80% 정도는 지각 경험이 없는데, NEET는 한두 번의 응답이 약간 많고, 실업자는 서너 번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절의 지각 경험은 집단 간 편차가 중학교에 비해 확대되는데,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NEET는 한두 번의 응답이, 실업자는 서너 번의 응답

비중이 높아졌다. 취업자는 지각 경험이 없는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2> 중고등학교에서 지각 경험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중학교 시절 지각 경험	한두 번	11 (15.9)	16 (16.7)	34 (16.7)	16 (14.4)	141 (14.3)	354
	서너 번	2 (2.9)	3 (3.1)	6 (2.9)	7 (6.3)	45 (4.6)	115
	다섯 번 이상	2 (2.9)	2 (2.1)	3 (1.5)	3 (2.7)	17 (1.7)	46
	없음	54 (78.3)	75 (78.1)	161 (78.9)	85 (76.6)	786 (79.5)	2,223
고등학교 시절 지각 경험	한두 번	16 (23.5)	20 (21.1)	39 (19.1)	15 (13.6)	145 (14.8)	354
	서너 번	2 (2.9)	2 (2.1)	5 (2.5)	10 (9.1)	39 (4.0)	101
	다섯 번 이상	4 (5.9)	4 (4.2)	8 (3.9)	4 (3.6)	27 (2.8)	67
	없음	46 (67.7)	69 (72.6)	152 (74.5)	81 (73.6)	767 (78.4)	2,025

3. 훈련과 기타 훈련 경험

청년층이 지난 1년 간 훈련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표 IV-13>) 취업자는 14.7%인 반면, 실업자는 7.0%, NEET는 1.4~3.8%이다. NEET는 이름 그대로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으로 1년 이내에 교육·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취업자와 실업자는 1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실업자는 훈련 경험은 취업자에 비해 적지만 훈련을 받으려는 의지는 취업자에 못지않음을 알 수 있다. NEET의 경우에도

희망자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훈련 의지가 실업자에 비해 뒤떨어짐을 보여준다.

<표 IV-13> 교육 훈련 및 기타 교육 훈련의 경험과 희망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훈련 경험	없음	71 (98.6)	98 (98.0)	205 (96.2)	107 (93.0)	873 (85.3)	2,621
	있음	1 (1.4)	2 (2.0)	8 (3.8)	8 (7.0)	150 (14.7)	198
훈련 희망	없음	67 (93.1)	91 (91.0)	195 (91.6)	97 (84.4)	869 (85.0)	2,569
	있음	5 (6.9)	9 (9.0)	18 (8.5)	18 (15.7)	154 (15.1)	250
기타 훈련 경험	없음	67 (93.1)	95 (95.0)	193 (90.6)	110 (95.7)	940 (91.9)	2,610
	있음	5 (6.9)	5 (5.0)	20 (9.4)	5 (4.4)	83 (8.1)	209
기타 훈련 희망	없음	60 (83.3)	84 (84.0)	182 (85.5)	88 (76.5)	821 (80.3)	2,404
	있음	12 (16.7)	16 (16.0)	31 (14.6)	27 (23.5)	202 (19.8)	415

주: 1) 훈련: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기타 훈련: 교양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받은 직장연수나 학원수강, 교양강좌 및 TV, 라디오 청취, 인터넷 통신강좌 등의 교육

교양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받은 직장연수나 학원수강, 교양강좌 및 TV, 라디오 청취, 인터넷 통신강좌 등의 교육(이하 기타 훈련)에 대해서는 NEET가 실업자보다 받은 경험이 높고 취업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NEET의 기타 훈련에 대한 희망도 16% 정도로 훈련에 대한 희망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NEET는 초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았고, 중학교 시절 성적은 취업자 집단보다는 낮지만 실업자보다는 높았

다. 훈련은 경험도 적고 받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크지 않지만, 교양 차원 등의 기타 훈련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에 비해 받으려는 의지가 높다.

제4절 유휴청년의 사회 인식

이 절에서는 유휴청년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좋은 일자리의 조건, 생활만족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표 IV-14>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중층(중상, 중하)의 비중이 67.7%로 가장 높고, NEET는 50.7~58.9%, 실업자는 51.8%로 나타났다.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NEET와 실업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취업자보다 낮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취업자가 64.1%로 가장 높고, NEET가 55.6~61.5%, 실업자가 5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이와 반대의 순서를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NEET에서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의 비중이 실업자나 취업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견해는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은 일자리의 안정성(35.0%), 적성(33.3%), 장래성(19.2%)을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꼽고 있다. 세 집단 모두 이런 조건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취업자는 장래성을 다른 집단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높은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도 평균보다 높다. 실업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목할 만한 것은 NEET인데, NEET는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

리로 생각하는 비중이 취업자나 실업자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한편 좋은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월평균 2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¹⁶⁾ 실업자는 20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NEET는 두 집단의 중간 수준으로 212~21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NEET가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추구하면서도 의중 임금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4>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위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0 (0.0)	0 (0.0)	0 (0.0)	0 (0.0)	5 (0.5)	11
	상하	0 (0.0)	0 (0.0)	5 (2.4)	1 (0.9)	18 (1.8)	47
	중상	11 (15.5)	18 (18.2)	31 (15.0)	12 (10.5)	184 (18.3)	589
	중하	25 (35.2)	35 (35.4)	91 (44.0)	47 (41.2)	498 (49.5)	1,280
	하상	20 (28.2)	29 (29.3)	50 (24.2)	35 (30.7)	216 (21.5)	576
	하하	15 (21.1)	17 (17.2)	30 (14.5)	19 (16.7)	86 (8.5)	253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가능성	매우 그러함	3 (4.2)	4 (4.0)	7 (3.3)	6 (5.2)	79 (7.7)	211
	대체로 그러함	37 (51.4)	54 (54.0)	124 (58.2)	53 (46.1)	577 (56.4)	1,676
	별로 그렇지 않음	24 (33.3)	31 (31.0)	63 (29.6)	41 (35.7)	305 (29.8)	729
	전혀 그렇지 않음	3 (4.2)	5 (5.0)	8 (3.8)	10 (8.7)	36 (3.5)	86
	잘 모름	5 (6.9)	6 (6.0)	11 (5.2)	5 (4.4)	26 (2.5)	117

16) 좋은 일자리의 조건에서 '높은 임금'을 응답한 비중은 취업자가 7.5%로 가장 높았다.

<표 IV-15> 좋은 일자리의 조건과 임금 수준

(단위: 명(%), 만원)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조건 (1순위)	안정성	27 (38.0)	38 (38.8)	90 (43.7)	44 (38.6)	376 (37.3)	963 (35.0)
	사회적인 인정	4 (5.6)	4 (4.1)	7 (3.4)	10 (8.8)	54 (5.4)	149 (5.4)
	장래의 발전가능성	10 (14.1)	12 (12.2)	26 (12.6)	20 (17.5)	215 (21.4)	528 (19.2)
	적성, 취향	27 (38.0)	38 (38.8)	70 (34.0)	31 (27.2)	271 (26.9)	917 (33.3)
	높은 임금 또는 수입	2 (2.8)	4 (4.1)	10 (4.9)	6 (5.3)	75 (7.5)	156 (5.7)
	자율성 보장	1 (1.4)	2 (2.0)	3 (1.5)	3 (2.6)	16 (1.6)	41 (1.5)
월평균 임금수준		217	213	212	201	229	

<표 IV-16>에서는 유휴청년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세부 항목으로 가족의 수입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만족(매우 만족, 만족) 비중이 40.3%로 가장 높고 실업자가 19.3%로 가장 낮으며 NEET는 실업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세부 항목으로 가족의 수입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비해 만족 수준이 낮는데 가족의 수입이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비슷한 패턴, 즉 취업자 > NEET > 실업자의 순서를 보이는데 반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자 > 실업자 > NEET의 순서로 NEET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표 IV-16> 유휴청년의 생활만족도

(단위: 명(%))

		NEET			실업자	취업자	전체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전반적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	1 (1.4)	1 (1.0)	4 (1.9)	3 (2.6)	9 (0.9)	36
	만족	14 (19.7)	22 (22.5)	60 (29.1)	19 (16.7)	397 (39.4)	996
	보통	46 (64.8)	64 (65.3)	123 (59.7)	76 (66.7)	548 (54.4)	1,573
	불만족	9 (12.7)	10 (10.2)	18 (8.7)	16 (14.0)	51 (5.1)	146
	매우 불만족	1 (1.4)	1 (1.0)	1 (0.5)	0 (0.0)	3 (0.3)	9
생활만족도 -가족의 수입	매우 만족	0 (0.0)	0 (0.0)	2 (1.0)	1 (0.9)	4 (0.4)	15
	만족	5 (7.0)	8 (8.2)	18 (8.7)	7 (6.1)	157 (15.6)	428
	보통	37 (52.1)	52 (53.1)	117 (56.8)	54 (47.4)	603 (59.9)	1,611
	불만족	24 (33.8)	32 (32.7)	62 (30.1)	45 (39.5)	204 (20.3)	610
	매우 불만족	5 (7.0)	6 (6.1)	7 (3.4)	7 (6.1)	38 (3.8)	92
생활만족도 -여가생활	매우 만족	0 (0.0)	0 (0.0)	2 (1.0)	1 (0.9)	2 (0.2)	13
	만족	9 (12.7)	15 (15.3)	36 (17.5)	24 (21.1)	270 (26.8)	727
	보통	36 (50.7)	52 (53.1)	106 (51.5)	56 (49.1)	527 (52.4)	1,433
	불만족	24 (33.8)	28 (28.6)	59 (28.6)	31 (27.2)	198 (19.7)	545
	매우 불만족	2 (2.8)	3 (3.1)	3 (1.5)	2 (1.8)	9 (0.9)	38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NEET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은데, 특히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또한 NEET는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추구하면서도 의증임금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제5절 유휴청년 결정요인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NEET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이 다른 조건을 통제된 뒤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NEET에 대한 [정의 3]을 기준으로 NEET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구성하여 회귀분석한다. 모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모형 1]은 기본 모형으로서 인적 속성과 가구 특성이 청년층의 NEET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적 속성 변수로서 성과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구특성 변수로서 1인당 가구소득(로그값)과 현재 거주지 등을 포함한다.

[모형 2]는 성장배경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 1]에 성장환경을 보여주는 변수인 아버지 학력, 14세 무렵의 가구주 직업과 고용형태, 14세 무렵의 가정형편, 그리고 성장지역 변수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모형 3]은 중등학교 시절의 교육과 문화생활, 부모와의 대화 등 학창시절의 경험과 지난 1년간 교육 경험 등이 NEET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모형 1]에 중등교육 단계에서 사교육 경험, 혼자 학습한 시간, 중2 때 성적, 지각 경험, 박물관이나 영화 관람, 부모와의 대화와 여가 활동 등의 변수와 지난 1년간 경험한 훈련이나 기타 훈련, 향후 1년간 희망하는 훈련과 기타 훈련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청년층의 인식이 NEET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향후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현재의 생활만족도, 좋은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대한 생각 등의 변수를 [모형 1]에 추가하여 분석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각 모형의 변수 구성을 정리하면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회귀분석 모형의 변수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NEET 여부	○	○	○	○	
독립변수	인적 속성	성, 연령(제곱), 학력, 결혼	○	○	○	○
	가구 특성	1인당 가구소득	○	○	○	○
		거주지	○		○	○
	성장 환경	아버지 학력 14세 때 가구주 직업과 고용형태 14세 가정형편 성장지		○		
	훈련	교육훈련 경험			○	
	학교 교육	사교육 경험 혼자 공부 시간 중2 성적 지각			○	
	문화, 생활	박물관 관람, 영화관람 부모와 대화, 부모와 여가활동			○	
	인식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위 향상 가능성 생활만족 좋은 일자리의 임금 수준				○

<표 IV-18>에서는 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IV-18> 분석에 사용한 변수 설명

변수	설명	변수 유형
NEET 여부	NEET에 대한 [정의 3]을 기준으로 NEET=1	더미변수
성	남자=1	
연령		
학력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연속변수
아버지 학력		
결혼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1	더미변수
거주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	
성장지		
1인당 가구소득	$\log[(2005\text{년 총 가구소득})/(\text{가구원수})]$	연속변수
가구주 직업(14세)	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더미변수
가구주 고용형태(14세)	가족종사자·가정주부·무직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업자	
훈련 경험	경험 있음=1	
기타훈련 경험		
훈련 희망	훈련 희망함=1	
기타훈련 희망		
사교육 경험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1 초등학교 4학년, 중2, 고2의 경험을 각각 조사	연속변수
혼자학습시간	중2, 고2의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	
중2 성적	중2 때 반에서 평균적인 성적수준. 하위 40%를 기준으로 상위 40%, 중간 20%	
지각 경험	중학교/고교 시절 한달 평균 지각 경험 횟수로서, 없음을 기준으로 4회 이하, 5회 이상	더미변수
박물관 관람	중2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 횟수로서, 없음을 기준으로 연 4회 이하, 연 5회 이상	
영화 관람	중2 때 영화 관람 횟수로서, 없음을 기준으로 연 4회 이하, 연 5회 이상	

<표 계속>

변수	설명	변수 유형
부모와 대화	중2 때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눈 횟수로서 거의 없음을 기준으로 3개월에 1~2회 이하, 1달에 1~2회 이상	더미변수
부모와 여가활동	중2 때 부모님과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로서 거의 없음을 기준으로 3개월에 1~2회 이하, 1달에 1~2회 이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로서 하(하상, 하하)를 기준으로 상(상상, 상하), 중(중상, 중하)	
지위향상 가능성	노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한가에 대해 '그렇다'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생활만족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불만족'을 기준으로 '만족'과 '보통'	
가족의 수입 만족도	생활 가운데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불만족'을 기준으로 '만족'과 '보통'	
여가활동 만족도	생활 가운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불만족'을 기준으로 '만족'과 '보통'	
좋은 일자리 임금수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의 로그값	연속변수

이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표 IV-19>에서 [모형 1]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령효과는 24세 무렵까지는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며, 24세가 지나면서 NEET화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이나 대졸자의 NEET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졸자보다 대졸자의 NEET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 여부를 보면 미혼일수록 NEET화 경향이 높다.

거주지역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할 때 NEET가 될 확률이 높으며, 1인당 가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NEET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가구소득의 효과는 남재량(2006), Oh(2007)의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로서 NEET가 부유한 가정의 나태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빈곤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남재량, 2006).

[모형 1]의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모형 2]~[모형 4]에서 다른 변수들

을 추가해도 계속 그 효과가 유지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다른 모형의 분석결과를 검토할 때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모형 2]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형 2-1]은 14세 무렵 가구주의 직업과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모형 2-2]는 이 변수들 대신에 14세 무렵의 가정의 경제형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는 것이다.

먼저 [모형 2-1]에서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 대졸일 경우에 비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2006, 151)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얻고 “자녀의 학력은 높을수록 NEET화 경향이 커지지만 아버지의 학력은 낮을수록 자녀의 NEET화 경향을 더욱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모형 2-2]에서 성장기의 가구주의 직업과 고용형태 대신에 당시의 가정형편(경제형편)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아버지의 학력효과는 달라진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일 경우 NEET의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이것은 [모형 2-1]에서 아버지의 학력 효과가 성장기의 가정형편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모형에서 14세 당시의 가정형편은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NEET의 가능성을 낮춘다. 이것을 앞서 살펴본 가구소득의 효과와 함께 고려하면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형편까지도 NEET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모형 2]의 두 모형 모두 성장지역의 효과는 동일하게 수도권일수록 NEET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NEET 결정요인: [모형 1], [모형 2]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1	모형 2-2
상수항	-17.3007 (0.0702) ***	-15.8666 (0.0887) ***	-9.6430 (0.0838) ***
남자	0.3215 (0.0027) ***	0.3097 (0.0032) ***	0.2237 (0.0030) ***
연령	1.5264 (0.0063) ***	1.4966 (0.0077) ***	0.8853 (0.0074) ***
연령제곱	-0.0320 (0.0001) ***	-0.0319 (0.0002) ***	-0.0182 (0.0002) ***
학력			
고졸	1.0634 (0.0074) ***	1.5656 (0.0098) ***	1.2627 (0.0080) ***
전문대졸	0.4554 (0.0087) ***	1.1939 (0.0113) ***	0.7120 (0.0096) ***
대졸 이상	1.6842 (0.0082) ***	2.3330 (0.0109) ***	1.8887 (0.0090) ***
기혼	-2.7080 (0.0140) ***	-3.2834 (0.0215) ***	-2.4345 (0.0140) ***
거주지-수도권	0.1382 (0.0026) ***		
1인당 가구소득 (로그값)	-0.5830 (0.0019) ***	-0.6381 (0.0023) ***	-0.6659 (0.0023) ***
아버지 학력			
고졸		0.2066 (0.0036) ***	0.1536 (0.0034) ***
전문대졸		0.2855 (0.0089) ***	0.1921 (0.0094) ***
대졸 이상		0.0695 (0.0055) ***	0.5055 (0.0044) ***
가구주 직업(14세)			
관리직/전문가		0.1710 (0.0181) ***	
사무직		-0.3097 (0.0185) ***	
판매서비스		0.00117 (0.0179)	
생산직		-0.0964 (0.0178) ***	
가구주 고용형태 (14세)			
정규직		-1.2093 (0.0113) ***	
비정규직		-1.0464 (0.0120) ***	
고용주		-0.9359 (0.0115) ***	
자영자		-1.2395 (0.0113) ***	
경제형편(14세)			
평균상회			-0.3410 (0.0052) ***
평균			-0.0838 (0.0032) ***
성장지-수도권		0.2597 (0.0030) ***	0.1530 (0.0029) ***
N	2,758	2,266	1,947
-2logL	4,291,978.5	3,256,754.6	3,467,904.0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는 0.1% ,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모형 3]에서는 다섯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학교교육과 학창시절 생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통적으로 포함된 지난 1년간 직업훈련과 기타훈련 경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의 경험과 희망, 기타훈련에 대한 희망의 회귀계수는 (+)인 반면 기타 훈련의 경험은 반대로 (-)로 나타났다. 이것은 NEET일수록 훈련에 대한 경험도 적고 훈련을 받으려는 의지가 적음을 보여준다. 대신 훈련보다는 기타훈련을 그나마 많이 받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모형 3-1]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NEET화 경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사교육 경험은 NEET화를 높이는 반면 중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경험은 NEET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엄밀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초등학교의 사교육 경험은 청년층 가운데 연령이 20대 초반에서 NEET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교육에서 경쟁이 확대되면서 사교육 경쟁에 뛰어드는 연령이 점차 낮아져 상대적으로 NEET의 비중이 높은 20대 초반이 20대 후반보다 초등학교에서 사교육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추론이다.

둘째, 중고등학교에서 사교육 경험은 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는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사교육 경험이 많고 NEET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논리이다.

셋째,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고 이것이 NEET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추론이다. [모형 3-3]에서는 중2 때 성적의 효과를 보았는데, 유의하게 성적이 높을수록 NEET 가능성이 낮아진다.

[모형 3-2]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혼자 학습한 시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NEET화 경향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학교 때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0> NEET 결정요인: [모형 3] 분석 결과(1) - 학교교육의 효과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상수항	-15.7949 (0.0760) ***	-12.9365 (0.0768) ***	-17.8715 (0.0726) ***
남자	0.2987 (0.0028) ***	0.2479 (0.0028) ***	0.2711 (0.0028) ***
연령	1.3481 (0.0068) ***	1.1057 (0.0069) ***	1.5514 (0.0065) ***
연령제곱	-0.0281 (0.0001) ***	-0.0235 (0.0001) ***	-0.0325 (0.0001) ***
학력			
고졸	1.2808 (0.0082) ***	1.8924 (0.0092) ***	1.2282 (0.0079) ***
전문대졸	0.7644 (0.0096) ***	1.3841 (0.0105) ***	0.6859 (0.0093) ***
대졸 이상	1.9788 (0.0091) ***	2.7253 (0.0102) ***	2.0109 (0.0089) ***
기혼	-2.6797 (0.0140) ***	-2.7238 (0.0140) ***	-2.7000 (0.0140) ***
거주지-수도권	0.2119 (0.0027) ***	0.2254 (0.0027) ***	0.2286 (0.0027) ***
1인당 가구소득 (로그값)	-0.5576 (0.0020) ***	-0.5266 (0.0020) ***	-0.5357 (0.0020) ***
훈련 경험	-0.8202 (0.0064) ***	-0.8213 (0.0064) ***	-0.7855 (0.0064) ***
훈련 희망	-0.2374 (0.0055) ***	-0.2786 (0.0055) ***	-0.2903 (0.0056) ***
기타훈련 경험	0.1021 (0.0047) ***	0.1220 (0.0047) ***	0.1794 (0.0046) ***
기타훈련 희망	-0.3589 (0.0042) ***	-0.3230 (0.0042) ***	-0.3364 (0.0042) ***
사교육경험			
초등학교 4년	0.4350 (0.0034) ***		
중학교 2년	-0.1386 (0.0033) ***		
고등학교 2년	-0.0924 (0.0030) ***		
혼자 학습한 시간			
중학교 2년		-0.0555 (0.0018) ***	
고등학교 2년		-0.1320 (0.0012) ***	
중학교 2년 성적			
상위 40%			-0.2553 (0.0047) ***
중위 20%			-0.0544 (0.0046) ***
N	2,498	2,469	2,693
-2logL	4,084,115.4	4,023,499.0	4,118,292.2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모형 3-4]에서는 학창시절의 생활태도가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지각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학교에서는 지각의 경험이 많을수록 NEET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고등학교에서의 지각 경험은 많을수록 NEET 가능성을 높이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¹⁷⁾

[모형 3-5]에서는 학창시절의 문화적인 경험, 부모님과 관계 등이 NEET 경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데, 먼저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은 5회 이상, 즉 많이 할수록 NEET 경향이 낮아진다. 그런데 영화 관람은 많이 할수록 NEET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NEET화 경향은 낮아진다. 반면 부모님과 함께 여가활동한 경험은 3개월에 1~2회 이하일 경우에는 NEET 가능성을 낮추지만, 한 달에 1~2회 이상 자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NEET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표 IV-22>에 제시한 [모형 4]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NEET 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은 NEET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NEET라는 존재 상태가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형 4]의 분석 결과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먼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NEET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노력에 따른 지위향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보다 모르겠다는 응답일수록 NEET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수의 경우에는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데, 만족할수록 그 값이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NEET일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의 평균 임금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앞서 집단 간 평균임금 비교에서 취업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임금수

17)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는 비록 해석은 어렵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준이 높았던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IV-21> NEET 결정요인: [모형 3] 분석 결과(2) - 문화, 생활의 효과

	모형 3-4			모형 3-5		
상수항	-16.3577	(0.0769)	***	-18.1357	(0.0731)	***
남자	0.2198	(0.0028)	***	0.2968	(0.0028)	***
연령	1.4073	(0.0068)	***	1.5774	(0.0065)	***
연령제곱	-0.0295	(0.0001)	***	-0.0329	(0.0001)	***
학력						
고졸	1.3451	(0.0084)	***	1.2210	(0.0078)	***
전문대졸	0.8575	(0.0098)	***	0.7151	(0.0092)	***
대졸 이상	2.1527	(0.0094)	***	1.9347	(0.0088)	***
기혼	-2.7159	(0.0140)	***	-2.7483	(0.0140)	***
거주지-수도권	0.2447	(0.0027)	***	0.1250	(0.0027)	***
1인당 가구소득 (로그값)	-0.5566	(0.0020)	***	-0.5621	(0.0020)	***
혼련 경험	-0.8062	(0.0064)	***	-0.8288	(0.0064)	***
혼련 희망	-0.2625	(0.0056)	***	-0.3177	(0.0056)	***
기타혼련 경험	0.0951	(0.0047)	***	0.1509	(0.0047)	***
기타혼련 희망	-0.4247	(0.0042)	***	-0.4110	(0.0042)	***
지각 경험						
중 1~4회	-0.3534	(0.0046)	***			
중 5회 이상	-0.9587	(0.0122)	***			
고 1~4회	0.5881	(0.0043)	***			
고 5회 이상	1.1592	(0.0085)	***			
문화활동(14세)						
박물관 연 1~4회				0.3508	(0.0030)	***
박물관 연 5회 이상				-0.5211	(0.0117)	***
영화 연 1~4회				-0.2398	(0.0035)	***
영화 연 5회 이상				0.0792	(0.0049)	***

<표 계속>

	모형 3-4	모형 3-5
부모와 활동(14세)		
학교생활 대화 3개월 1~2회 이하		-0.0397 (0.0045) ***
학교생활 대화 1개월 1~2회 이상		-0.1223 (0.0042) ***
여가활동 3개월 1~2회 이하		-0.1318 (0.0032) ***
여가활동 1개월 1~2회 이상		0.1873 (0.0039) ***
N	2,476	2,704
-2 Log L	4,018,182.6	4,097,643.0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IV-22> NEET 결정요인: [모형 4] 분석 결과

	모형 4-1			모형 4-2		
상수항	-15.3138	(0.0741)	***	-16.3724	(0.0747)	***
남자	0.3288	(0.0029)	***	0.3115	(0.0029)	***
연령	1.5272	(0.0063)	***	1.6153	(0.0064)	***
연령제곱	-0.0321	(0.0001)	***	-0.0341	(0.0001)	***
학력						
고졸	1.1240	(0.0074)	***	1.1179	(0.0074)	***
전문대졸	0.4856	(0.0088)	***	0.4994	(0.0088)	***
대졸 이상	1.9185	(0.0084)	***	1.9245	(0.0083)	***
기혼	-2.7211	(0.0140)	***	-2.7402	(0.0140)	***
거주지-수도권	0.1746	(0.0027)	***	0.1280	(0.0027)	***
1인당 가구소득 (로그값)	-0.5598	(0.0021)	***	-0.5272	(0.0022)	***
사회경제적 지위						
상	0.3607	(0.0088)	***	0.5544	(0.0089)	***
중	-0.1230	(0.0031)	***	-0.0512	(0.0032)	***
지위향상 가능성						
그렇지 않음	-0.00425	(0.0029)		-0.0275	(0.0029)	***
모르겠음	0.2116	(0.0099)	***	0.2751	(0.0100)	***
생활만족도						
만족	-0.5707	(0.0057)	***			
보통	-0.4617	(0.0051)	***			
가족수입 만족도						
만족				-0.1146	(0.0058)	***
보통				0.0720	(0.0033)	***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0.8586	(0.0045)	***
보통				-0.5287	(0.0032)	***
좋은 일자리 임금수준(로그값)	-0.3089	(0.0040)	***	-0.3403	(0.0040)	***
N	2,674			2,675		
-2 Log L	4,125,037.8			4,086,183.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유휴청년의 결정요인을 살펴 보았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속성의 측면에서 NEET는 20대 초반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졸 미혼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의 가구 경제사정뿐 아니라 성장기의 가정형편도 NEET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즉 현재든 과거든 가구의 경제사정이 좋을수록 NEET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이 NEET화 경향에 미치는 효과는 성장기 가정형편을 통제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NEET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경험, 학교성적, 혼자 학습한 시간 등은 모두 NEET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서 공부한 시간의 효과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컸다.

넷째, NEET는 훈련을 받은 경험도 적고 받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교양 차원의 기타 훈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NEET가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NEET에 대해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체훈련 방식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이러닝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문화활동이나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 청년층의 NEET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NEET 경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여섯째, NEET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특히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그리고 NEET는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 5 장 유휴청년층의 생활시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유휴청년층의 실제적 삶의 내용에 관한 탐색적 접근으로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자료를 통해 NEET의 생활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개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조사로 개인들의 생활양식(life style)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문숙재, 1998; 손애리, 2000).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우선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의 산출에 있어서 누락되었던 무보수 노동의 측정과 평가를 수행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정책이나 경기변화가 개인들의 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들이 학습과 훈련 활동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삶의 질과 관련해 개인들이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Joyce and Stewart, 2004).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서는 경제활동조사(CPS: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시간조사를 중요한 공식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한국방송공사(KBS)에 의해서 생활시간조사(「국민생활시간조사」)가 처음으로 시도된 바 있고, 통계청에서 본격적으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생활시간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문숙재, 1998; 손애리, 2000).

이 글에서는 유휴청년층들의 생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휴청년층인 NEET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NEET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NEET의 생활시간이 동일 연령대의 청년취업자나 청년실업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청년 NEET를 측정하고, 측정한 청년 NEET의 규모를 살펴보고 이 결과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정된 NEET의 그것을 비교한다.

둘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농가별로 우리나라 NEET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청년 NEET의 생활시간을 행동유형과 요일별로 살펴보고 청년취업자, 청년실업자와 비교·분석한다.

넷째, 우리나라 청년 NEET의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2004년 9월에 두 번째로 조사를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

고 있는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04년 조사는 전국의 17,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약 4만 2천명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의 기간 중 2일(48시간)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10분 간격의 시간일지(time-diary)형식으로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15세에서 29세 혹은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분류 및 정의

가. 니트에 대한 측정

이 글에서는 이번 유휴청년층 연구의 전체적인 개념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NEET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전체적인 NEET 개념은 제한적인 정의에서 포괄적인 정의까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정의에서 NEET는 15세 이상 29세의 청년층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을 의미한다(<정의 1>). 두 번째는 첫 번째 정의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 '가사'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NEET를 정의한다(<정의 2>). 세 번째는 두 번째 정의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기타'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NEET를 정의한다(<정의 3>).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에 대한 측정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NEET 개념에 포함하는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1주간의 주된 활동을 묻고 있지 않은 생활시간조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을 통해 NEET 여부를 판별하고자 한 중요한 몇 가지 기준들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조사에서

측정가능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대상연령은 청년층(15~29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15~34세로 확대)으로 한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연령에 관한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취업자와 정규교육 참여자는 NEET에서 제외한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취업자 여부와 재학 여부에 관한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가사’나 ‘육아’인 경우 NEET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생활시간조사에서 문제가 되는데, 생활시간조사는 조사기간 중 지난 이틀간의 생활시간 중 ‘가사’나 ‘육아’ 활동을 시간량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가 주된 활동인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예를 들면 “24시간 중 4시간 이상이면 주된 활동”, “다른 모든 생활시간량보다 ‘가사’나 ‘육아’시간이 길면 주된 활동”)가 생긴다. 이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NEET의 규모나 특성이 바뀌므로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혼인 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을 이용해 미혼자만을 NEET에 포함하였다.

넷째, 실업자 그리고 구직을 희망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NEET에서 제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실업자의 식별과 관련해 1주일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에서 (1) ‘구해 보았음’ 으로 답한 응답자와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에서 (1) ‘있었음’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취업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4주일을 기준(OECD)으로 실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도 동일하다.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구분은 생활시간조사에서 가장 큰 난점인데 생활시간조사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업자를 구분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시간량을 통해 구직활

동을 지난 1주일이 아닌 이틀간 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곧 지난 이틀간 조금이라도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로 실업자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실업자에 대한 과소추정의 문제가 있으나 이 연구가 NEET의 정확한 규모 추정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상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는 지난 이틀간 구직활동 여부로 실업자를 규정하고자 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문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취업자 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의 단서 조항으로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우도 취업자에 포함하고 있어 18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NEET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인 경우는 NEET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도 실업자의 식별과 마찬가지로 지난 이틀간의 생활시간량을 통해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NEET의 기본개념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 관련 학습 시간량 여부로 판별하고자 한다.

여섯째,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결혼준비’의 경우는 NEET의 포괄적인 정의에 포함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항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시간조사에서 NEET의 정의는 포괄적인 정의인 <정의 3>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가사나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주부의 경우 NEET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미혼만을 포함)과 지난 일주일이 아닌 이틀간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만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생활시간 변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생활시간 관련 변수는 크게 1) 개인유지, 2) 일, 3) 학습, 4) 가정관리, 5) 가족 보살피기, 6) 참여 및 봉사활동, 7) 교제 및 여가활동, 8) 이동의 8가지 대변수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유지 변수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1> 참조).

<표 V-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개인유지

대	중 소 분류
1 개 인 유 지	11 수면
	111 수면
	112 낮잠·졸음
	12 식사 및 간식
	121 가족과의 식사
	122 그외의 식사
	123 간식과 음료
	13 개인관리
	131 개인위생
	132 옷갈아입기, 외모관리
	133 이미용관련 서비스 받기
	14 건강관리(의료적)
	141 자가 치료
	142 의료서비스 받기
143 아파서 쉽	
199 기타 개인유지	

일 변수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 관련 행동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2> 참조). 학습 변수는 학생의 학교학습, 학생의 학교 외 학습, 학습 관련 물품구입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3> 참조).

<표 V-2>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일

대	중 소 분류
2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11 주업
	212 부업
	213 일 중 휴식
	214 일 관련 연수
	215 집에 가져와서 일함
	216 그외 일 관련 행동
	220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 제외)
	23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텃밭일, 산바다에서의 채집 등)
250 구직활동	
260 일 관련 물품구입	
299 기타 일 관련 행동	

<표 V-3>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학습

대	중 소 분류
3 학 습	31 학생의 학교 학습
	311 수업
	312 정규수업 사이의 휴식
	313 학교에서의 스스로 학습
	314 학교행사
	319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 관련
	32 학생의 학교 외 학습
	321 정규수업 외 강습
	322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329 학교 외에서의 기타 학습 관련
330 학습 관련 물품구입	

가정관리 변수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 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 경영, 기타 가사일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4> 참조). 가족 보살피기 변수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5> 참조).

<표 V-4>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가정관리

대	중·소 분류
4 가 정 관 리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식사준비(요리, 식탁차리기)
	412 설거지, 식후정리
	413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김치, 밑반찬, 잔치음식, 만들기)
	42 의류 관리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422 옷 정리(옷장정리 등)
	423 다림질, 바느질, 의류 손질
	424 의류수선·세탁 서비스 받기
	425 재봉, 뜨개질
	43 청소 및 정리
	431 방·물품 정리(짐정리, 잠자리정리)
	432 집안 청소(쓸기, 닦기)
	433 그외 청소 및 정리 (베란다·마당 청소, 냉장고 닦기 등)
	44 집 관리
	441 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442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443 그외 집 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집소독 등)	

<표 계속>

대	중·소 분류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51 시장보기 (식료품, 가구의 일용품등)
	452 쇼핑하기(의복, 신발 등)
	453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집,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구매)
	46 가정경영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저축, 가족회의)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499 기타 가사일

<표 V-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가족보살피기

대	중·소 분류
5 가 족 보 살 피 기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1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등)
	512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519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깨우기, 학교준비물 챙겨주기 등)
	522 숙제 및 공부 봐주기
	523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방문
	529 기타 학생 보살피기
	530 배우자 보살피기 (출근 도와주기, 안마해주기 등)
54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0 그외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변수는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6> 참조). 교제 및 여가활동 변수는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활동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상세 분류는 <표 V-7> 참조). 이동 변수는 개인유지 관련 이동, 출퇴근, 그 외 일 관련 이동,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활동 관련 이동, 그 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표 V-6>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참여 및 봉사활동

대	중·소 분류
참여 및 봉사 활동	610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친구 가게 봐주기, 이웃일 돕기 등)
	620 지역공동체 활동 (반상회, 마을 청년회 활동 등)
	630 사회참여 활동 (민방위·예비군 훈련, 집회활동 등)
	64 자원봉사
	641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스포츠, 문화 행사에서의 안내 등을 돕는 활동) 642 자녀교육 관련 (일일급식, 일일교사, 교통지도) 643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등) 644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649 기타 자원봉사(헌혈, 상담 등)

<표 V-7>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변수 분류 및 정의-교제 및 여가활동

대	중·소 분류
7 교 제 및 여 가 활 동	71 교제활동
	711 교제 관련 전화통화(가족, 친구 등)
	712 가족·친척과의 교제
	713 그외 사람들과의 교제
	714 성묘, 별초 등
	719 기타 교제 관련 행동
	72 대중매체 이용
	721 신문
	722 잡지
	723 TV
724 비디오	
725 라디오	
726 CD, Tape 등 음악 듣기	
727 컴퓨터 정보이용(인터넷, PC통신 등)	
73 일반인의 학습	
731 외국어 관련 학습	
732 컴퓨터 관련 학습	
733 자격증, 취업 관련(기능, 기술 등)학습	
734 취미 관련 강습	
739 기타 일반인의 학습	
74 종교 활동	
741 개인적 종교 활동	
742 종교 집회·모임 참가	
743 그외 종교 관련 행동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751 영화(극장/비디오방)	
752 연극(극장), 콘서트	
753 전시회, 박물관	
754 스포츠 경기 관람	
759 기타 관람 및 행사 참여 관련 행동	

<표 계속>

대	중·소 분류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761 걷기, 산책
	762 등산, 하이킹(산림욕 포함)
	763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764 그외의 스포츠 (농구, 축구, 볼링, 당구, 배드민턴, 롤러 블레이드 등)
	765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766 그외 집밖의 레저활동 (낚시, 캠핑, 놀이공원 등)
	77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771 독서
	772 컴퓨터 게임
	773 놀이(아이들 놀이, 바둑, 장기 등)
	774 그외 취미활동 (서예, 만들기, 모으기, 연주하기 등)
	775 유흥(술, 춤, 노래방)
	776 담배 피우기
	777 아무것도 안하고 쉬
	78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아이쇼핑, 비디오 빌리기 등)
	799 기타 여가 관련 활동

한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청소년 관련 개인배경 변수는 연령, 재학상태 및 재학여부, 성별, 직장 및 지위, 개인 월평균소득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은 생활시간량 분석과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이다. 생활시간량 분석은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해당 생활시간 항목에 사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생활시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응분석은 행렬도를 통하여 데이터의 행(개체)과 열(변수)을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하여 개체간,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며, 또한 행과 열을 중첩하여 개체와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원자료 값을 재생성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Gabriel, 1971). 이러한 대응분석은 반응 자료의 유사성이나 관련성을 다차원적인 공간상의 거리로 표출하여 자료군의 숨겨진 구조(hidden structure)를 분석하는 검증기법으로 범주형 자료와 같은 질적 자료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Benzecri, 1993).

대응분석은 행과 열의 자료를 최소한의 차원에서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각 점들을 최소거리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단일치 분해법(singular value decomposition)으로 알려진 수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a 와 b 라는 두 변수로 구성된 표를 대응표 C 라고 할 때 이것을 단일치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C = u \times s \times v'$$

이 식에서 u 는 $A \times A$ 좌측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로 행 범주간의 좌표를, s 는 $A \times B$ 단일치 대각행렬로 각 벡터들과 관련된 가중치를, v' 는 $B \times B$ 우측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로 열 범주간의 좌표를 의미한다(이명진, 2005).

대응분석에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분할표에 대한 분석으로 행과 열 범주의 독립성을 알 수 있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각 변수 간의 관련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대응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행과 열 범주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허명희, 1999).

제3절 분석 결과

1. NEET의 규모 및 특성

유휴청년층의 생활시간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유휴청년층 NEET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서 15~29세 유휴청년층 NEET(470명)의 규모는 전체 청년인구(6,623명)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34세의 경우 NEET의 규모는 해당 인구의 5.5%로 나타나고 있다.

<표 V-8> 생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NEET 규모 비교

(단위: 명(%))

구분	생활시간조사(2004)		경제활동인구조사(2004) 15~34세		
	15~29세	15~34세	<정의 1>	<정의 2>	<정의 3>
NEET	470(7.1)	534(5.5)	337,208(2.3)	440,012(3.0)	885,910(6.1)
실업자	84(1.3)	119(1.2)		493,042(3.4)	
청년 인구	6,623(100.0)	9,654(100.0)		14,503,763(100.0)	

15~34세를 기준으로 삼을 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해 보면, <정의 2>의 3.0%보다는 크고 <정의 3>의 6.1%보다는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시간조사에서 NEET를 미혼자로 국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자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에서는 1.3%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3.4%에 비해 2.1%p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지난 1주간이 아니라 지난 이틀간을 기준으로 실업 여부를 판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V-9> 생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NEET의 개인적 특성(2004)
(단위: 명(%))

구분		생활시간조사		경찰조사
		15~29세	15~34세	<정의 1> 15~34세
전체		470(100.0)	534(100.0)	337,208(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5(5.3)	38(7.1)	53,372(15.8)
	배우자	0(0.0)	0(0.0)	6,899(2.1)
	미혼자녀	400(85.1)	440(82.4)	241,794(71.7)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0(0.0)	0(0.0)	4,161(1.2)
	기타	45(9.6)	56(10.5)	30,982(9.2)
성별	남성	304(64.7)	339(63.5)	220,857(65.5)
	여성	166(35.3)	195(36.5)	116,351(34.5)
학력별	중졸 이하	52(11.1)	59(11.0)	32,448(9.6)
	고졸	229(48.7)	266(49.8)	222,496(66.0)
	전문대졸	161(34.3)	174(32.6)	43,869(13.0)
	대졸 이상	28(6.0)	35(6.6)	38,395(11.4)
연령별	15~19	94(20.0)	94(17.6)	33,175(9.8)
	20~24	263(56.0)	263(49.3)	143,420(42.5)
	25~29	113(24.0)	113(21.2)	87,393(25.9)
	30~34	-	64(12.0)	73,219(21.7)

<표 V-9>는 NEET의 실태를 개인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혼자녀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생활시간조사에서 기혼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배우자와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기혼자인 NEET의 비중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NEET의 생활상을 분석하는 데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구주의 비중에서는 차이가 확인되는데, 생활

시간조사에서 가구주 비중은 7.1%인 데 비해 경찰조사에서 그것은 15.8%로 경찰조사가 2배 가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로 보면 생활시간조사에서 남성 NEET가 여성 NEET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경찰조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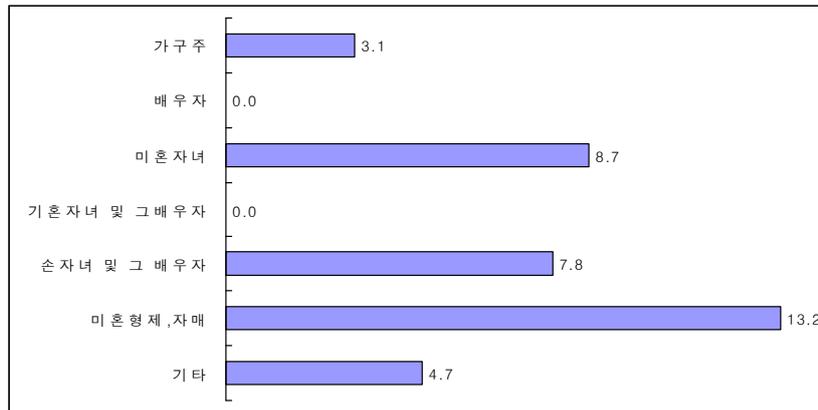
학력별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고졸 NEET가 가장 많고 전문대졸이 많으며 4년제 대졸의 NEET 비중이 가장 낮다. 경찰조사의 경우 전문대졸의 NEET 비중은 낮은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중은 생활시간조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두 조사 결과 모두 20대 초반 연령대가 NEET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차이점으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저연령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경찰조사에서는 고연령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V-1]은 가구주와의 관계별 전체 15~29세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자의 경우 NEET에서 제외했으므로 해당 항목을 빼고 살펴보면, 미혼자녀가 NEE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가 미혼형제, 자매인 경우 NEET 비중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손자녀 및 그 배우자도 7.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없거나 조손가구의 젊은층에서 NEET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V-1] 가구주와의 관계별 전체 청년인구 중 NEET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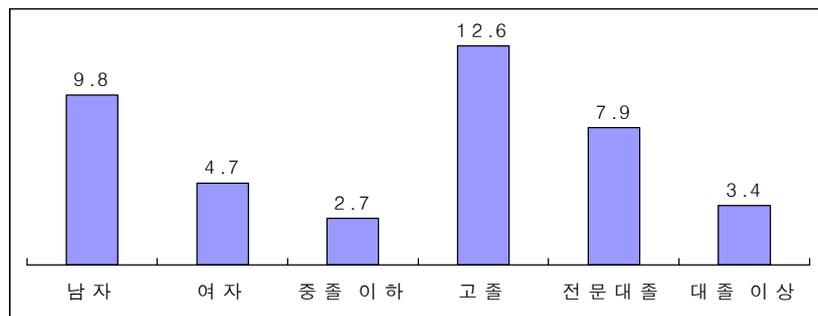
(단위: %)



[그림 V-2]는 성별 및 학력별 15~29세 전체 청년인구 중 NEET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체 청년인구 중 9.8%가 NEET로 여성(4.7%)보다 5.1%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NEET의 절대수는 전문대졸자가 많으나 전체 해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졸이 1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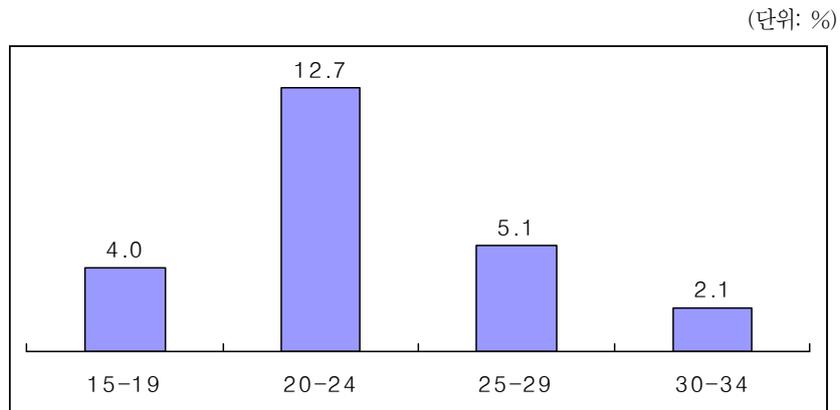
[그림 V-2] 성별, 학력별 청년인구 중 NEET 비중

(단위: %)



[그림 V-3]은 연령별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초반의 경우가 12.7%로 가장 높은 NEET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30대 초반의 경우가 2.1%로 가장 낮은 NEET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3] 연령별 청년인구 중 NEET 비중



다음으로 <표 V-10>은 생활시간조사에서 지역별, 소득수준을 판별해 볼 수 있는 자가/자가용 소유 여부 및 농가 여부에 따른 NEET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역별로 NEET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5~29세의 경우 서울이 16.8%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표 V-10> 지역, 경제수준, 농가 여부별 NEET 실태(200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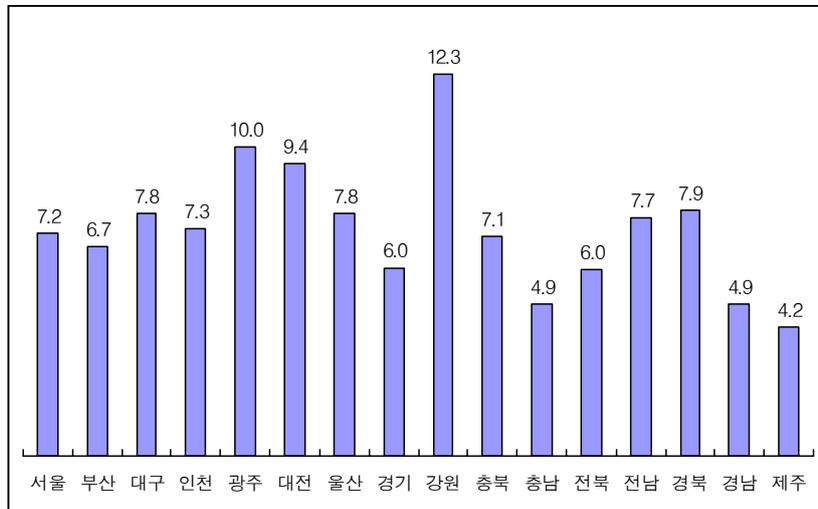
구분		15~29세	15~34세
전체		470(100.0)	534(100.0)
지역	서울	79(16.8)	99(18.5)
	부산	38(8.1)	44(8.2)
	대구	34(7.2)	35(6.6)
	인천	34(7.2)	37(6.9)
	광주	41(8.7)	44(8.2)
	대전	32(6.8)	36(6.7)
	울산	26(5.5)	29(5.4)
	경기	42(8.9)	43(8.1)
	강원	20(4.3)	24(4.5)
	충북	22(4.7)	24(4.5)
	충남	15(3.2)	18(3.4)
	전북	16(3.4)	17(3.2)
	전남	19(4.0)	22(4.1)
	경북	25(5.3)	27(5.1)
	경남	18(3.8)	20(3.7)
	제주	9(1.9)	15(2.8)
자가/자가용 소유 여부	자기집 없음	149(31.7)	173(32.4)
	자기집/자가용 없음	105(22.3)	126(23.6)
	자기집/자가용 1대	174(37.0)	190(35.6)
	자가용 2대 이상	42(8.9)	45(8.4)
농가 여부	농가	27(5.7)	35(6.6)
	비농가	443(94.3)	499(93.4)

[그림 V-4]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지역별로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 중 NEET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NEET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지

역으로 15~29세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은 12.3%로 전체 평균(7.1%)보다 5.2%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의 NEET 비중이 1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대전 지역이 9.4%로 높은 NEET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4] 지역별 청년인구 중 NEET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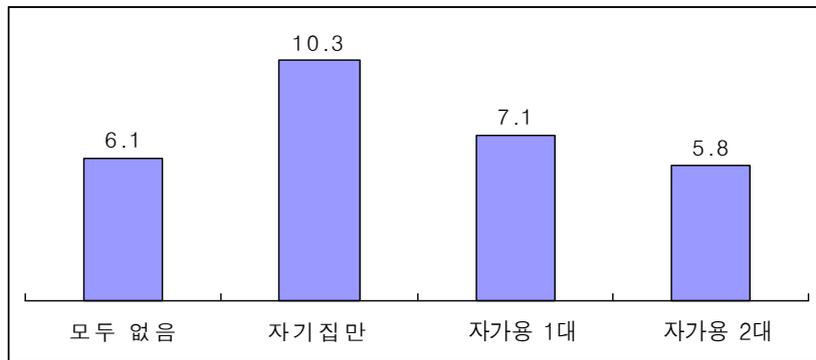
NEET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집 및 자가용 유무별 비중을 살펴보면 자기집이 있고 자가용이 1대인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고 자기집이 없는 경우가 31.7%, 자기집은 있으나 자가용이 없는 경우 22.3%, 자가용이 2대 이상인 경우가 8.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5]는 자가/자가용 보유 여부별 해당 전체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가용은 없고 자기집만 있는 청년인구 중 10.3%가 NEET로 나타나 NEET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 자기집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 청년층 중 NEET 비중은 예상과는 달리 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어서 농가 여부별 해당 전체 청년인구 중 NEET 비중은 각각 6.8%, 7.1%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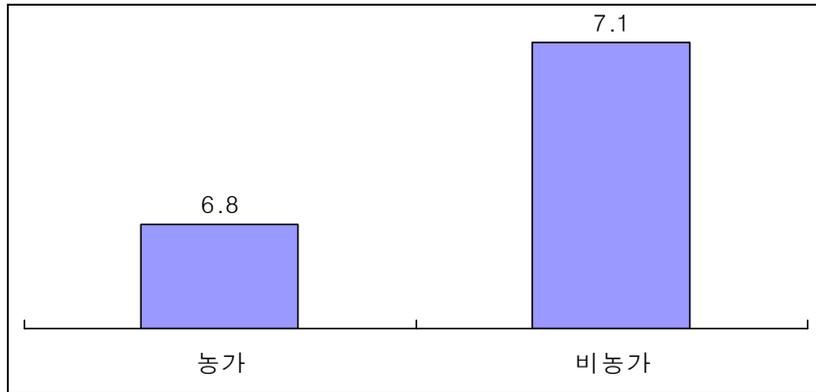
[그림 V-5] 자가/자가용 보유 여부별 전체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

(단위: %)



[그림 V-6] 농가 여부별 전체 청년인구 중 NEET의 비중

(단위: %)



2. 유휴청년층 NEET의 생활시간

이 절에서는 유휴청년층 NEET의 생활시간을 요일별(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동유형별(대, 중, 소분류)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NEET는 15~29세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5~34세의 경우 생활시간량의 행동유형별 비율에 있어서 15~29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V-11> 요일별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단위: 분(%))

행동 대분류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1440.00(100.0)	1440.00(100.0)	1440.00(100.0)
개인유지	670.50(46.6)	681.48(47.3)	702.04(48.8)
일	7.56(0.5)	4.64(0.3)	6.64(0.5)
학습	91.27(6.3)	91.15(6.3)	49.87(3.5)
가정관리	48.42(3.4)	49.57(3.4)	52.21(3.6)
가족 보살피기	9.04(0.6)	8.18(0.6)	9.16(0.6)
참여 및 봉사활동	58.66(4.1)	18.61(1.3)	5.22(0.4)
교제 및 여가활동	447.78(31.1)	479.47(33.3)	503.67(35.0)
기타	106.78(7.4)	106.89(7.4)	111.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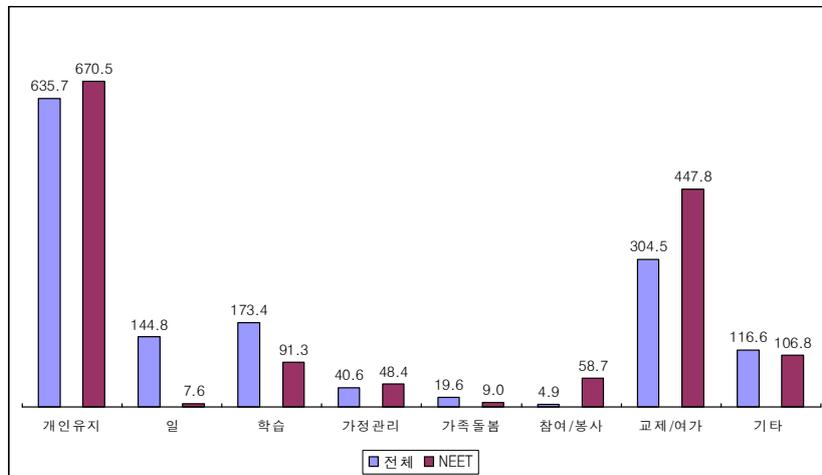
<표 V-11>은 요일별로 행동유형 대분류에 따른 NEET의 평균생활시간량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24×60분)이 된다. NEET의 행동유형별 시간량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개인유지 시간이 670.50분으로 가장 길고 교제 및 여가활동이 447.78분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행동유형이 평일 하루 24시간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요일별로 비교해 보면, 평일과 휴일 간의 생활시간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연령대에 취업자거나 학생이거나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간에 생활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데 비해서 NEET의 경우 행동유형이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V-7]은 행동유형별로 전체 청년인구(15~29세)의 평균 생활시간량과 NEET의 그것을 비교하고 있다. 전체 청년인구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행동유형은 개인유지와 교제/여가였으며 이 기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나 학습은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V-7]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 분)



NEET의 생활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유지 활동과 교제/여가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2>는 행동유형의 중분류 수준에서 어떤 개인유지 활동을 주로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평일의 경우 개인유지 관련 활동유형 중 수면시간의 비중이 71.9%로 가장 크고 이하의 활동은 5% 내외로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8]은 NEET의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연령별 수면시간과 비교해 보고 있다. NEET와 유사한 수면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는 14세(480.0분)와 19세(484.1분)로 본격적인 입시경쟁이 시작되기 전과 대학진학 이후 입시경쟁이 끝나는 시점과 일치한다. 15~29세 해당 연령대의 평균 수면시간은 437.7분으로 NEET가 44분이나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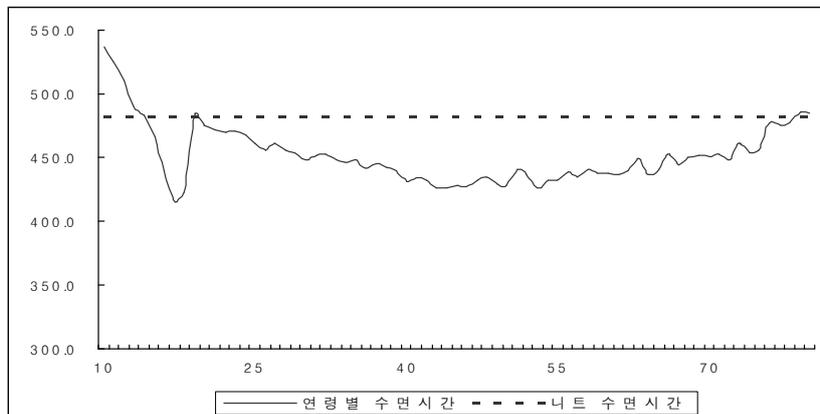
<표 V-12> 요일별 개인유지 관련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단위: 분(%))

행동 소분류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670.50(100.0)	681.48(100.0)	702.04(100.0)
수면	481.72(71.9)	483.92(71.0)	511.77(72.9)
낮잠, 졸음	24.42(3.6)	32.97(4.8)	23.76(3.4)
가족과의 식사	23.13(3.5)	27.66(4.1)	33.76(4.8)
혼자 식사	27.81(4.1)	25.50(3.7)	20.66(2.9)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19.28(2.9)	20.67(3.0)	17.35(2.5)
간식과 음료	17.71(2.6)	18.18(2.7)	17.12(2.4)
개인위생	56.06(8.4)	56.84(8.3)	59.20(8.4)
외모관리	13.03(1.9)	13.35(2.0)	14.25(2.0)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0.86(0.1)	0.62(0.1)	0.13(0.0)
자가치료	1.50(0.2)	0.48(0.1)	2.65(0.4)
의료서비스 받기	3.13(0.5)	1.20(0.2)	0.31(0.0)
아파서 쉬	1.74(0.3)	0.00(0.0)	1.06(0.2)
기타 개인유지	0.10(0.0)	0.10(0.0)	0.00(0.0)

[그림 V-8] 연령별(10~80세) 수면시간과 NEET의 수면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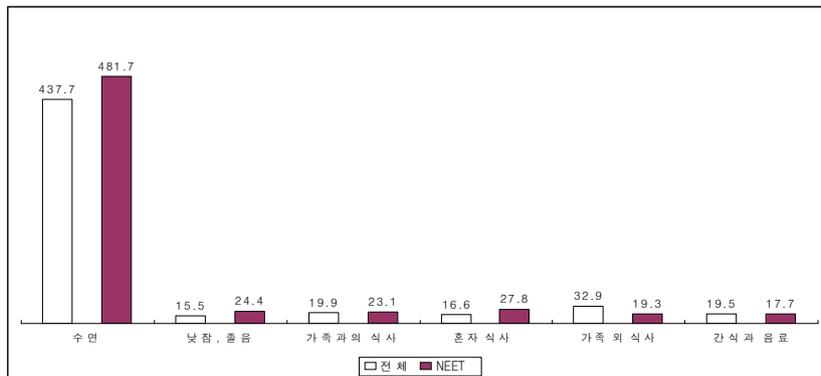
(단위: 분)



[그림 V-9]와 [그림 V-10]은 개인유지와 관련된 행동유형별로 전체 해당 청년인구와 NEET의 개인시간량을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식사할 때 누구와 시간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NEET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긴 대신, 가족 외 사람들과의 식사 시간은 짧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위생 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긴 반면, 외모관리 시간은 짧게 나타나고 있다. 치료와 관련된 시간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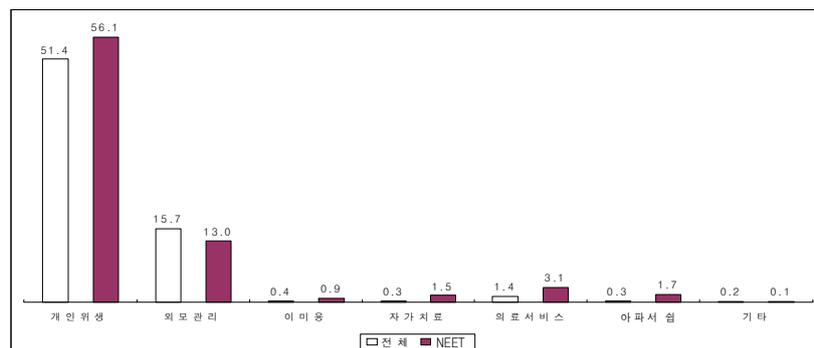
[그림 V-9]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개인유지 시간 비교 1

(단위: 분)



[그림 V-10]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개인유지 시간 비교 2

(단위: 분)



<표 V-13>과 <표 V-14>는 교제/여가시간과 관련하여 NEET 청년층의 평균 생활시간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평일 교제 관련 시간을 보면, 교제 관련 전화통화 시간은 12.9분이었으며 가족, 친척 등과의 교제시간은 6.1분,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시간은 33.4분,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시간은 7.3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제 관련 시간의 경우에도 평일과 휴일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미디어매체 이용을 살펴보면, TV시청 시간이 139.5분, 즉 2시간 이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보다 훨씬 길었으며, 인터넷 검색 시간이 35.8분으로 길게 나타났다. NEET 청년층의 TV시청 시간을 전체 청년인구의 결과(71.1분)와 비교해 보면, NEET 청년층이 약 1시간 가량 평일에 TV를 더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일 NEET 청년층의 TV시청 시간은 해당 인구 연령대의 청년 전체의 일요일 평균 TV시청 시간(145.6분)과 더 가깝다.

<표 V-13> 요일별 교제/여가 관련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1

(단위: 분(%))

행동 소분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교제 관련 전화통화(가족, 친구 등)	12.94(2.9)	12.92(2.7)	13.67(2.7)
가족, 친척과의 교제	6.11(1.4)	5.41(1.1)	7.70(1.5)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33.44(7.5)	38.56(8.0)	39.03(7.7)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	7.30(1.6)	9.43(2.0)	7.21(1.4)
성묘, 별초 등	0.45(0.1)	1.72(0.4)	3.32(0.7)
기타 교제 관련 행동	0.03(0.0)	0.43(0.1)	0.40(0.1)
신문	4.53(1.0)	3.40(0.7)	2.52(0.5)
잡지	2.24(0.5)	1.00(0.2)	1.28(0.3)
TV	139.54(31.2)	147.46(30.8)	163.58(32.5)
비디오, DVD	6.92(1.5)	5.02(1.0)	7.57(1.5)
라디오	3.48(0.8)	1.39(0.3)	2.12(0.4)
CD, Tape 등 음악 듣기	2.00(0.4)	3.11(0.6)	1.81(0.4)
인터넷 정보검색	35.78(8.0)	43.40(9.1)	31.19(6.2)

다음으로 종교활동을 살펴보면, NEET 청년층이 일요일에 종교집회, 모임에 참가하는 시간은 18.8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청년층의 경우 16.2분으로 NEET 청년층의 종교집회, 모임 참가 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4> 요일별 교제/여가 관련 NEET의 평균생활 시간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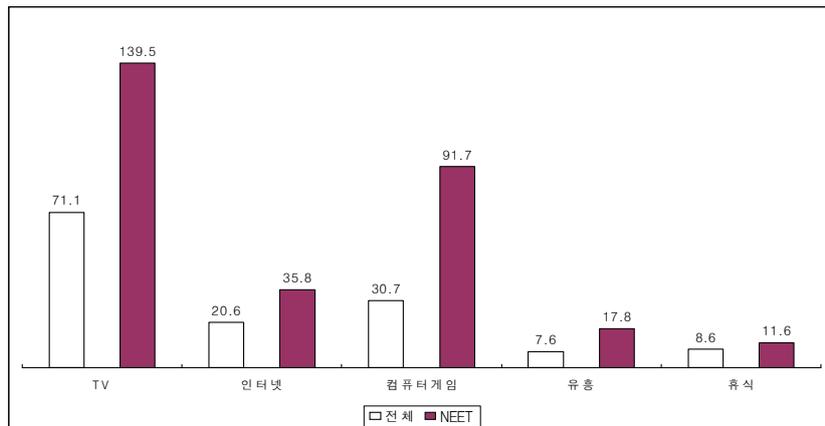
(단위: 분(%))

행동 소분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개인적 종교활동	0.52(0.1)	1.05(0.2)	1.77(0.4)
종교집회, 모임 참가	1.65(0.4)	1.34(0.3)	18.76(3.7)
그 외 종교 관련 행동	0.31(0.1)	0.10(0.0)	1.68(0.3)
영화(극장/비디오방)	4.85(1.1)	9.52(2.0)	13.85(2.7)
연극(극장), 콘서트	0.00(0.0)	0.24(0.0)	0.00(0.0)
전시회, 박물관	0.22(0.0)	0.00(0.0)	0.00(0.0)
스포츠 경기 관람	0.00(0.0)	0.00(0.0)	0.00(0.0)
그 외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관련 행동	0.00(0.0)	0.24(0.0)	0.35(0.1)
걷기, 산책	7.18(1.6)	6.79(1.4)	6.59(1.3)
등산, 하이킹(산림욕 포함)	0.79(0.2)	1.39(0.3)	0.00(0.0)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9.59(2.1)	11.10(2.3)	8.01(0.1)
그 외의 스포츠	6.37(1.4)	7.37(1.5)	9.25(1.3)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1.22(0.3)	3.25(0.7)	6.55(0.0)
그 외 집밖의 레저활동	1.39(0.3)	1.48(0.3)	3.14(1.6)
독서	24.80(5.5)	29.19(6.1)	18.67(1.8)
컴퓨터 게임	91.65(20.5)	84.59(17.6)	92.52(1.3)
놀이	2.50(0.6)	2.44(0.5)	0.88(0.6)
그 외 취미활동	2.34(0.5)	4.59(1.0)	2.43(3.7)
유희(술, 춤, 노래방)	17.76(4.0)	21.34(4.5)	17.52(18.4)
담배피우기	2.08(0.5)	2.01(0.4)	0.93(0.2)
아무것도 안하고 쉬	11.64(2.6)	10.14(2.1)	8.85(1.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5.59(1.2)	7.42(1.5)	9.25(1.8)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57(0.1)	0.62(0.1)	1.19(0.2)

[그림 V-11]과 [그림 V-12]는 NEET 청년층이 주로 보내는 여가시간과 전체 청년인구의 그것을 평일과 일요일별로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평일의 경우 NEET 청년층의 여가시간이 월등히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TV시청과 컴퓨터게임 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요일의 경우 TV시청과 컴퓨터게임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컴퓨터게임 시간은 여전히 30분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NEET 청년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이든 휴일이든 2시간 이상 TV시청을, 1시간 반 가량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NEET 청년층들이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시간을 제외하고 상당수 시간을 오락거리로 소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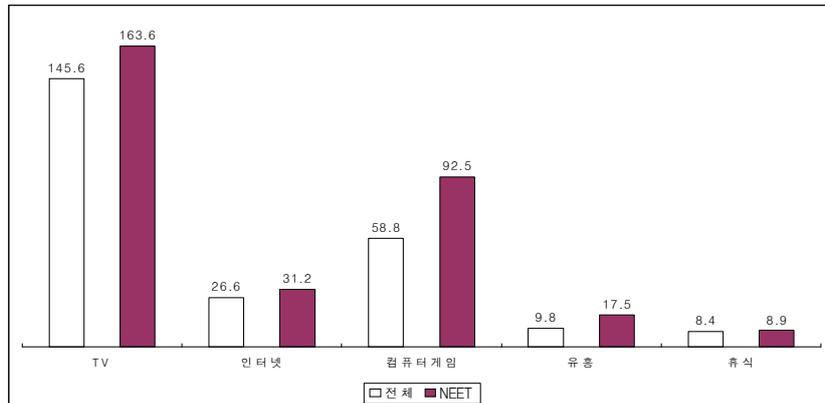
[그림 V-11] 평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주요 여가시간 비교

(단위: 분)



[그림 V-12] 일요일 전체 청년인구와 NEET의 주요 여가시간 비교

(단위: 분)



3. 유휴청년층과 청년 취업자, 실업자 비교

이 절에서는 유휴청년층의 생활시간 실태를 청년 취업자, 실업자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NEET와 관련해서 밝혀진 사실은 NEET의 주된 활동 상태가 취업준비(19.5%), 진학준비(13.7%), 심신장애(8.4%), 군입대 대기(7.8%), 결혼준비(1.0%), 쉬었음(38.5%), 기타(10.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남재량, 2006). 그러나 이러한 주된 활동상태만으로는 NEET의 실체를 명확히 살펴보기 힘들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이러한 제약을 넘어 구체적으로 유휴청년층 NEET들이 시간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유휴청년층의 생활시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V-15>는 유휴청년층의 평일 평균 시간량을 청소년 취업자, 실업자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행동 대분류로 살펴보면, 개인유지 시간은 670.5분으로 실업자(643.2분)나 취업자(618.3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일과 관련된 시간은 7.56분으로 취업자(409.2분)보다 매우 짧고 실업자(95.1분)와 비교해도 짧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과 관련된 시간은 91.3분으로 취업자나 실

업자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 내 활동도 취업자나 실업자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NEET의 평일 생활시간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으로 전자는 58.7분, 후자는 447.8분으로 취업자보다 월등히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실업자와 비교해 볼 때 청년 NEET보다 실업자의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5>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평일 평균 생활시간량 비교

(단위: 분)

행동 대분류	청년 NEET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전체	1440.00	1440.00	1440.00
개인유지	670.50	618.31	643.24
일	7.56	409.20	95.14
학습	91.27	24.28	35.54
가정관리	48.42	28.17	38.92
가족 보살피기	9.04	9.28	7.70
참여 및 봉사활동	58.66	2.66	14.73
교제 및 여가활동	447.78	218.79	485.54
기타	106.78	129.31	119.19

다음으로 <표 V-16>은 유휴청년층의 토요일 평균 시간량을 보여주고 있다. 유휴청년층의 토요일 시간 활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항목별 사용시간이 평일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평일과 휴일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청년 취업자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청년 취업자는 평일보다 토요일에 일과 관련된 의무생활 기간이 크게 줄고 있지만 유휴청년층의 경우 요일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표 V-16>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토요일 평균 생활시간량 비교

(단위: 분)

행동 대분류	청년 NEET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전체	1440.00	1440.00	1440.00
개인유지	681.48	650.79	642.11
일	4.64	282.59	119.47
학습	91.15	7.39	88.95
가정관리	49.57	42.52	24.21
가족 보살피기	8.18	12.90	0.00
참여 및 봉사활동	18.61	0.90	0.00
교제 및 여가활동	479.47	307.54	409.47
기타	106.89	135.36	155.79

<표 V-17>을 통해서 일요일의 평균 시간량을 살펴보면,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유희청년층의 생활시간 배분이 평일과 큰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24시간 중 9시간(503.7분)에 이를 정도로 길어졌다는 점이다. 곧 유희청년층들은 하루에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중 40%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에 배분하고 있다.

<표 V-17>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일요일 평균 생활시간량 비교

(단위: 분)

행동 대분류	청년 NEET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전체	1440.00	1440.00	1440.00
개인유지	702.04	709.23	673.13
일	6.64	156.02	73.13
학습	49.87	3.42	21.88
가정관리	52.21	56.64	59.38
가족 보살피기	9.16	14.50	10.63
참여 및 봉사활동	5.22	1.24	0.00
교제 및 여가활동	503.67	384.80	514.38
기타	111.19	114.15	87.50

<표 V-18>은 개인유지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항목별로 유휴청년층과 취업자, 실업자의 평균시간을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면이나 낮잠, 졸음 시간은 유휴청년층이 청년 취업자나 실업자보다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식사시간은 혼자 하는 식사와 가족이나 가족 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구분해 살펴보면, 유휴청년층과 실업자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긴 반면, 취업자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유휴청년층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표 V-18>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평일 개인유지 관련 시간량 비교

(단위: 분)

행동 소분류	청년 NEET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수면	481.72	443.91	469.86
낮잠, 졸음	24.42	11.32	24.05
가족과의 식사	23.13	16.49	20.27
혼자 식사	27.81	16.06	28.78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19.28	35.02	12.84
간식과 음료	17.71	23.30	15.27
개인위생	56.06	50.82	54.46
외모관리	13.03	19.64	13.11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0.86	0.45	0.81
자가치료	1.50	0.20	0.00
의료서비스 받기	3.13	0.95	1.49
아파서 쉬	1.74	0.02	0.00
기타 개인 유지	0.10	0.13	2.30

외모 관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유휴청년층과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취업자가 대면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의료 관련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유휴청년층의 활동 시간이 실업자나 취업자보다는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유휴청년층은 3.1분인 데 비해 취업자는 1.0분, 실업자는 1.5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의료 관련 시간 그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활동이 유휴청년층의 주된 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 V-19>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유휴청년층의 교제 및 여가 활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NEET의 경우 여러 형태의 교제시간이 취업자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자와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유휴청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TV시청 시간(147.5분)과 인터넷 정보검색 시간(43.4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이용을 혼자 하고 있는지, 같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비교적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유휴청년층의 경우 홀로 있는 시간이 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유휴청년층의 종교활동 시간은 어떠한가? 조사 결과는 청년 취업자나 실업자와 비교해 볼 때 유휴청년층의 종교활동 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람 및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 집 밖의 레저활동 시간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유휴청년층의 경우 홀로 행하는 활동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우선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시간의 경우 유휴청년층은 11.1분인 데 비해 취업자는 6.2분, 실업자는 3.4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걷기, 산책의 경우도 유휴청년층은 6.8분인 데 비해 취업자는 2.5분에 불과했다.

또 유휴청년층의 경우 컴퓨터 게임 시간(84.6분)이나 유희 시간(21.3분)도 청년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시간은 청년 실업자의 경우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9> NEET와 취업자, 실업자의 평일 교제/여가활동 시간 비교

(단위: 분)

행동 소분류	청년 NEET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교제 관련 전화통화(가족, 친구 등)	12.92	10.37	18.11
가족, 친척과의 교제	5.41	3.17	7.70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38.56	27.16	39.46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	9.43	4.02	8.92
신문	3.40	2.15	4.73
잡지	1.00	0.60	1.76
TV	147.46	66.09	129.19
비디오, DVD	5.02	1.90	8.38
라디오	1.39	0.56	6.76
CD, Tape 등 음악 듣기	3.11	1.46	2.03
인터넷 정보검색	43.40	18.76	54.59
개인적 종교활동	1.05	0.47	0.00
종교집회, 모임 참가	1.34	1.05	0.68
그 외 종교 관련 행동	0.10	0.34	4.59
영화(극장/비디오방)	9.52	2.49	3.92
연극(극장), 콘서트	0.24	0.05	0.00
전시회, 박물관	0.00	0.01	0.00
스포츠 경기 관람	0.00	0.14	0.00
걷기, 산책	6.79	2.45	7.16
등산, 하이킹(산림욕 포함)	1.39	0.02	1.62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11.10	6.16	3.38
그 외의 스포츠	7.37	2.37	3.11
드라이브, 쇼핑, 관광 및 구경	3.25	0.71	0.41
그 외 집밖의 레저활동	1.48	0.30	0.00
독서	29.19	8.81	23.51
컴퓨터 게임	84.59	21.19	71.76
놀이	2.44	1.03	2.84
유흥(술, 춤, 노래방)	21.34	9.40	5.54
담배피우기	2.01	2.25	3.92
아무것도 안하고 쉬	10.14	9.07	13.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7.42	2.27	4.05

4. 대응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청년 NEET와 청년 취업자, 실업자 간의 차이를 대응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응분석은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의 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내려는 분석으로 행 변수는 8가지 행동유형(대분류)이며 열 변수는 청년의 경제활동상태(NEET, 취업자, 실업자)가 된다. <표 V-20>은 대응분석 결과 요약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각 차원의 설명력(관성, inertia)을 보여주는데 행동유형과 경제활동 상태 간의 관계는 1차원에서 92.6%가 설명되고 다음 2차원에서 7.4%가 설명되어 두 개의 차원만으로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0>은 대응분석 결과 요약표를 보여주고 있다. 차원의 개수는 모두 2가지이다. 이것은 행렬의 범주 수가 작은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 수(3가지-NEET, 취업자, 실업자)에서 1을 뺀 수치이다. 각 차원의 관성(inertia)을 살펴보면, 제1차원의 관성 혹은 행과 열의 상관계수는 0.163이고 이는 대응 분석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원의 관성은 0.013으로 전체의 7.4%만을 설명하고 있다.

<표 V-20> 대응분석 결과 요약표

차원 (Dimension)	비정직치 (Singular)	관성 (Inertia)	카이 스퀘어 (χ^2)	유의도 (p)	관성 비율		신뢰 비정직값	
					설명됨	누적	표준편차	상관계수
1	0.404	0.163			0.926	0.926	0.012	0.141
2	0.114	0.013			0.074	1.000	0.015	
Total		0.176	760.697	0.000	1.000	1.000		

이 표에서 비정직치는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며 각 차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제1차원은 0.404로 제2차원(0.1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첫 번째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각 차원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카이제곱값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곧, 이 결과는 상호 관련이 있는 두 개의 비정직치 축을 갖는 차원으로 행동유형과 경제활동상태를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1> 대응분석에서 행좌표 통계지수 및 산출값

생활시간	가중치 (mass)	행좌표점수		관성 (Inertia)	기여도				
					각 차원의 관성에 대한 포인트		포인트의 관성에 대한 차원		
		1	2		1	2	1	2	Total
개인유지	0.447	-0.050	0.029	0.000	0.003	0.003	0.913	0.087	1.000
일	0.118	1.589	0.121	0.121	0.741	0.015	0.998	0.002	1.000
학습	0.035	-0.734	1.028	0.012	0.047	0.324	0.643	0.357	1.000
가정관리	0.027	-0.329	0.150	0.001	0.007	0.005	0.944	0.056	1.000
가족 보살핌	0.006	0.051	0.217	0.000	0.000	0.002	0.163	0.837	1.000
참여 및 봉사	0.018	-1.240	1.567	0.016	0.067	0.379	0.689	0.311	1.000
교제 및 여가	0.267	-0.448	-0.338	0.025	0.133	0.266	0.862	0.138	1.000
기타	0.082	0.116	-0.075	0.000	0.003	0.004	0.893	0.107	1.000
Active Total	1.000			0.176	1.000	1.000			

<표 V-22> 대응분석에서 열좌표 통계지수 및 산출값

NEET 여부	가중치 (mass)	열좌표점수		관성 (Inertia)	기여도				
					각 차원의 관성에 대한 포인트		포인트의 관성에 대한 차원		
		1	2		1	2	1	2	Total
NEET	0.333	-0.628	0.342	0.057	0.325	0.342	0.923	0.077	1.000
취업자	0.333	0.871	0.118	0.103	0.626	0.041	0.995	0.005	1.000
실업자	0.333	-0.243	-0.460	0.016	0.049	0.618	0.498	0.502	1.000
Active Total	1.000			0.176	1.000	1.000			

<표 V-21>과 <표 V-22>는 행과 열의 좌표별 통계지수 및 산출값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좌표점수는 두 개의 차원인 가상적 공간에 표기되는 각 변수들의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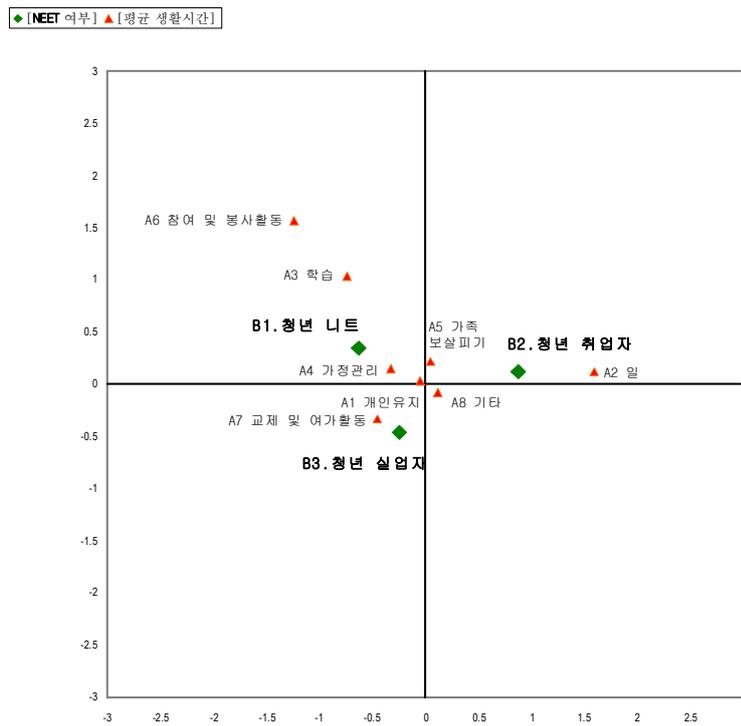
다음으로 가중치(mass)는 해당 변수가 공간에 적재되는 빈도를 전체 변

수들의 빈도로 나누어준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가 가상적 공간에 적재된 빈도가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행좌표에서 가상적 공간에 적재된 빈도가 가장 큰 항목은 개인유지(0.447)이며,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0.267), 일(0.118) 순이다. 열좌표에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0.333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성(inertia)은 해당 변수의 카이제곱값을 전체 변수들의 카이제곱값으로 나누어준 값인데, 이 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가 가상 공간의 설명력이나 축을 설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두 표에서 관성이 가장 큰 것은 행좌표에서 생활시간 중 일과 관련된 행동유형이며 열좌표에서 취업자이다.

[그림 V-13] 생활시간 행동유형과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대응분석 그래프

(단위: %)



[그림 V-13]은 청년 NEET,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별로 평균적인 생활시간량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응분석 그림에서 행 범주와 열 범주를 나타내는 좌표점들이 어느 특정한 좌표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놓여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대응관계는 낮아지고 서로 거리가 가까워 있을수록 대응관계는 높아지게 된다.

열좌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년 취업자와 미취업자(NEET와 실업자) 간의 차이로 제1차원이 구분된다. 제2차원은 NEET와 실업자 간의 구분이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경우 제1차원의 설명력이 매우 크고 제2차원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취업 여부가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좌표 간의 관계는 각 경제활동상태가 어떤 생활시간 행동유형과 유사한가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핵심적인 생활시간 행동유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취업자는 일(dim1: 1.589, dim2: 0.121)과 가장 거리가 가깝고 가족 보살피기(dim1: 0.051, dim2: 0.217)가 동일한 차원(dim1:+, dim2:+)에 포함되어 있다. 가족 보살피기의 경우 취업자와 동일한 차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 가지 경제활동상태와의 거리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취업자의 핵심적인 생활시간 행동유형은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년 NEET의 경우 동일한 차원(dim1:-, dim2:+)에 개인유지, 학습, 가정관리, 참여 및 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리상으로는 가정관리(dim1:-0.329, dim2:0.150)와 가장 가깝고 개인유지(dim1:-0.050, dim2: 0.029)와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경제활동상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여 및 봉사활동(dim1:-1.240, dim2:1.567)과 학습(dim1:-0.734, dim2:1.028) 등이다. 이 두 가지의 행동유형의 경우 청년 NEET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자나 청년 실업자 모두와 멀리 떨어져 있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된 행동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 NEET의 주된 행동유형은 가정관리나 개인유지 등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행동유형은 교제 및 여가활동(dim1: -0.448, dim2:-0.338)이며 이 행동유형이 동일한 차원(dim1:-, dim2:-)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곧 청년 실업자의 가장 주된 행동유형은 교제 및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소결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유휴청년층인 NEET들을 살펴본 결과, 미혼자녀가 대부분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고졸자 중에 NEET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24세 중 NEET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과 광주 지역에 NEET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NEET의 비중이 높았고, 농가와 비농가에서 NEET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어서 청년 NEET들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와 관련된 필수생활시간이 전체 청년인구의 그것보다 길었으며 교제 및 여가시간도 전체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 NEET들의 수면시간은 해당 연령대는 물론 15세 이상 70세 이하 전 연령대의 평균 수면시간보다 길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특히 길었던 행동유형은 TV시청과 컴퓨터 게임 시간으로 전체 청년인구 평균보다 1시간 이상 길게 나타났다. 생활시간에 대한 요일별 분석에서 NEET 청년들은 평일과 휴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주된 활동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청년 NEET들의 생활시간 배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 NEET들은 교제 관련 전화통화,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시간 등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제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실태에서도 TV시청 시간, 인터넷 정보검색 시간 등 홀로 하는 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식사시간의 경우도 혼자 하

는 식사시간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실업자와의 비교 분석에서 청년 NEET는 개인유지와 관련된 필수생활 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일과 관련된 의무생활 시간은 짧았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대응분석을 통해 각 행동유형과 경제활동상태별 거리를 살펴본 결과, 청년 NEET는 가정관리와, 청년 취업자는 일과, 청년 실업자는 교제 및 여가활동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며, 이것이 각각의 생활시간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유휴청년층 NEET의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NEET 청년들은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TV, 인터넷 등 미디어와의 접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NEET 청년들을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이 밖으로 끌어내어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체를 활용한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이 NEET의 생활 패턴을 생각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NEET 청년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은 청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이나 취업자와 크게 다르다. NEET 청년들은 학생이나 취업자와는 달리 요일별로 생활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아 평일이나 휴일이나 거의 유사하게 생활한다. 이와 함께 NEET 청년들은 잠자는 시간이 길고 TV시청, 컴퓨터게임, 인터넷 사용 등 혼자서 하는 오락생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이와 같은 생활 패턴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 NEET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NEET에 대한 직접 접촉을 통해 질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생활시간 조사 자료로는 일반 청년들과의 생활 패턴의 차이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NEET가 된 이유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NEET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은 NEET의 경우 진로 및 취업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항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과 2004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는 5년 주기 조사로 2009년에 3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1주간의 주된 활동에 관한 질문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항이 추가된다면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생활시간 양상을 보다 명확한 정의하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NEET 상태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

이 장에서는 NEET 상태의 지속 가능성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주로 분석한다. 분석에는 KLIPS 5차 자료(2002년)부터 9차(2006년)까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NEET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4장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따랐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NEET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NEET 상태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청년층과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장기간 머물러 있는 청년층의 NEET 재진입 가능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과 한번이라도 NEET를 경험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NEET 경험과 NEET 재진입 등 노동시장 성과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대상이 어떤 그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1절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이 절에서는 NEET 경험 청년층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분석에는 KLIPS 5차 자료(2002년)부터 9차(2006

년)까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는 2개년도간의 변화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2002년과 2003년, 2003년과 2004년, 2004년과 2005년, 2005년과 2006년간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통합해서 (pooling) 분석을 진행한다.¹⁸⁾

경제활동상태는 취업과 실업, NEET와 비경활로 구분하였으며,¹⁹⁾ 앞에서 의 취지와 부합하게 통상의 청년층(15~29세)보다 확대된 15세에서 34세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t기(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와 t+1기(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표 VI-1>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t기와 비교시 t+1기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며 대신 취업자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동시에 NEET의 비율과 실업자의 비율도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t기 취업자의 경우 t+1기에도 88.3%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여전히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업자와 NEET의 경우에도 t+1기에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음해에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은 NEET에 비해 실업자의 경우 더 높았다(50.2% vs. 36.4%). t+1기에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은 비경활인구의 경우 2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1기에 NEET 상태에 빠지는 비율은 t기 NEET의 경우에 가장 높아, 약 3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t기에 NEET였던 청년층의 1/3 이상이 1년 후의 시점에도 여전히 NEET 상태에 있는 것이다.²⁰⁾ t+1기에 NEET 상태에 있는 비율은 t기 실업자 13.6%, 비경제활동인구 8.8%, 취업자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NEET와 실업자가 상당히 다른 집단이며,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자에 비해 NEET가 훨씬 문제성이 많은 집단임이 확인된다.

18) 자료를 통합하지 않고 2개년도씩의 분석을 별개로도 진행해 보았는데, 결과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그 분석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19) 분석 대상이 되는 5개년도 중 한 해라도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학업 때문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청년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0) 자료의 한계상 NEET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중간에 취업 등의 상태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VI-1> t기와 t+1기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명(%))

	t+1기 취업	t+1기 실업	t+1기 NEET	t+1기 비경활	계
t기 취업	5,079 (88.28)	188 (3.27)	158 (2.75)	328 (5.70)	5,753 (60.66)
t기 실업	233 (50.22)	90 (19.40)	63 (13.58)	78 (16.81)	464 (4.89)
t기 NEET	233 (36.35)	65 (10.14)	237 (36.97)	106 (16.54)	641 (6.76)
t기 비경활	602 (22.92)	139 (5.29)	231 (8.80)	1,654 (62.99)	2,626 (27.69)
계	6,147 (64.81)	482 (5.08)	689 (7.26)	2,166 (22.84)	9,484 (100.00)

이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²¹⁾을 통해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t기의 경제활동상태가 t+1기의 경제활동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종속변수의 범주는 취업, 실업, NEET, 비경활 등 네 개인데, 그중 취업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t기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취업을 기준으로 실업, NEET, 비경활 각각에 대해 더미변수를 설정)과 시계열 추이 변화를 통제해 주기 위한 연도더미(2002~2003년을 기준으로 2003~2004년, 2004~2005년, 2005~2006년 각각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정), 연령, 남성더미, 학력더미(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더미변수를 설정),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더미변수(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는 1, 나머지는 0으로 처리)와 가구의 월평균소득(만원 단위)을 고려하였다. 또 직업훈련 경험 여부(t+1기 기준)와 자격증 취득 여부(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2종 보통 일반 운전면허는 제외) 등의 취득 여부,

21) 다항로짓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범주를 기준범주로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해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Maddala, 1983).

t+1기 기준)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VI-2>에 제시되어 있다.

남재량(2006)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니트에서 취업으로의 탈출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된 자료의 성격상 가구소득 등 중요 변수들이 활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 여기에서의 분석은 보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표 VI-2>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한 다항로짓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취업	0.5756	0.4943
실업	0.0464	0.2104
NEET	0.0641	0.2450
비경활	0.2628	0.4402
2002년	0.2344	0.4237
2003년	0.2408	0.4276
2004년	0.2439	0.4295
2005년	0.2808	0.4494
연령(세)	28.3689	4.3048
성별	0.4456	0.4971
기혼	0.4782	0.4995
고졸	0.4477	0.4973
전문대졸	0.2527	0.4346
대졸 이상	0.2997	0.4581
아버지 직업	0.1128	0.3163
월평균 가구소득(원)	2,837,241	2,431,694
직업훈련 경험	0.1072	0.3093
자격증 취득	0.0328	0.1782
N	9,994 (아버지 직업 포함시: 8,736)	

다항로지 분석결과는 <표 VI-3>에 나타나 있는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는 가장 많은 변수들이 설명변수로 고려된 모형 4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통제될 경우 t기에 NEET 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경우 t기 취업자에 비해 t+1기에도 역시 NEET가 될 가능성이 무려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도 t+1기에 NEET가 될 가능성이 t기 취업자에 비해 12.1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t기 실업자의 경우 그 가능성은 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NEET에 빠지면, 적어도 취업자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또 다시 NEET가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할 것이다.

둘째, t기에 실업이나 NEET,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경우 t기의 취업자에 비해 t+1기에 취업보다는 실업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기 실업자의 경우 그 가능성이 8.1배 높았으며, NEET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대략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하기보다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 역시 t기의 취업자에 비해 실업이나 NEET,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t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무려 19.4배나 높았으며, NEET는 8.4배, 실업자는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계열적으로도 경제활동상태 변화 양상에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2005년 이후 취업보다는 NEET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5~2006년의 변화 양상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 취업보다는 NEET가 될 가능성이 1.3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 역시 2.2배 정도 높았다.

넷째, 연령이 많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이나 NEET,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보다는 취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NEET의 정의나 모형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이는 남재량(2006)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반면 성이나 기혼 여부는 일관된

변화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취업보다는 실업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미혼자에 비해 취업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실업이나 NEET 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가구 배경의 영향을 보면, 아버지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동하기보다 NEET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이 특징적이다.²²⁾ 그런가 하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보다는 취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배경 관련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남재량(2006)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섯째,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경험은 대체로 취업 상태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없을 경우 자녀가 NEET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표 VI-3>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상수항	-3.282*** (0.112)		-2.213*** (0.354)		-1.871*** (0.395)		-1.787*** (0.397)	
실업	2.307*** (0.143)	10.042	2.188*** (0.146)	8.919	2.105*** (0.159)	8.209	2.095*** (0.160)	8.125
NEET	1.984*** (0.158)	7.269	1.823*** (0.161)	6.189	1.771*** (0.182)	5.878	1.775*** (0.182)	5.899
비경활	1.799*** (0.119)	6.044	1.869*** (0.122)	6.484	1.795*** (0.134)	6.017	1.791*** (0.135)	5.994
2003년	-0.000 (0.136)	1.000	0.036 (0.137)	1.037	0.115 (0.148)	1.122	0.117 (0.149)	1.124
2004년	-0.035 (0.137)	0.965	0.018 (0.138)	1.019	0.058 (0.151)	1.060	0.064 (0.151)	1.066
2005년	0.146 (0.136)	1.158	0.123 (0.137)	1.131	0.166 (0.150)	1.180	0.180 (0.150)	1.197
실업/ 취업			-0.023* (0.013)	0.977	-0.031** (0.014)	0.970	-0.033** (0.014)	0.968
성별			0.154 (0.101)	1.167	0.198* (0.111)	1.219	0.210* (0.111)	1.234
기혼			-0.570*** (0.132)	0.565	-0.545*** (0.141)	0.580	-0.541*** (0.141)	0.582
전문대졸			-0.408*** (0.117)	0.665	-0.409*** (0.126)	0.664	-0.378*** (0.126)	0.685
대졸 이상			-0.724*** (0.124)	0.485	-0.779*** (0.141)	0.459	-0.717*** (0.142)	0.488
아버지 직업					-0.111 (0.192)	0.895	-0.098 (0.193)	0.907
가구소득					-6.11e-08** (3.05e-08)	1.000	-5.96e-08* (3.04e-08)	1.000
직업훈련							-0.720*** (0.208)	0.487
자격증							-0.008 (0.258)	0.992

<표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NEET /취업	상수항	-3.383*** (0.107)		-1.079*** (0.311)		-0.889** (0.344)		-0.673* (0.346)	
	실업	2.064*** (0.161)	7.876	1.830*** (0.165)	6.236	1.818*** (0.183)	6.158	1.836*** (0.184)	6.270
	NEET	3.393*** (0.119)	29.755	2.945*** (0.122)	19.019	3.063*** (0.136)	21.402	3.079*** (0.137)	21.729
	비경험	2.426*** (0.108)	11.315	2.411*** (0.114)	11.144	2.452*** (0.125)	11.614	2.491*** (0.126)	12.068
	2003년	-0.128 (0.123)	0.880	-0.062 (0.126)	0.940	-0.037 (0.137)	0.963	-0.046 (0.138)	0.955
	2004년	-0.079 (0.122)	0.924	0.008 (0.126)	1.008	-0.021 (0.138)	0.979	-0.031 (0.139)	0.969
	2005년	0.272** (0.119)	1.312	0.190 (0.122)	1.210	0.226* (0.133)	1.254	0.225* (0.134)	1.253
	연령			-0.055*** (0.012)	0.947	-0.065*** (0.013)	0.937	-0.071*** (0.013)	0.931
	성별			-0.248*** (0.092)	0.780	-0.162 (0.100)	0.851	-0.154 (0.101)	0.858
	기혼			-2.054*** (0.182)	0.128	-1.951*** (0.193)	0.142	-1.966*** (0.193)	0.140
	전문대졸			-0.681*** (0.120)	0.506	-0.772*** (0.132)	0.462	-0.696*** (0.133)	0.499
	대출 이상			-0.106 (0.106)	0.899	-0.149 (0.118)	0.861	-0.038 (0.120)	0.963
	아버지 직업					0.236* (0.141)	1.266	0.260* (0.142)	1.297
	가구소득					-5.75e-09 (1.95e-08)	1.000	-5.55e-09 (1.95e-08)	1.000
	직업훈련							-1.425*** (0.223)	0.241
	자격증							-0.580** (0.256)	0.560

<표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비경활 /취업	상수항	-2.505*** (0.073)		1.466*** (0.237)		1.627*** (0.255)		1.788*** (0.257)	
	실업	1.170*** (0.139)	3.223	1.424*** (0.152)	4.153	1.437*** (0.165)	4.206	1.433*** (0.165)	4.193
	NEET	1.497*** (0.126)	4.469	2.069*** (0.140)	7.913	2.152*** (0.154)	8.599	2.132*** (0.155)	8.430
	비경활	3.315*** (0.067)	27.511	2.973*** (0.074)	19.551	2.958*** (0.079)	19.263	2.963*** (0.080)	19.351
	2003년	0.077 (0.088)	1.080	0.118 (0.096)	1.126	0.098 (0.102)	1.103	0.090 (0.103)	1.095
	2004년	0.080 (0.087)	1.083	0.171* (0.096)	1.186	0.127 (0.102)	1.136	0.126 (0.103)	1.134
	2005년	0.722*** (0.083)	2.059	0.814*** (0.091)	2.257	0.793*** (0.097)	2.210	0.806*** (0.098)	2.239
	연령			-0.152*** (0.010)	0.859	-0.161*** (0.010)	0.851	-0.164*** (0.010)	0.849
	성별			-1.062*** (0.075)	0.346	-1.060*** (0.081)	0.347	-1.058*** (0.081)	0.347
	기혼			1.917*** (0.098)	6.798	1.987*** (0.107)	7.292	1.962*** (0.107)	7.113
	전문대졸			-0.793*** (0.080)	0.452	-0.891*** (0.086)	0.410	-0.847*** (0.087)	0.429
	대졸 이상			-0.883*** (0.081)	0.414	-1.010*** (0.090)	0.364	-0.934*** (0.091)	0.393
	아버지 직업					0.386*** (0.110)	1.471	0.392*** (0.111)	1.480
	가구소득					2.02e-08 (1.45e-08)	1.000	2.02e-08 (1.46e-08)	1.000
	직업훈련							-0.586*** (0.132)	0.557
	자격증							-0.913*** (0.198)	0.401
	N	9,994		9,994		8,736		8,736	
χ^2	4,224.56***		6,077.08***		5,390.66***		5,498.00***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제2절 NEET 상태의 장기적 지속 여부

이제 NEET에서의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말해 일단 NEET 상태에 빠질 경우 NEET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지 살펴보자. KLIPS 5차 자료상에서 NEET로 구분되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경제활동상태의 추적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318명인데, 이들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해 보면 <표 VI-4>와 같다.

<표 VI-4>에 따르면, 장기간 NEET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나면 3/4은 NEET 상태에서 탈출하며(취업이나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 1/4만 NEET로 그냥 남아 있게 된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패널로 구축하여 마코프 이행확률(Markov transition probability)을 구한 남재량(2006)에서, 1년 뒤에도 계속 NEET로 남는 비율이 30.0%로 나타났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결과이다. 또 5년간 계속 NEET 상태에 있는 비율은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5년 중 4회의 NEET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비율도 4.1%에 지나지 않으며, 3회의 NEET 경험자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2번의 NEET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21.7%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61.6%에 달하는 다수가 단 1회만 NEET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NEET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VI-4> 2002년 NEET의 2006년까지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명,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NEET	318 (100.0)	계속 NEET	73 (23.0)	계속 NEET	27 (8.5)	계속 NEET	13 (4.1)	계속 NEET	9 (2.8)
							NEET 탈출	14 (4.4)	NEET 탈출	4 (1.3)
							NEET	5 (1.6)	NEET	4 (1.3)
					NEET 탈출	46 (14.5)	NEET	41 (12.9)	다시 NEET	4 (1.3)
							NEET 탈출	2 (0.6)	NEET 탈출	10 (3.2)
							NEET	4 (1.3)	다시 NEET	6 (1.9)
			NEET 탈출	245 (77.0)	다시 NEET	20 (6.3)	계속 NEET	6 (1.9)	계속 NEET	2 (0.6)
							NEET 탈출	14 (4.4)	NEET 탈출	4 (1.3)
							NEET	14 (4.4)	다시 NEET	0 (0.0)
					NEET 탈출	225 (70.8)	NEET	22 (6.9)	계속 NEET	9 (2.8)
									NEET 탈출	13 (4.1)
									다시 NEET	7 (2.2)
NEET 탈출	203 (63.8)	NEET 탈출	196 (61.6)							
NEET 비율	100.0	23.0	14.8	14.5	12.6					

<표 VI-5> 2002년 NEET 경험자의 5년간 NEET 경험 횟수별 분포

(단위: 명(%))

NEET 경험회수	5회	4회	3회	2회	1회
NEET 경험자 비율	9 (2.8)	13 (4.1)	31 (9.8)	69 (21.7)	196 (61.6)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NEET의 비율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3년 경과 이후 부터는 NEET 비율이 1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NEET 상태를 오랜 기간 계속해서 지속하는 비율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일정 비율의 청년층은 NEET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NEET로부터의 영구 탈출이 용이하지 않은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핵심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석은 조사 시점 이후 1년간의 경제활동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²³⁾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계청의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처럼 연결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표본이 교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나 개인의 ID를 가지고 패널 자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패널 자료의 구축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1년이 넘어가면 탈락률이 50%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속 남아 있는 가구나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가구나 개인 간에는 분명한 특성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7년 1년 동안의 자료만을 연결하여 1월에 NEET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12월까지 어떤 식으로 노동력 유형이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다음 <표 VI-6>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2007년 1월 NEET에 속했던 사람은 277,742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2월에는 표본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261,150명으로 감소한

23) 이는 분석되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다. 이들의 노동력 유형을 보면 75.7%는 계속 NEET로 남아 있는 반면, 12.0%는 취업으로, 4.2%는 실업으로, 그리고 8.2%는 NEET를 제외한 기타 비경황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2월이 되면 1월에 NEET였던 사람들 중 19.7%만이 NEET에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36.1%는 취업으로, 4.2%는 실업으로, 그리고 40.0%는 기타 비경황로 전환하고 있다.

<표 VI-6> NEET 계층의 월별 변화 추세(2007년)

(단위: 명(%))

	NEET	취업	실업	기타 비경황	전체
1월	277,742 (100.00)	-	-	-	277,742
2월	197,615 (75.67)	31,195 (11.95)	11,066 (4.24)	21,274 (8.15)	261,150
3월	126,840 (55.43)	38,419 (16.79)	10,609 (4.64)	52,962 (23.14)	228,830
4월	97,677 (46.08)	44,030 (20.77)	8,424 (3.97)	61,856 (29.18)	211,988
5월	72,218 (37.10)	52,461 (26.95)	9,514 (4.89)	60,456 (31.06)	194,649
6월	55,983 (32.59)	47,897 (27.88)	12,086 (7.04)	55,823 (32.50)	171,788
7월	52,405 (33.05)	48,323 (30.48)	11,694 (7.38)	46,136 (29.10)	158,557
8월	49,872 (33.74)	48,160 (32.58)	8,272 (5.60)	41,498 (28.08)	147,802
9월	37,124 (27.47)	42,609 (31.53)	8,714 (6.45)	46,704 (34.56)	135,150
10월	25,299 (21.04)	39,693 (33.00)	6,308 (5.25)	48,969 (40.72)	120,268
11월	21,586 (19.77)	41,603 (38.10)	6,982 (6.39)	39,018 (35.73)	109,188
12월	21,029 (19.68)	38,582 (36.11)	4,512 (4.22)	42,722 (39.99)	106,843

주: 괄호 안은 행 백분율 값임.

1년이 지나면 대략 20% 내외만이 NEET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앞의 KLIPS 분석결과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세 달만 지나더라도 절반 이상이 NEET 상태를 탈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청년층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NEET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실업자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이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2007년 1월 실업자였던 사람들을 12월까지 추적하여 노동력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표 VI-7>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실업자들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월 현재 실업자였던 사람들 중 12월까지 실업 상태에 남아 있는 사람은 13.4%였다. 이 기간 동안 5.5%는 NEET로, 57.5%는 취업으로, 그리고 23.6%는 기타 비경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의 추이와 비교해 본다면 NEET는 1년 동안 같은 NEET 계층에 남아 있는 확률이 실업자가 실업 상태로 남아 있는 확률보다 6%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 상태보다 NEET 상태가 보다 지속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또한 NEET의 경우 1년 동안 취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36.1%로, 실업자가 취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인 57.5%보다 20%p 가량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NEET의 경우 NEET에서 탈출하더라도 취업으로보다는 기타 비경활로 이동하는 경향이 실업자보다도 16%p 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

24) 물론 이러한 해석이 좌측절단(left-censored)된 관측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I-7> 실업자 계층의 월별 변화 추세(2007년)

(단위: 명(%))

	NEET	취업	실업	기타 비경황	전체
1월	-	-	328,360 (100.00)	-	328,360
2월	14,817 (4.83)	62,662 (20.44)	192,340 (62.75)	36,695 (11.97)	306,515
3월	11,736 (4.24)	88,320 (31.93)	127,233 (46.00)	49,302 (17.82)	276,591
4월	5,991 (2.35)	107,985 (42.37)	87,566 (34.36)	53,310 (20.92)	254,853
5월	9,596 (3.97)	111,706 (46.22)	69,263 (28.66)	51,119 (21.15)	241,684
6월	11,715 (5.16)	116,380 (51.31)	49,451 (21.80)	49,270 (21.72)	226,816
7월	16,053 (7.50)	117,139 (54.70)	41,911 (19.57)	39,063 (18.24)	214,167
8월	12,191 (5.98)	111,381 (54.65)	44,534 (21.85)	35,719 (17.52)	203,826
9월	9,243 (5.03)	97,198 (52.87)	35,479 (19.30)	41,916 (22.80)	183,836
10월	9,078 (5.31)	93,357 (54.62)	30,000 (17.55)	38,475 (22.51)	170,911
11월	7,784 (5.06)	84,293 (54.77)	21,619 (14.05)	40,203 (26.12)	153,899
12월	7,786 (5.49)	81,524 (57.46)	19,067 (13.44)	33,494 (23.61)	141,871

주: 괄호 안은 행 백분율 값임.

제3절 NEET 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앞의 분석에 따르면, NEET를 경험한 사람들 중 다수는 곧 NEET 상태

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일부 NEET 경험자의 경우 NEET 상태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거나 NEET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양상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분석 이슈가 제기된다. 하나는 NEET 상태를 한 번만 경험한 청년층과 NEET 상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 간에 궁극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이슈는 NEET 상태를 한 번만 경험한 청년층과 NEET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한 청년층 간의 NEET 탈출 가능성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NEET 경험이 전혀 없었던 청년층과 한 번의 NEET 경험이 있었던 청년층의 2006년 노동시장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2006년의 노동시장 상황은 NEET 여부 및 취업 여부, 취업시의 임금 수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NEET 경험이 한 번 있었던 청년층과 여러 번 NEET 상태에 빠져 있던 청년층의 2006년 노동시장 상황을 NEET 탈출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²⁵⁾ 이 모든 분석에는 KLIPS 5차 자료(2002년)부터 9차(2006년)까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먼저 2002년에서 2005년 중 NEET 상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과 동 기간 중 NEET를 한 번 경험한 청년층 간의 2006년 중 주요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면 <표 VI-8>과 같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 통계 비교시 두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NEET 경험 비율은 그간 NEET 경험이 없었던 청년층의 경우 0.9%에 불과한 반면, NEET 1회 경험자의 경우 그 비율이 12.7%에 달한다. 취업률의 경우에도 각각 68.8%와 59.3%로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취업자의 임금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 NEET 미경험자의 월평균임금은 196.7만원으로 NEET 1회 경험자의 148.0만원에 비해 30% 이상 높다.

25) 취업 여부, 취업시의 임금 수준 등 다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은 관측치가 너무 적어 생략하였다. 그러나 참고로 기초통계를 비교하면, 취업률의 경우 NEET 1회 경험 청년층 59.3%(118명 중 70명), 2회 경험 청년층 57.7%(52명 중 30명), 3회 경험 청년층 16.3%(33명 중 6명)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은 NEET 1회 경험 청년층 148.0만원(70명), 2회 경험 청년층 119.7만원(30명), 3회 경험 청년층 117.8만원(6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VI-8> 2006년 중 NEET 비율, 취업률, 임금수준 비교

	NEET 비율(%)	취업률(%)	월평균임금(만원)
NEET 미경험자	0.9	68.8	196.7
NEET 1회 경험자	12.7	59.3	148.0

이제 이러한 차이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6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종속변수가 NEET 여부 및 취업 여부인 경우에는 로짓모형을, 임금수준인 경우에는 OLS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NEET 경험 여부(무경험이 기준이며 1회 경험자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정)와 더불어 연령, 남성 여부 및 기혼 여부 더미변수, 학력 더미변수(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대학졸업 이상자 각각에 대해 더미변수를 설정),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더미변수(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는 1, 나머지는 0으로 처리), 가구의 월평균소득(만원 단위), 직업훈련 경험(6년간의 직업훈련을 경험한 연수), 자격증 취득 여부(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2종 보통 일반 운전면허는 제외)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연수)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VI-9>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9>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 및 OLS 모형(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에 사용된 변수들
의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NEET 1년	0.0728	0.2599
NEET 경험 무	0.9272	0.2599
취업경험 유	0.8149	0.3885
연령(세)	28.9247	3.8052
성별	0.4436	0.4970
기혼	0.7162	0.4510
고졸	0.5293	0.4993
전문대졸	0.2190	0.4137
대졸 이상	0.2517	0.4341
아버지 직업	0.0828	0.2756
월평균 가구소득(원)	3,099,076	2,381,968
직업훈련	0.5262	0.9725
자격증	0.1141	0.3767
NEET	0.0179	0.1326
취업 여부	0.6811	0.4662
로그 월평균임금	5.1068	0.5458
N	1,621 (아버지 직업 포함시: 1,438, 로그 월평균임금 포함시: 1,059)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VI-10>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선 NEET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NEET를 1회 경험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4년 중에 NEET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06년에 NEET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10배 정도 높은 것이다. 앞서의 분석에서 NEET를 한 번 경험한 집단의 경우 일회성으로 NEET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는 또 다시 NEET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밖에 2006년에 NEET 상태에 빠질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기혼 여부와 학력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 NEET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20% 수준에 불과하며, 학력별로 보면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에는 NEET 경험 가능성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NEET 경험 가능성이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생과 비교할 때 30%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VI-11>에 나타나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2002년에서 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간의 2006년 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NEET 1회 경험 청년층의 취업 가능성은 NEET 미경험 청년층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밖에 과거에 취업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또 남자와 미혼자의 경우 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또 학력별로 보면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에는 취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취업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1.8배 정도 높다. 가정 배경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취업 가능성이 낮아짐이 특징적인데, 이는 취업의 눈높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직업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도 취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증 취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I-10>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상수항	-4.317** (1.886)	
NEET 1년더미	2.362*** (0.461)	10.614
취업경험 유	0.601 (0.786)	1.824
연령	0.009 (0.062)	1.009
성별	-0.238 (0.489)	0.789
기혼	-1.586*** (0.567)	0.205
전문대졸	-0.739 (0.593)	0.477
대졸 이상	-1.142* (0.693)	0.319
아버지 직업	0.801 (0.710)	2.228
월평균 가구소득	3.93e-08 (8.05e-08)	1.000
직업훈련더미	-0.222 (0.323)	0.801
자격증더미	0.266 (0.530)	1.305
N	1,438	
χ^2	56.68***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VI-11> 2006년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상수항	-4.011*** (0.666)	
NEET 1년더미	-1.201*** (0.270)	0.301
취업경험 유	2.930*** (0.225)	18.722
연령	0.086*** (0.023)	1.090
성별	1.389*** (0.177)	4.012
기혼	-1.093*** (0.208)	0.335
전문대졸	0.204 (0.190)	1.227
대졸 이상	0.578*** (0.213)	1.783
아버지 직업	-0.618** (0.279)	0.539
월평균 가구소득	2.32e-08 (3.26e-08)	1.000
직업훈련더미	0.492*** (0.113)	1.636
자격증더미	0.344 (0.246)	1.410
N	1,438	
χ^2	665.88***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임금함수 추정 결과는 <표 VI-12>에 제시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임금함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들이 통제될 경우에도 NEET 경험 여부가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EET 1회 경험

자의 경우 미경험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약 10.7%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다른 설명변수들의 경우 통상적인 임금함수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VI-12> 2006년 취업자의 임금함수 추정(2002년~2005년 중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미경험 청년층 대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4.079***	0.159
NEET 1년더미	-0.114*	0.060
취업경험 유	0.382***	0.095
연령	0.007	0.004
성별	0.415***	0.031
기혼	0.121***	0.034
전문대졸	0.115***	0.037
대졸 이상	0.334***	0.034
N	1,069	
Adj-R2	0.2771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제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NEET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NEET 경험 횟수에 따라 2006년에 다시 NEET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표 VI-13>을 보면, 2002년에서 2005년 중 NEET 상태를 1회 경험한 청년층 중 2006년에 다시 NEET 상태에 빠진 청년층의 비율은 12.7%에 불과한 반면 NEET를 2회 경험한 청년층 중 그 비율은 26.9%로 크게 높아지며, 특히 NEET를 3회 이상 경험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13> 2006년 중 NEET 경험자의 비율

(단위: 명(%))

	비NEET	NEET	계
NEET 1회 경험자	103(87.3)	15(12.7)	118(100.0)
NEET 2회 경험자	38(73.1)	14(26.9)	52(100.0)
NEET 3회 이상 경험자	15(45.5)	18(54.6)	33(100.0)

이제 2006년의 NEET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2002년부터 2005년 중 NEET 경험 정도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짓모형을 추정해 보자. 설명변수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NEET 경험 횟수(1회를 기준으로 2회와 3회 이상 각각을 더미변수로 설정)와 더불어 앞의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VI-14>에 제시되어 있으며 추정 결과는 <표 VI-15>에 나타나 있는데, 주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NEET 1회 경험자와 2회 경험자 간에 2006년에 NEET가 될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NEET 3회 이상 경험자와 이들 두 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NEET 3회 이상 경험 청년층의 경우 2006년에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무려 5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는 NEET를 한두 번 경험한 집단이 아니라 그 이상 경험한 집단의 경우 NEET 상태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정책의 주 대상도 이들 집단에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과거의 취업경험 여부가 NEET 상태에서의 탈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NEET를 경험한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던 청년층의 경우 다시 NEET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거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NEET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일단 취업을 경험하게 유도하는 것이 NEET 상태로의 고착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일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그밖에 일단 NEET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또 고졸 저학력자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NEET에서 탈출하기 용이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기혼자의 경우 다시 NEET가 될 가능성이 미혼자의 6% 수준에 불과하며, 전문대학 졸업자는 고졸자의 28% 수준, 대졸 이상자는 고졸자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NEET 경험자 중에서도 미혼 저학력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NEET 경험자의 경우 성별 차이나 가구 배경의 차이가 NEET 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가 하면, 직업훈련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가 NEET 경험 횟수에 별다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취업의지의 표현이라면, NEET 경험 횟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석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취업능력(employability) 제고에 기여한다면, 이 역시 NEET 경험 횟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 주고 있지 않다. 추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취업의지만으로 NEET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이 취업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표 VI-14>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경험 청년층 대상)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NEET 1회	0.0692	0.2538
NEET 2회	0.0305	0.1720
NEET 3회 이상	0.0193	0.1378
NEET 경험 무	0.8810	0.3239
취업경험 유	0.8001	0.4000
취업경험 무	0.1999	0.4000
연령	28.7913	3.8477
성별	0.4426	0.4968
기혼	0.6887	0.4631
고졸	0.5264	0.4995
전문대졸	0.2198	0.4142
대졸 이상	0.2538	0.4353
아버지 직업	0.0859	0.2803
월평균 가구소득	3,089,667.84	2,534,766.57
직업훈련	0.5141	0.9566
자격증	0.1149	0.3779
N	1,706 (아버지 직업: 1,502)	

<표 VI-15> 2006년 NEET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2002년~2005년 중
NEET 경험 청년층 대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상수항	1.792 (1.826)	
NEET 2회	0.715 (0.565)	2.044
NEET 3회 이상	1.611** (0.693)	5.009
취업경험 유	-1.492** (0.587)	0.225
연령	-0.040 (0.063)	0.961
성별	-0.212 (0.519)	0.809
기혼	-2.774** (1.075)	0.062
전문대졸	-1.262* (0.703)	0.283
대졸 이상	-1.833*** (0.688)	0.160
아버지 직업	0.906 (0.759)	2.474
월평균 가구소득	-1.38e-07 (1.43e-07)	1.000
직업훈련	-0.261 (0.501)	0.770
자격증	0.347 (0.542)	1.414
N	163	
χ^2	63.70***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제4절 NEET 경험 정도에 따른 특성 차이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우리는 NEET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과 NEET를 경험한 청년층 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나 노동시장 성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EET 경험 청년층 중에서도 NEET를 한두 번 경험한 청년층과 NEET를 3회 이상 경험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청년층을 NEET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NEET 미경험 그룹과 한두 번의 NEET 경험 그룹, 3회 이상의 NEET 경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그룹 간에 인적 특성이나 가구 배경 등 여러 특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앞서 사용되었던 주요 변수들(연령, 성, 혼인 상태, 학력, 아버지의 직업, 가구소득,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취득 등)을 설명변수로 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NEET 경험 여부 및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종속변수의 범주는 NEET 경험 없음, NEET 1회 경험, NEET 2회 경험, NEET 3회 이상 경험 등 네 개인데, 그중 NEET 1회 경험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다항로짓 분석 결과는 <표 VI-1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NEET 1회 경험 청년층과 NEET 2회 경험 청년층 간에는 별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가 고려한 변수들의 범위 내에서 두 집단은 거의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EET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NEET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 간에는 뚜렷한 특성의 차이가 확인된다. 나이가 많거나 기혼자의 경우, 또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NEET 경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NEET를 한 번 경험한 청년층과 NEET를 3번 이상 경험한 청년층 간에도 인적 속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남자이거나 기혼자의 경우 NEET를 3회 이상 경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 또 특징

적인 것은,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직업훈련 경험이 많을수록 NEET를 3회 이상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표 VI-16> NEET 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NEET 2회 경험/ NEET 1회 경험	상수항	0.021 (1.438)	
	연령	-0.035 (0.057)	0.966
	성별	-0.125 (0.418)	0.882
	기혼	-0.609 (0.472)	0.544
	전문대졸	0.187 (0.474)	1.206
	대졸 이상	0.594 (0.487)	1.811
	아버지 직업	0.061 (0.616)	1.063
	가구소득	2.65e-08 (1.15e-07)	1.000
	직업훈련	-0.001 (0.254)	0.999
	자격증	-0.075 (0.479)	0.928
NEET 3회 이상 경험/ NEET 1회 경험	상수항	-1.386 (1.799)	
	연령	0.053 (0.067)	1.054
	성별	-1.337** (0.542)	0.263
	기혼	-2.264*** (0.808)	0.104

<표 계속>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드비
NEET 3회 이상 경험/ NEET 1회 경험	전문대졸	-0.635 (0.722)	0.530
	대졸 이상	0.673 (0.591)	1.960
	아버지 직업	1.097 (0.691)	2.995
	가구소득	-2.37e-07 (1.78e-07)	1.000
	직업훈련	-1.265* (0.671)	0.282
	자격증	0.774 (0.601)	2.168
NEET 미경험 / NEET 1회 경험	상수항	-1.006 (0.825)	
	연령	0.089*** (0.031)	1.093
	성별	-0.364 (0.238)	0.695
	기혼	1.422*** (0.245)	4.145
	전문대졸	0.082 (0.271)	1.085
	대졸 이상	-0.190 (0.290)	0.827
	아버지 직업	-0.487 (0.377)	0.615
	가구소득	1.80e-07** (6.98e-08)	1.000
	직업훈련	0.230 (0.146)	1.258
	자격증	-0.245 (0.282)	0.783
N		1,502	
χ^2		205.28***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제5절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측면에서 NEET는 취업자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취업자의 대다수가 1년 뒤에도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는 반면, NEET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1/3 수준에 불과했고 1/3 이상이 여전히 NEET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뒤에도 NEET 상태에 있는 비율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NEET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년 뒤에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은 실업자의 경우보다 NEET가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기간 NEET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면 3/4은 NEET 상태에서 탈출한다. 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세 달 안에 NEET 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NEET 경험자 중 15% 내외는 NEET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NEET 상태를 한 번만 경험한 청년층과 NEET 상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 간에 NEET (재)진입 여부, 취업 여부, 취업시의 임금수준 등으로 파악된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NEET를 한 번만 경험했다고 해도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다시 NEET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취업시의 임금수준도 낮다.

넷째, NEET 1회 경험자와 2회 경험자 간에는 NEET 재진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NEET 3회 이상 경험자는 이들 두 집단에 비해 NEET 재진입 가능성이 무려 5배 정도 높았다.

다섯째, NEET를 경험하지 않은 그룹과 NEET를 한두 번 경험한 그룹 간에는 인적 속성 등의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며, 마찬가지로 NEET를 3번 이상 경험한 그룹과 NEET를 한두 번 경험한 그룹 간에도 뚜렷한 특성 차이가 발견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NEET를 한두 번 경험한 집단이 아니라 그

이상 경험한 집단이 정책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NEET를 한두 번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나 실업자에 비해 훨씬 문제성이 많은 집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 정책 운영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제 7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우리는 좁은 의미의 NEET를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정의 1). 실업자를 NEET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종래의 청년 실업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 미혼 ‘가사’ 종사자의 경우 NEET 계층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NEET에 포함하는 형태로 개념 확대를 시도해 보았다(정의 2). 끝으로 기존 경찰 자료의 한계 내에서 시계열 자료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NEET의 정의를 보다 확대하기도 하였다(정의 3=정의 2+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취업준비’+‘진학준비’+‘군입대 대기’+‘결혼준비’+‘기타’인 사람). 연령층은 기본적으로 청년층인 15~29세에 국한시켰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34세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의 1>과 <정의 2>에 기초할 경우 2007년 NEET의 규모는 25만~30만명 수준(전체 인구의 2~3%)으로 동일 연령대의 실업자 수 30만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NEET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NEET의 특성을 실업자와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NEET는 실업자에 비해 보다 저학력, 저연령,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노동시장 경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계열 분석 결과, 유휴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GDP 증감률이며 그 효과도 지속적이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유휴청년층 규모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 3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경우 유휴청년은 감소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넷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충격 시 남성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휴청년이 증가하나 이러한 효과는 4분기 이후 대부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2분기까지 유휴청년층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음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청년실업자의 증가는 유휴청년을 감소시키며, 그 영향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여, 청년취업의 증가가 유휴청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보면, 유휴청년과 청년실업 간의 상태이동이 보다 지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휴청년의 증가충격은 충격발생 후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이유로 경제 내에 유휴청년층이 한 번 형성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지속적으로 존속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인적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NEET는 20대 초반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졸 미혼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든 과거든 가구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할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장기 가정형편을 통제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NEET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경험, 학교성적, 혼자 학습한 시간 등은 모두 NEET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혼자서 공부한 시간

의 효과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컸다. 한편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문화활동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청년층의 NEET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을수록 니트 경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여섯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청년 NEET들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본 결과, 개인유지와 관련된 필수생활시간이 전체 청년인구의 그것보다 길었으며, 이 중 특히 청년 NEET들의 수면시간은 해당 연령대는 물론 15세 이상 70세 이하 전 연령대의 평균 수면시간보다 길었다. 청년 NEET의 경우 교제 및 여가시간도 전체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이 중 특히 길었던 행동유형은 TV시청과 컴퓨터 게임 시간으로 전체 청년인구 평균보다 1시간 이상 길게 나타났다. 한편 생활시간에 대한 요일별 분석에서는 NEET 청년들의 경우 평일과 휴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 청년 NEET들은 교제활동 중에서도 교제 관련 전화통화,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 시간 등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제 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미디어 이용실태에서도 TV시청 시간, 인터넷 정보검색 시간 등 홀로 하는 활동 시간이 길었고, 식사시간의 경우도 혼자 하는 식사시간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보다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측면에서 NEET는 취업자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취업자의 대다수가 1년 뒤에도 여전히 취업 상태에 있는 반면, NEET의 경우 1/3 이상이 여전히 NEET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뒤에도 NEET 상태에 있는 비율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NEET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은 NEET의 경우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실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50% 수준에 달했다.

여덟째, 장기간 NEET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면 3/4은 NEET 상태에서 탈출한다. 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세 달 안에 NEET 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NEET 경험자 중 15% 내외는 NEET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아홉째, NEET를 한 번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NEET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다시 NEET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취업시의 임금수준도 낮았다. 또 NEET 1회 경험자와 2회 경험자 간에는 NEET 재진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NEET 3회 이상 경험자는 이들 두 집단에 비해 NEET 재진입 가능성이 무려 5배 정도 높았다.

제2절 정책제언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NEET 청년층이 실업자 집단에 비해 더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NEET 층이 실업자들에 비해 취업 등으로의 이동이 더 곤란하고,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이 유휴청년층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만으로는 청년층의 취업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NEET 청년층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NEET 청년층은 일반 청년층에 비해 특성이 크게 다르고, 생활실태도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들 특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같은 NEET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특히 어려운 층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들 NEET(Hard-core NEET)가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NEET 파악 및 추적

NEET 감소를 위한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NEET이며

NEET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실업자를 제외한 NEET의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의 Work-net 등)만으로 누가 NEET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또 정부가 금전적 지원책을 포함하는 NEET 지원 특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의상 NEET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은 일반 실업자 대상 정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이다. NEET 청년들이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서 보내는 생활시간이 많다는 분석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금전적 지원의 크기에 따라 자신을 노출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당장 대폭적인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할 경우 금전적 지원만으로 NEET의 식별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NEET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싶어도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경우 NEET 대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NEET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만 한다.

현 상황에서는 NEET의 파악과 추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비진학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인 추적·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미취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추적·상담하며, 이들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실업자훈련 참여자에 대해 훈련 수료 후 6개월간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을 현재보다 더 늘리고, 훈련 중도탈락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추적·상담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일정기간의 추적·상담 이후에도 여전히 NEET로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고용안정센터에서 계속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청년들을 고용안정센터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²⁶⁾

26)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16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나 훈련기관 등에서 중도탈락할 경우 이들에

또한 이렇게 개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수집된, NEET화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 수합될 수 있어야 하며, 이 리스트를 토대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또는 주기적으로 NEET 위험 청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 등의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패널 형태의 조사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 NEET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NEET에 대한 직접 접촉을 통해 질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는 NEET층이 확정되고, 이들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맞춤형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수합되거나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NEET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중 NEET 비율 및 NEET 규모 등을 파악하고 매년 목표 NEET 비율 및 규모를 설정한 후,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통해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2.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제공

정책 지원 대상과 그들의 특성이 파악되면, 이들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대책이 요청된다. 청년 개개인별로 심층 상담을 통해 이들이 NEET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 또는 NEET 상태에서 경제활동상태로의 전환이나 교육·훈련 참여를 제약하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여 그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이들의 생활 패턴이 일반적인 청년들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 지원 서비스의 제공시에 이들의 접촉 빈도가 높은 TV, 인터넷 등의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선택(informed choices)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게 커넥션즈(Connexions, 13~19세의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발달의 기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조언, 지도 및 접근에 관련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도록 해당 학교나 훈련기관이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취업의욕이나 능력개발의욕이 부진한 경우에는 관련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의상 NEET는 취업의욕이나 능력개발의욕이 일반적인 실업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E2E (Entry to Employment) 프로그램이 참조될 수 있다. 특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저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E2E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동기유발, 자신감 회복, 개인적 효능감 배양, 핵심기초능력의 숙달 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 교육을 마친 이후 추가적인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된다.

취업의욕이 고취되었다면, 이제는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의 배양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의 특성상 통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용도 실무 위주의 현장중심적인 도제 형태의 교육훈련으로 채워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취업알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적절한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없이 NEET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담 및 교육훈련 기간 중 생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수당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수당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영국처럼 'Activity Agreement'를 추진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층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기개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적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자기개발 계획에는 교육훈련 참여, 적극적 구직활동,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 등을 적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고용안정센터와 더불어, 민간의 활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취약

청소년 지원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NGO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부에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때 충실한 상담기능의 제공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그 주된 지원 대상을 정책 지원이 꼭 필요한 핵심 NEET 계층에 맞추고, 참여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으로, ‘Activity Agreement’를 마련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강화

NEET 청년층의 감소는 노동부만의 정책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EET 위험성이 높은 청년층의 파악 단계부터 학교나 훈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취약청소년을 지원하는 NGO 등 사회단체와의 협력도 요청된다. 또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부나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정책 협력도 필요하다. NEET 청년층 중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 중 하나가 전과경력 등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운 청년층일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나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NGO 역시 NEET 정책 수립의 주요 축을 담당해야만 한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다양한 정부부처와 교육 및 훈련기관, NGO, 지자체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된 NEET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4. NEET 발생의 예방노력 강화

NEET가 이미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NEET 발

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효과성도 높지 않은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NEET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특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의 축적을 전제로 NEET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해 NEET로의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EET화 가능성 정도를 보여주는 가칭 NEET 위험성지수 등의 개발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나 학업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실태, 친구관계 등등을 조합하여 NEET 위험성지수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 록>

<부표 Ⅱ-1> 지난 1주간 주된 활동(2007, 경황)

(단위: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일하였음	22,412,651	-	13,843 (0.09)	22,426,494
일시휴직	288,443	-	-	288,443
구직활동	3,108	665,002	4,152 (0.03)	672,262
발령대기	187	3,225	6,521 (0.04)	9,933
육아	56,271	3,245	1,498,197 (9.99)	1,557,713
가사	292,816	17,239	5,353,564 (35.68)	5,663,620
정규교육기관 통학	191,493	9,881	3,859,490 (25.72)	4,060,863
입시학원 통학	1,047	-	74,083 (0.49)	75,13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5,368	2,415	221,446 (1.48)	229,229
취업준비	14,592	10,839	334,997 (2.23)	360,428
진학준비	8,151	341	137,224 (0.91)	145,716
연로	18,651	229	1,442,254 (9.61)	1,461,133
심신장애	3,570	-	447,417 (2.98)	450,987
군입대 대기	1,861	762	51,481 (0.34)	54,104
결혼준비	299	-	9,763 (0.07)	10,062
쉬었음	112,993	18,729	1,339,330 (8.93)	1,471,051
기타	21,257	1,223	210,308 (1.40)	232,787
전체	23,432,757	733,129	15,004,069 (100.00)	39,169,955

<부표 II-2> 니트와 실업자의 인적 속성 비교: 30~34세 포함(2007, 경활)

(단위: 명(%))

		니트			실업자
		<정의 1>	<정의 2>	<정의 3>	
가家主와의 관계	가家主	45,182 (13.29)	63,075 (15.69)	111,044 (11.67)	93,560 (23.04)
	배우자	10,381 (3.05)	10,381 (2.58)	20,186 (2.12)	19,036 (4.69)
	미혼자녀	246,839 (72.62)	284,211 (70.71)	728,959 (76.58)	252,416 (62.17)
	기혼자녀	8,820 (2.59)	8,820 (2.19)	14,812 (1.56)	7,428 (1.83)
	그 외	28,665 (8.43)	35,475 (8.83)	76,850 (8.07)	33,586 (8.27)
성	남자	211,507 (62.23)	220,042 (54.74)	560,809 (58.92)	258,539 (63.68)
	여자	128,380 (37.77)	181,920 (45.26)	391,043 (41.08)	147,486 (36.32)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328 (9.22)	38,079 (9.47)	55,530 (5.83)	19,824 (4.88)
	고졸	209,937 (61.77)	246,325 (61.28)	503,245 (52.87)	205,366 (50.58)
	전문대졸	51,104 (15.04)	63,513 (15.80)	135,840 (14.27)	92,304 (22.73)
	대졸 이상	47,518 (13.98)	54,045 (13.45)	257,237 (27.02)	88,532 (21.80)
혼인상태	미혼	303,178 (89.20)	365,253 (90.87)	889,657 (93.47)	348,479 (85.83)
	유배우, 사별, 이혼	36,709 (10.80)	36,709 (9.13)	62,194 (6.53)	57,546 (14.17)
전체		339,887 (100.00)	401,962 (100.00)	951,851 (100.00)	406,025 (100.00)

<부표 Ⅱ-3> 니트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경험 비교: 30~34세 포함(2007, 경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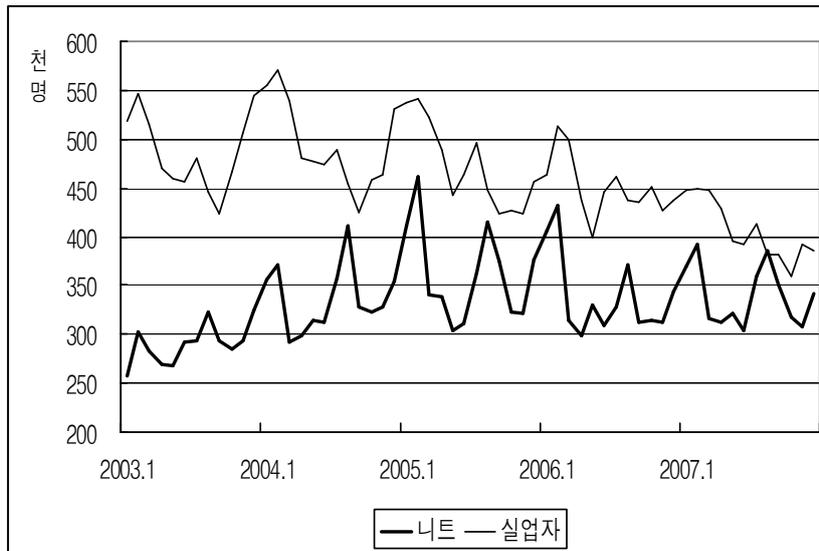
		니트			실업자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없었음	53,593 (15.77)	60,259 (14.99)	218,733 (22.98)	37,714 (9.29)
	1년 이상	105,117 (30.93)	139,879 (34.80)	349,049 (36.67)	94,573 (23.29)
	1년 미만	181,177 (53.31)	201,824 (50.21)	384,069 (40.35)	273,738 (67.42)
전체		339,887 (100.00)	401,962 (100.00)	951,851 (100.00)	406,025 (100.00)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 가족 관련 이유	79,371 (43.81)	91,240 (45.21)	208,812 (54.37)	61,795 (22.57)
	육아	226 (0.12)	226 (0.11)	337 (0.09)	602 (0.22)
	가사	192 (0.11)	314 (0.16)	314 (0.08)	153 (0.06)
	심신장애	1,906 (1.05)	1,906 (0.94)	2,006 (0.52)	702 (0.26)
	정년퇴직, 연로	269 (0.15)	269 (0.13)	269 (0.07)	-
	작업여건 불만족	51,814 (28.60)	58,084 (28.78)	92,562 (24.10)	137,083 (50.08)
	직장 휴폐업	4,525 (2.50)	5,039 (2.50)	8,287 (2.16)	12,988 (4.74)
	명퇴, 정리해고	1,936 (1.07)	2,110 (1.05)	5,686 (1.48)	7,775 (2.84)
	입시, 계절적 일의 완료	16,129 (8.90)	16,945 (8.40)	28,551 (7.43)	22,266 (8.13)
	일거리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	22,232 (12.27)	23,117 (11.45)	30,481 (7.94)	27,882 (10.19)
기타	2,575 (1.42)	2,575 (1.28)	6,766 (1.76)	2,492 (0.91)	
직장 그만 둔 지 1년 미만		181,177 (100.00)	201,824 (100.00)	384,069 (100.00)	273,738 (100.00)

<부표 Ⅱ-4> 연도별 니트 규모 추세: 30~34세 포함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니트	<정의 1>	290,256 (1.97)	337,208 (2.32)	361,721 (2.55)	339,283 (2.43)	339,887 (2.47)
	<정의 2>	388,272 (2.63)	440,012 (3.03)	423,674 (2.99)	399,839 (2.87)	401,962 (2.92)
	<정의 3>	835,151 (5.66)	885,910 (6.11)	922,609 (6.51)	936,631 (6.72)	951,851 (6.90)
실업자		486,039 (3.29)	493,042 (3.40)	472,549 (3.34)	450,760 (3.23)	406,025 (2.94)
전체 인구		14,759,193 (100.00)	14,503,763 (100.00)	14,162,367 (100.00)	13,939,047 (100.00)	13,788,381 (100.00)

[부록그림 Ⅱ-1] 니트와 실업자 규모의 시계열 추이: 30~34세 포함



<부표 II-5> 연도별 니트의 인적 속성 추세: 30~34세 포함(<정의 1>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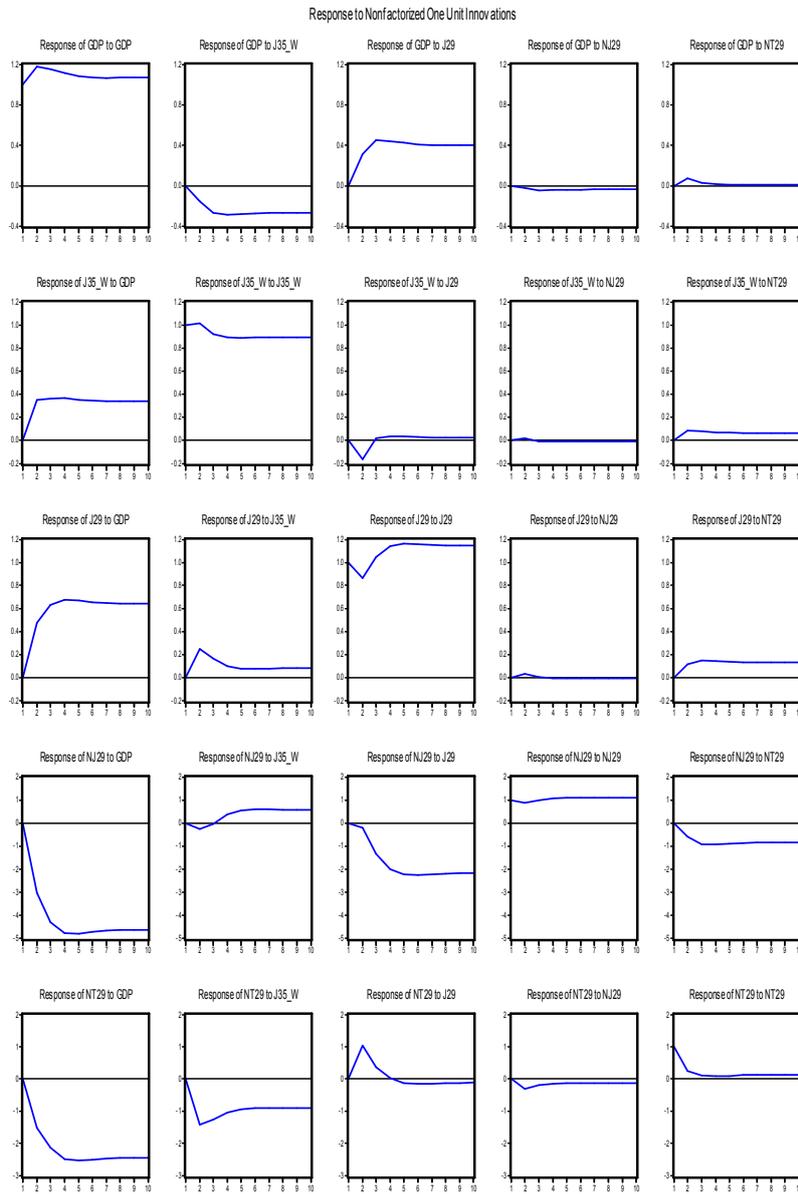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8,229 (16.62)	53,372 (15.83)	50,186 (13.87)	44,432 (13.10)	45,182 (13.29)
	배우자	7,232 (2.49)	6,899 (2.05)	8,040 (2.22)	8,553 (2.52)	10,381 (3.05)
	미혼자녀	202,910 (69.91)	241,794 (71.70)	260,107 (71.91)	246,798 (72.74)	246,839 (72.62)
	기혼자녀	5,238 (1.80)	4,161 (1.23)	8,205 (2.27)	8,439 (2.49)	8,820 (2.59)
	그 외	26,647 (9.18)	30,982 (9.19)	35,183 (9.73)	31,060 (9.15)	28,665 (8.43)
성	남자	191,745 (66.06)	220,857 (65.50)	220,940 (61.08)	209,218 (61.66)	211,507 (62.23)
	여자	98,510 (33.94)	116,351 (34.50)	140,781 (38.92)	130,065 (38.34)	128,380 (37.77)
연령	15~19	30,874 (10.64)	33,175 (9.84)	37,737 (10.43)	33,498 (9.87)	29,957 (8.81)
	20~24	116,572 (40.16)	143,420 (42.53)	150,031 (41.48)	127,959 (37.71)	109,838 (32.32)
	25~29	83,006 (28.60)	87,393 (25.92)	96,536 (26.69)	104,327 (30.75)	111,915 (32.93)
	30~34	59,804 (20.60)	73,219 (21.71)	77,418 (21.40)	73,499 (21.66)	88,177 (25.94)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079 (9.67)	32,448 (9.62)	33,973 (9.39)	32,669 (9.63)	31,328 (9.22)
	고졸	197,889 (68.18)	222,496 (65.98)	233,734 (64.62)	212,661 (62.68)	209,937 (61.77)
	전문대졸	32,883 (11.33)	43,869 (13.01)	54,447 (15.05)	54,208 (15.98)	51,104 (15.04)
	대졸 이상	31,404 (10.82)	38,395 (11.39)	39,567 (10.94)	39,746 (11.71)	47,518 (13.98)
혼인상태	미혼	257,150 (88.59)	304,893 (90.42)	324,951 (89.83)	304,311 (89.69)	303,178 (89.20)
	유배우, 사별, 이혼	33,106 (11.41)	32,315 (9.58)	36,771 (10.17)	34,972 (10.31)	36,709 (10.80)
전체		290,256 (100.00)	337,208 (100.00)	361,721 (100.00)	339,283 (100.00)	339,887 (100.00)

<부표 II-6> 연도별 니트의 노동시장 경험 추세: 30~34세 포함(<정의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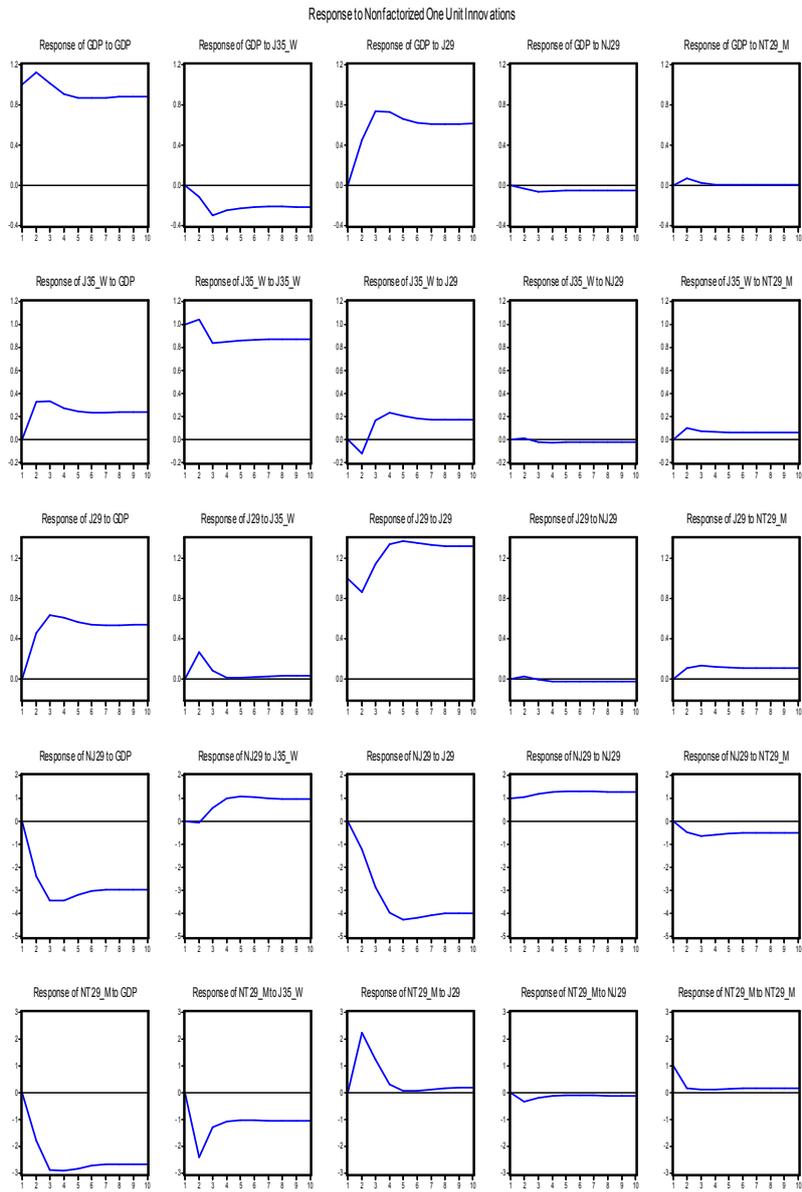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없었음	55,881 (19.25)	52,224 (15.49)	59,357 (16.41)	54,169 (15.97)	53,593 (15.77)
	1년 이상	64,199 (22.12)	84,435 (25.04)	94,981 (26.26)	99,978 (29.47)	105,117 (30.93)
	1년 미만	170,176 (58.63)	200,549 (59.47)	207,384 (57.33)	185,136 (54.57)	181,177 (53.31)
전체		290,256 (100.00)	337,208 (100.00)	361,721 (100.00)	339,283 (100.00)	339,887 (100.00)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 가족 관련 이유	84,648 (49.74)	98,834 (49.28)	88,040 (42.45)	87,263 (47.13)	79,371 (43.81)
	육아	423 (0.25)	271 (0.13)	183 (0.09)	716 (0.39)	226 (0.12)
	가사			-	-	192 (0.11)
	심신장애			966 (0.47)	1,987 (1.07)	1,906 (1.05)
	정년퇴직, 연로	53 (0.03)	-	137 (0.07)	-	269 (0.15)
	작업여건 불만족	42,452 (24.95)	48,654 (24.26)	57,627 (27.79)	52,745 (28.49)	51,814 (28.60)
	직장 휴폐업	5,296 (3.11)	6,214 (3.10)	4,176 (2.01)	4,847 (2.62)	4,525 (2.50)
	명퇴, 정리해고	2,054 (1.21)	4,428 (2.21)	5,995 (2.89)	3,737 (2.02)	1,936 (1.07)
	임시, 계절적 일의 완료	12,143 (7.14)	15,146 (7.55)	16,247 (7.83)	11,581 (6.26)	16,129 (8.90)
	일거리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	19,277 (11.33)	25,220 (12.58)	30,140 (14.53)	19,842 (10.72)	22,232 (12.27)
	기타	3,829 (2.25)	1,784 (0.89)	3,872 (1.87)	2,416 (1.31)	2,575 (1.42)
직장 그만둔 지 1년 미만		170,176 (100.00)	200,549 (100.00)	207,384 (100.00)	185,136 (100.00)	181,177 (5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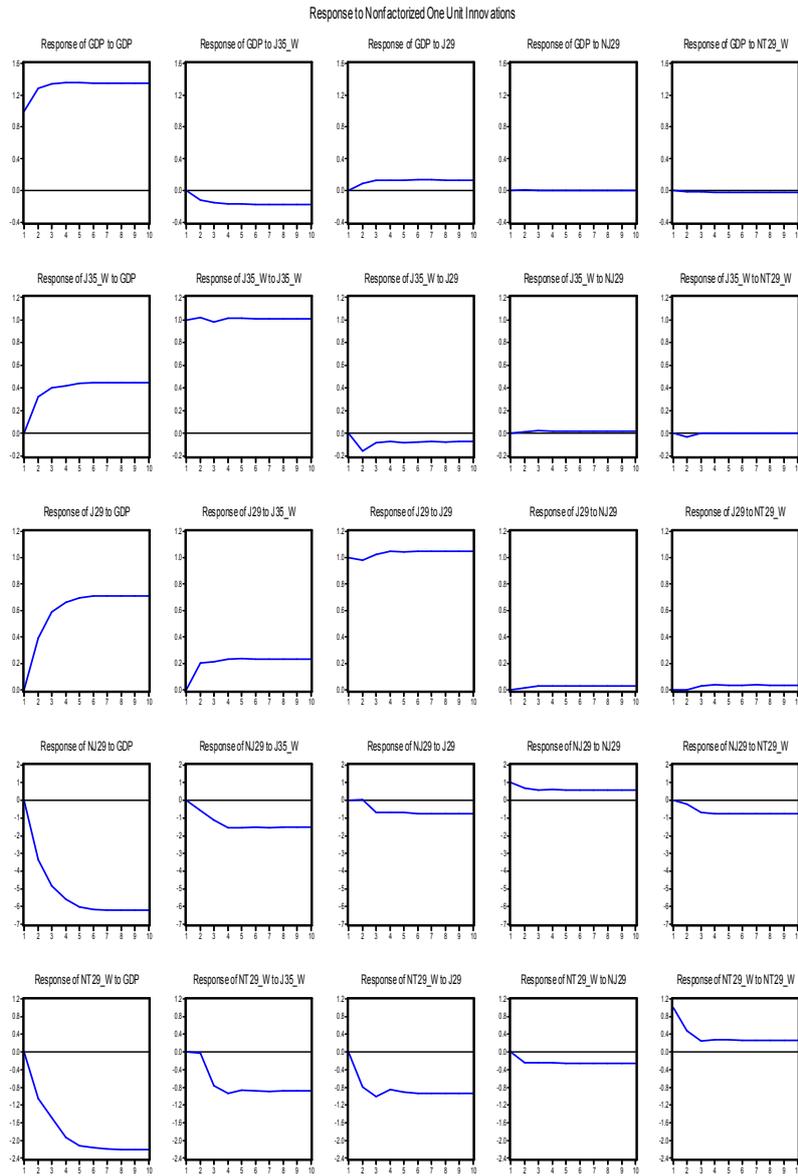
[부록그림 III-1] 충격반응함수-모델 1(GDP J35_W J29 NJ29 NT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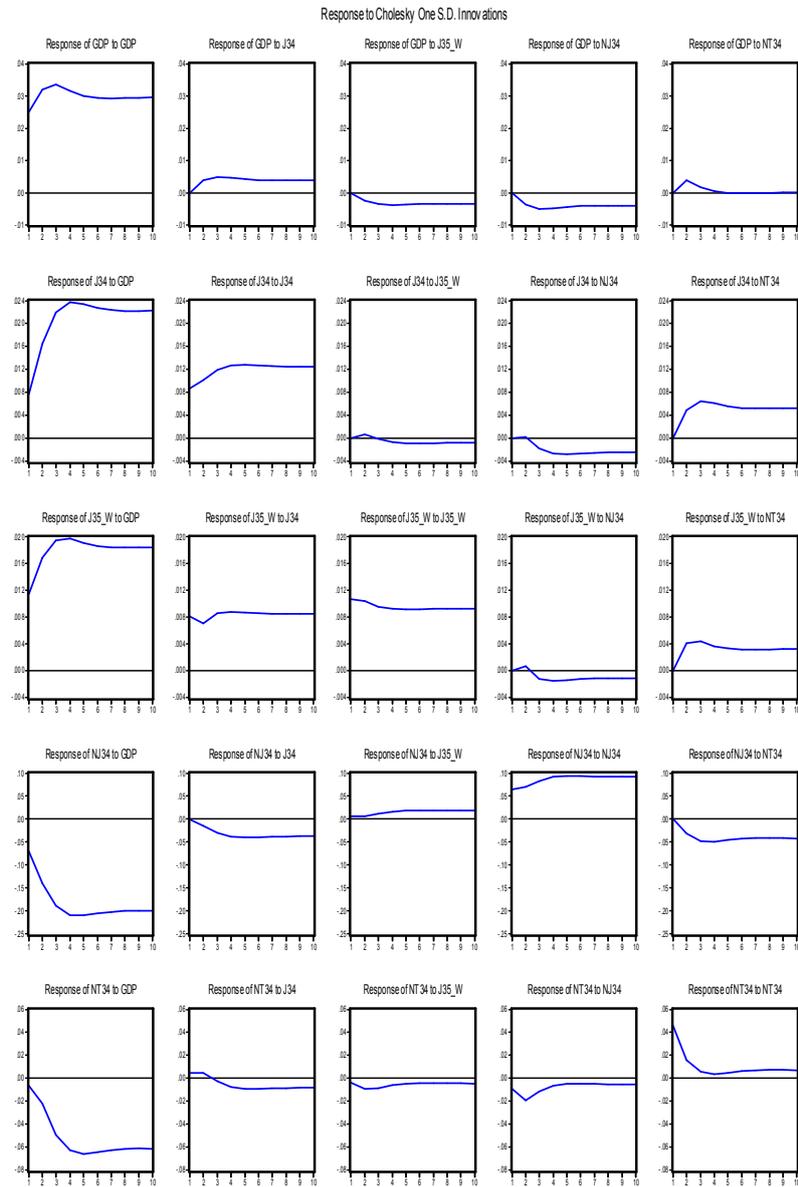
[부록그림 III-2] 충격반응함수-모델 2(GDP J35_W J29 NJ29 NT29_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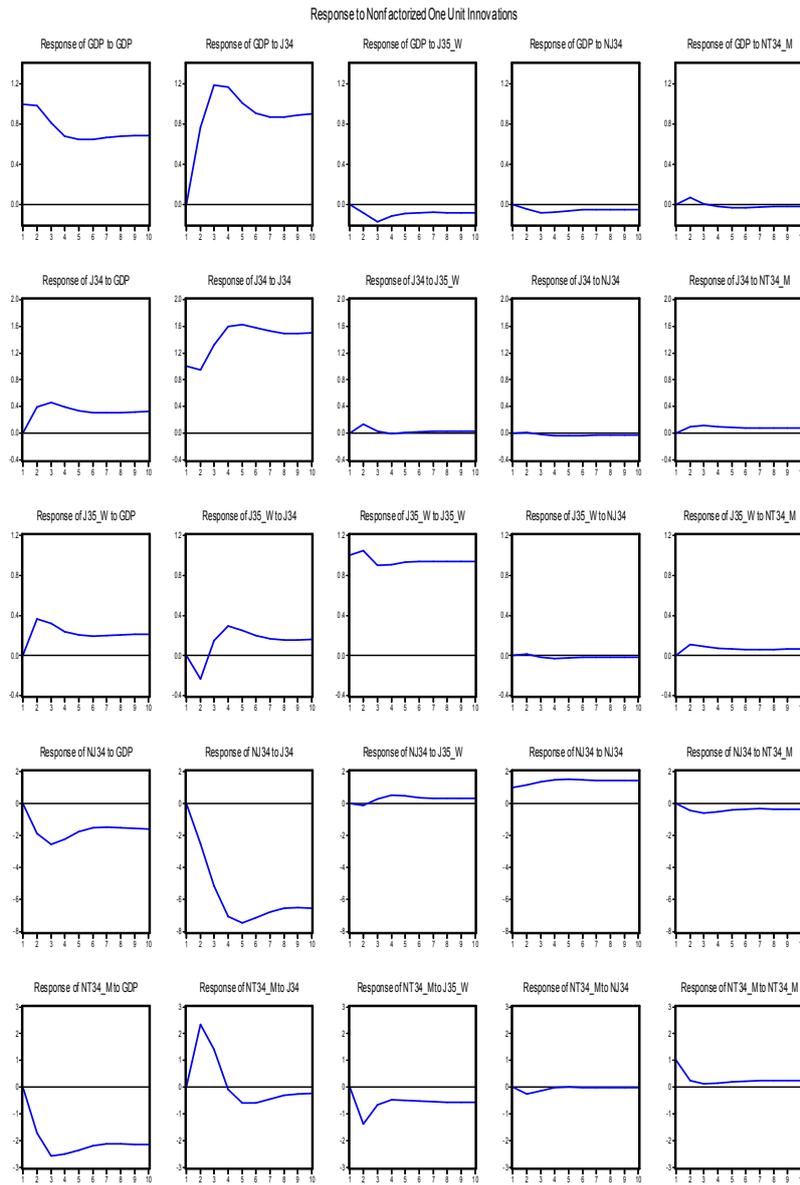
[부록그림 III-3] 충격반응함수-모델 3(GDP J35_W J29 NJ29 NT29_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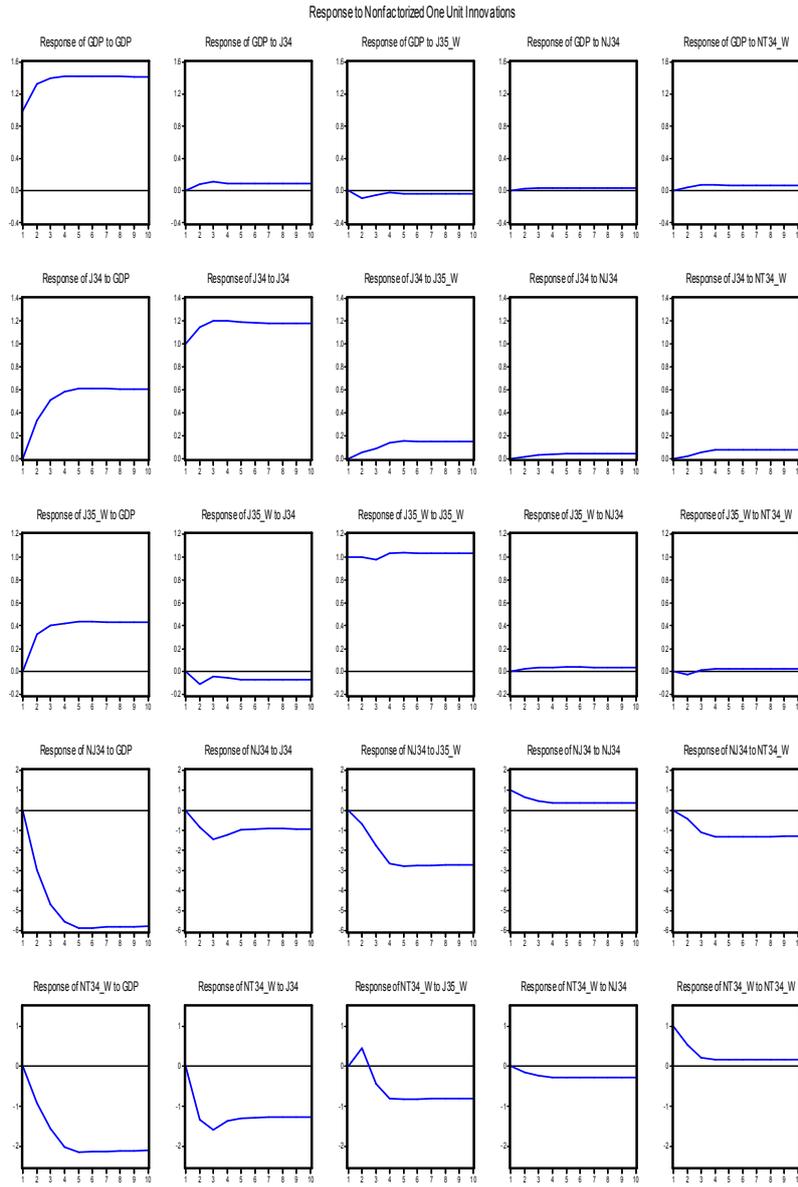
[부록그림 III-4] 충격반응함수-모델 4(GDP J34 J35_W NJ34 NT34)



[부록그림 III-5] 충격반응함수-모델 5(GDP J34 J35_W NJ34 NT34_M)



[부록그림 III-6] 충격반응함수-모델 6(GDP J34 J35_W NJ34 NT34_W)



<부표 III-1>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1(Cholesky Ordering: GDP J35_W J29 NJ29 NT29)

		Period									
		1	2	3	4	5	6	7	8	9	10
GDP	S.E.	0.03	0.04	0.05	0.06	0.07	0.08	0.08	0.09	0.10	0.10
	GDP	100.00	98.61	98.10	97.95	97.89	97.87	97.86	97.85	97.85	97.84
	J35_W	0.00	0.00	0.02	0.03	0.05	0.06	0.06	0.06	0.07	0.07
	J29	0.00	0.53	0.89	1.04	1.11	1.15	1.18	1.19	1.20	1.22
	NJ29	0.00	0.29	0.59	0.67	0.70	0.72	0.72	0.73	0.73	0.73
	NT29	0.00	0.57	0.40	0.30	0.25	0.21	0.18	0.16	0.15	0.14
J35_W	S.E.	0.02	0.03	0.04	0.04	0.05	0.05	0.06	0.06	0.07	0.07
	GDP	40.85	53.47	60.31	63.59	65.17	66.08	66.66	67.08	67.40	67.66
	J35_W	59.15	44.57	37.40	34.15	32.60	31.74	31.18	30.78	30.48	30.23
	J29	0.00	0.17	0.11	0.10	0.09	0.08	0.07	0.07	0.07	0.06
	NJ29	0.00	0.01	0.17	0.24	0.27	0.28	0.29	0.29	0.30	0.30
	NT29	0.00	1.78	2.01	1.93	1.87	1.82	1.79	1.77	1.75	1.74
J29	S.E.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09	0.10
	GDP	44.26	61.87	68.98	72.20	73.67	74.45	74.93	75.25	75.48	75.67
	J35_W	23.48	18.24	13.94	11.86	10.87	10.34	10.03	9.81	9.66	9.54
	J29	32.26	16.62	12.96	11.86	11.46	11.28	11.18	11.10	11.05	11.00
	NJ29	0.00	0.13	0.13	0.20	0.24	0.26	0.26	0.27	0.27	0.28
	NT29	0.00	3.14	3.98	3.88	3.76	3.67	3.61	3.57	3.54	3.52
NJ29	S.E.	0.10	0.18	0.28	0.36	0.43	0.48	0.53	0.58	0.62	0.66
	GDP	50.19	70.63	76.53	78.85	79.89	80.42	80.75	80.96	81.12	81.24
	J35_W	0.74	0.25	0.11	0.07	0.05	0.04	0.03	0.03	0.03	0.02
	J29	0.00	0.05	0.33	0.55	0.69	0.76	0.81	0.84	0.86	0.88
	NJ29	49.06	26.95	19.87	17.34	16.25	15.70	15.39	15.18	15.03	14.91
	NT29	0.00	2.12	3.15	3.20	3.13	3.07	3.02	2.98	2.96	2.95
NT29	S.E.	0.05	0.06	0.08	0.11	0.13	0.15	0.16	0.18	0.19	0.20
	GDP	3.23	16.84	48.80	65.99	74.10	78.43	81.04	82.79	84.07	85.05
	J35_W	0.11	5.51	6.56	5.91	5.47	5.20	5.05	4.96	4.89	4.85
	J29	0.56	3.08	1.84	1.11	0.78	0.61	0.50	0.43	0.37	0.33
	NJ29	4.92	18.54	12.59	8.63	6.66	5.61	4.98	4.57	4.28	4.05
	NT29	91.18	56.03	30.21	18.35	12.98	10.15	8.43	7.25	6.39	5.73

<부표 III-2>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2(Cholesky Ordering: GDP J35_W J29 NJ29 NT29_M)

		Period									
		1	2	3	4	5	6	7	8	9	10
GDP	S.E.	0.02	0.03	0.04	0.04	0.05	0.06	0.06	0.07	0.07	0.07
	GDP	100.00	88.91	89.71	84.93	74.06	62.34	54.80	52.00	51.80	52.44
	J35_W	0.00	0.28	0.55	2.57	9.62	17.33	22.09	23.75	23.69	23.17
	J29	0.00	0.02	0.07	0.99	2.27	3.70	5.11	6.15	6.92	7.35
	NJ29	0.00	6.21	4.93	6.69	9.89	13.10	14.82	14.97	14.43	13.85
	NT29_M	0.00	4.59	4.75	4.82	4.16	3.53	3.19	3.12	3.16	3.18
J35_W	S.E.	0.01	0.02	0.03	0.03	0.03	0.04	0.04	0.04	0.04	0.05
	GDP	24.15	28.52	33.52	34.28	32.70	29.67	27.40	26.12	25.63	25.40
	J35_W	75.85	61.33	52.76	46.26	36.96	30.17	25.48	22.39	20.62	19.81
	J29	0.00	2.10	1.65	1.81	2.55	3.59	5.15	6.54	7.64	8.39
	NJ29	0.00	3.63	6.97	11.93	22.02	30.81	36.14	38.94	39.86	39.97
	NT29_M	0.00	4.42	5.10	5.73	5.77	5.76	5.83	6.02	6.26	6.43
J29	S.E.	0.01	0.02	0.03	0.03	0.04	0.05	0.05	0.06	0.06	0.06
	GDP	30.00	46.36	52.29	52.75	48.16	41.24	36.16	33.22	32.15	32.09
	J35_W	20.05	20.01	11.58	7.84	7.87	11.15	14.38	16.28	16.87	16.70
	J29	49.95	27.23	23.39	19.51	14.85	11.11	8.68	7.27	6.53	6.12
	NJ29	0.00	3.02	9.00	15.39	24.56	32.18	36.61	39.05	40.16	40.67
	NT29_M	0.00	3.38	3.74	4.50	4.56	4.32	4.18	4.18	4.28	4.43
NJ29	S.E.	0.10	0.17	0.24	0.29	0.33	0.37	0.41	0.45	0.48	0.50
	GDP	46.33	56.51	61.55	61.96	59.65	54.02	48.13	44.34	42.79	42.59
	J35_W	0.00	0.06	0.23	0.21	0.46	2.40	5.28	7.19	7.81	7.69
	J29	2.08	1.44	1.38	1.13	0.89	0.75	0.76	0.88	0.99	1.04
	NJ29	51.59	38.66	31.46	30.69	32.97	37.14	40.60	42.55	43.33	43.48
	NT29_M	0.00	3.33	5.37	6.01	6.02	5.68	5.24	5.05	5.08	5.20
NT29_M	S.E.	0.08	0.10	0.11	0.13	0.14	0.15	0.16	0.17	0.18	0.18
	GDP	8.50	11.92	26.89	33.21	37.46	39.65	40.16	40.57	41.03	41.65
	J35_W	3.99	12.94	10.94	10.02	9.63	8.43	7.83	7.52	7.22	6.74
	J29	1.55	1.37	2.00	3.30	3.01	2.76	2.50	2.27	2.08	1.94
	NJ29	2.49	5.37	3.95	3.04	2.54	3.13	3.76	4.53	4.97	4.84
	NT29_M	83.48	68.40	56.22	50.43	47.35	46.03	45.74	45.10	44.70	44.83

<부표 III-3>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3(Cholesky Ordering: GDP J35_W J29 NJ29 NT29_W)

		Period									
		1	2	3	4	5	6	7	8	9	10
GDP	S.E.	0.03	0.04	0.05	0.07	0.07	0.08	0.09	0.10	0.10	0.11
	GDP	100.00	99.88	99.80	99.74	99.70	99.67	99.65	99.64	99.62	99.61
	J35_W	0.00	0.05	0.07	0.08	0.09	0.10	0.10	0.10	0.11	0.11
	J29	0.00	0.04	0.08	0.10	0.11	0.12	0.12	0.13	0.13	0.13
	NJ29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NT29_W	0.00	0.03	0.06	0.08	0.10	0.11	0.12	0.12	0.13	0.13
J35_W	S.E.	0.02	0.03	0.04	0.04	0.05	0.06	0.06	0.07	0.07	0.08
	GDP	40.60	54.98	60.37	63.12	64.90	66.03	66.80	67.36	67.79	68.12
	J35_W	59.40	44.14	38.86	36.22	34.51	33.40	32.66	32.11	31.70	31.38
	J29	0.00	0.25	0.22	0.19	0.18	0.17	0.16	0.15	0.15	0.15
	NJ29	0.00	0.21	0.29	0.29	0.29	0.29	0.29	0.29	0.29	0.29
	NT29_W	0.00	0.43	0.26	0.18	0.14	0.11	0.09	0.08	0.07	0.06
J29	S.E.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09	0.10
	GDP	40.02	60.42	67.70	71.01	72.91	74.07	74.83	75.36	75.75	76.05
	J35_W	27.46	21.49	18.38	16.90	16.02	15.46	15.09	14.83	14.64	14.49
	J29	32.51	17.98	13.63	11.69	10.64	10.02	9.61	9.33	9.12	8.97
	NJ29	0.00	0.11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NT29_W	0.00	0.00	0.13	0.24	0.27	0.30	0.31	0.32	0.33	0.33
NJ29	S.E.	0.09	0.18	0.27	0.35	0.42	0.48	0.54	0.59	0.64	0.68
	GDP	55.08	80.03	85.31	87.47	88.74	89.44	89.89	90.19	90.42	90.58
	J35_W	0.36	0.14	0.49	0.75	0.83	0.87	0.89	0.91	0.92	0.93
	J29	0.67	0.24	0.19	0.16	0.14	0.13	0.13	0.12	0.12	0.12
	NJ29	43.89	19.15	11.69	8.77	7.33	6.52	6.02	5.67	5.43	5.24
	NT29_W	0.00	0.44	2.33	2.85	2.96	3.03	3.07	3.09	3.11	3.12
NT29_W	S.E.	0.06	0.07	0.09	0.11	0.13	0.15	0.16	0.18	0.19	0.20
	GDP	0.11	7.67	26.44	41.73	50.69	56.22	59.87	62.41	64.28	65.70
	J35_W	0.00	1.53	6.40	8.19	8.73	9.05	9.24	9.35	9.43	9.49
	J29	0.77	1.78	2.17	1.93	1.79	1.72	1.66	1.62	1.59	1.57
	NJ29	5.10	12.81	12.84	11.49	10.69	10.12	9.72	9.44	9.23	9.07
	NT29_W	94.02	76.21	52.15	36.66	28.10	22.89	19.51	17.18	15.47	14.16

<부표 III-4>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4(Cholesky Ordering: GDP J34 J35_W NJ34 NT34)

		Period									
		1	2	3	4	5	6	7	8	9	10
GDP	S.E.	0.03	0.04	0.05	0.06	0.07	0.08	0.08	0.09	0.09	0.10
	GDP	100.00	97.21	96.11	95.65	95.46	95.39	95.36	95.35	95.33	95.32
	J34	0.00	0.84	1.33	1.52	1.59	1.61	1.62	1.63	1.63	1.64
	J35_W	0.00	0.37	0.65	0.84	0.95	1.01	1.05	1.08	1.10	1.11
	NJ34	0.00	0.74	1.34	1.57	1.66	1.70	1.71	1.73	1.74	1.75
	NT34	0.00	0.83	0.58	0.43	0.34	0.29	0.25	0.22	0.20	0.18
J34	S.E.	0.01	0.02	0.03	0.04	0.05	0.06	0.06	0.07	0.07	0.08
	GDP	43.98	62.23	67.69	69.79	70.62	70.99	71.20	71.34	71.44	71.53
	J34	56.02	33.25	26.55	24.42	23.72	23.48	23.38	23.31	23.25	23.20
	J35_W	0.00	0.10	0.05	0.05	0.07	0.08	0.08	0.08	0.08	0.08
	NJ34	0.00	0.02	0.25	0.50	0.64	0.70	0.74	0.75	0.77	0.77
	NT34	0.00	4.41	5.47	5.24	4.96	4.75	4.61	4.52	4.45	4.41
J35_W	S.E.	0.02	0.03	0.04	0.04	0.05	0.05	0.06	0.06	0.07	0.07
	GDP	42.18	53.99	59.61	62.29	63.51	64.13	64.50	64.77	64.98	65.16
	J34	21.27	15.13	14.22	14.04	14.06	14.09	14.10	14.11	14.11	14.11
	J35_W	36.55	28.64	23.35	20.86	19.71	19.14	18.81	18.58	18.40	18.24
	NJ34	0.00	0.05	0.14	0.22	0.25	0.26	0.26	0.27	0.27	0.27
	NT34	0.00	2.18	2.68	2.59	2.47	2.38	2.32	2.27	2.25	2.22
NJ34	S.E.	0.10	0.19	0.28	0.37	0.44	0.50	0.55	0.59	0.64	0.68
	GDP	53.05	70.13	74.34	75.69	76.18	76.39	76.50	76.58	76.64	76.69
	J34	0.00	0.61	1.37	1.86	2.14	2.29	2.38	2.43	2.47	2.49
	J35_W	0.41	0.23	0.26	0.35	0.43	0.48	0.52	0.54	0.55	0.56
	NJ34	46.54	26.17	19.87	17.90	17.23	16.97	16.85	16.77	16.71	16.66
	NT34	0.00	2.86	4.16	4.20	4.03	3.87	3.76	3.68	3.63	3.60
NT34	S.E.	0.05	0.06	0.08	0.10	0.12	0.14	0.15	0.16	0.18	0.19
	GDP	1.92	15.26	48.20	67.41	76.28	80.80	83.47	85.25	86.57	87.60
	J34	1.04	1.22	0.83	1.03	1.28	1.44	1.52	1.56	1.58	1.60
	J35_W	0.56	2.79	2.79	2.04	1.56	1.30	1.15	1.05	0.98	0.93
	NJ34	3.87	13.08	9.48	6.13	4.42	3.53	3.02	2.68	2.44	2.25
	NT34	92.61	67.64	38.71	23.39	16.45	12.93	10.86	9.46	8.43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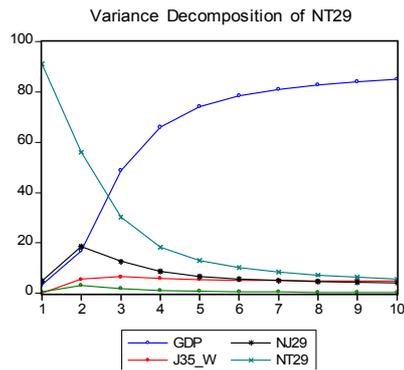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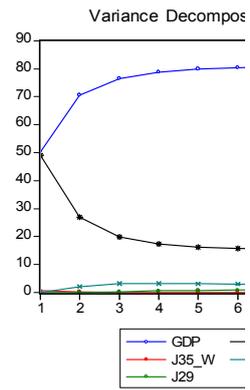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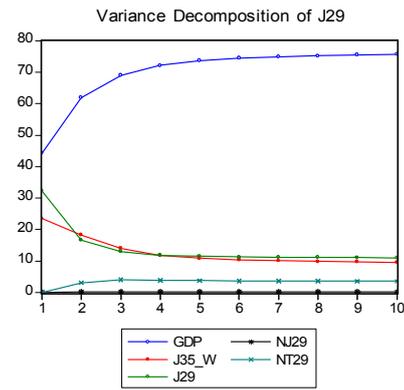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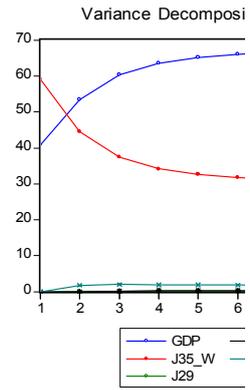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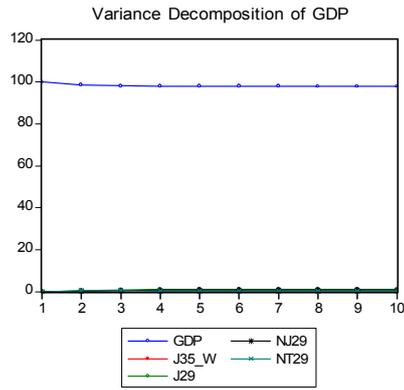
<부표 III-5>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5(Cholesky Ordering: GDP J34 J35_W NJ34 NT34_M)

		Period									
		1	2	3	4	5	6	7	8	9	10
GDP	S.E.	0.02	0.04	0.05	0.06	0.07	0.07	0.08	0.08	0.09	0.09
	GDP	100.00	94.87	92.62	91.65	91.39	91.39	91.46	91.53	91.57	91.59
	J34	0.00	3.04	4.68	5.50	5.74	5.77	5.75	5.73	5.73	5.74
	J35_W	0.00	0.21	0.35	0.33	0.31	0.29	0.27	0.26	0.26	0.25
	NJ34	0.00	1.00	1.84	2.09	2.12	2.11	2.08	2.06	2.05	2.04
	NT34_M	0.00	0.89	0.52	0.43	0.44	0.44	0.43	0.42	0.40	0.38
J34	S.E.	0.01	0.02	0.03	0.04	0.05	0.06	0.06	0.07	0.07	0.08
	GDP	46.79	60.51	64.53	65.38	65.42	65.32	65.24	65.20	65.19	65.19
	J34	53.21	33.08	28.46	28.15	28.58	29.01	29.30	29.49	29.60	29.67
	J35_W	0.00	0.11	0.11	0.13	0.13	0.12	0.11	0.10	0.09	0.09
	NJ34	0.00	0.01	0.41	0.83	1.00	1.06	1.07	1.07	1.07	1.07
	NT34_M	0.00	6.29	6.49	5.51	4.87	4.50	4.28	4.14	4.05	3.98
J35_W	S.E.	0.02	0.03	0.04	0.04	0.05	0.05	0.06	0.06	0.06	0.07
	GDP	43.88	52.00	58.06	60.03	60.57	60.69	60.73	60.77	60.83	60.90
	J34	15.82	12.37	13.17	14.38	15.03	15.36	15.52	15.62	15.69	15.75
	J35_W	40.30	30.35	23.39	20.68	19.85	19.65	19.61	19.58	19.52	19.45
	NJ34	0.00	0.03	0.32	0.52	0.57	0.57	0.56	0.55	0.54	0.54
	NT34_M	0.00	5.25	5.05	4.38	3.98	3.73	3.58	3.48	3.41	3.36
NJ34	S.E.	0.10	0.19	0.29	0.37	0.43	0.49	0.53	0.57	0.61	0.64
	GDP	46.21	61.84	65.67	66.40	66.41	66.30	66.21	66.17	66.16	66.15
	J34	0.28	3.33	5.43	6.87	7.71	8.16	8.38	8.51	8.59	8.66
	J35_W	0.61	0.49	0.60	0.68	0.69	0.68	0.67	0.67	0.66	0.66
	NJ34	52.90	32.52	25.99	24.01	23.41	23.27	23.25	23.25	23.23	23.21
	NT34_M	0.00	1.82	2.31	2.05	1.78	1.59	1.48	1.40	1.36	1.32
NT34_M	S.E.	0.06	0.07	0.09	0.11	0.13	0.15	0.16	0.17	0.19	0.20
	GDP	4.19	13.44	39.51	59.14	69.17	74.35	77.36	79.41	80.99	82.28
	J34	7.18	9.06	7.03	4.65	3.53	2.92	2.51	2.20	1.96	1.77
	J35_W	1.70	7.46	5.87	4.20	3.33	2.90	2.68	2.56	2.46	2.38
	NJ34	1.15	8.16	6.57	4.41	3.22	2.59	2.21	1.96	1.78	1.63
	NT34_M	85.79	61.88	41.03	27.60	20.75	17.25	15.24	13.87	12.81	11.94

<부표 III-6> 분산분해 결과표-모델 6(Cholesky Ordering: GDP J34 J35_W NJ34 NT34_W)

		Period									
		1	2	3	4	5	6	7	8	9	10
GDP	S.E.	0.03	0.04	0.06	0.07	0.08	0.08	0.09	0.10	0.10	0.11
	GDP	100.00	99.69	99.35	99.22	99.16	99.13	99.10	99.09	99.08	99.07
	J35_W	0.00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J34	0.00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NJ34	0.00	0.06	0.07	0.08	0.08	0.09	0.09	0.09	0.09	0.09
	NT34_W	0.00	0.22	0.55	0.69	0.74	0.77	0.80	0.81	0.82	0.83
J34	S.E.	0.02	0.03	0.04	0.04	0.05	0.06	0.06	0.07	0.07	0.07
	GDP	38.27	60.45	68.12	71.40	73.14	74.16	74.80	75.25	75.57	75.82
	J35_W	0.00	0.09	0.21	0.34	0.43	0.47	0.50	0.52	0.53	0.54
	J34	61.73	39.20	30.72	26.78	24.68	23.47	22.71	22.19	21.81	21.52
	NJ34	0.00	0.10	0.19	0.24	0.26	0.28	0.29	0.29	0.30	0.30
	NT34_W	0.00	0.15	0.76	1.25	1.49	1.62	1.70	1.75	1.79	1.82
J35_W	S.E.	0.01	0.02	0.04	0.04	0.05	0.06	0.07	0.07	0.08	0.08
	GDP	40.43	54.09	59.33	61.73	63.14	64.02	64.59	65.00	65.31	65.55
	J35_W	33.40	26.63	23.94	22.79	22.15	21.75	21.50	21.31	21.18	21.07
	J34	26.16	18.65	16.03	14.71	13.90	13.40	13.08	12.84	12.67	12.53
	NJ34	0.00	0.36	0.50	0.54	0.57	0.59	0.60	0.61	0.61	0.62
	NT34_W	0.00	0.27	0.20	0.24	0.24	0.24	0.23	0.23	0.23	0.23
NJ34	S.E.	0.09	0.17	0.27	0.36	0.43	0.49	0.55	0.59	0.64	0.68
	GDP	55.43	78.83	82.64	83.69	84.32	84.67	84.88	85.02	85.13	85.21
	J35_W	0.12	0.25	0.96	1.55	1.82	1.95	2.03	2.08	2.12	2.15
	J34	1.34	1.55	1.75	1.78	1.72	1.68	1.65	1.63	1.61	1.60
	NJ34	43.11	17.71	9.34	6.28	4.94	4.24	3.82	3.54	3.34	3.19
	NT34_W	0.00	1.67	5.31	6.70	7.20	7.46	7.62	7.72	7.79	7.85
NT34_W	S.E.	0.05	0.07	0.08	0.10	0.12	0.14	0.15	0.16	0.17	0.18
	GDP	0.50	6.63	29.60	46.66	55.65	60.78	64.05	66.31	67.98	69.27
	J35_W	1.71	2.60	1.85	1.80	1.77	1.75	1.74	1.73	1.72	1.71
	J34	1.51	3.80	7.53	8.40	8.47	8.50	8.52	8.53	8.55	8.56
	NJ34	3.31	6.93	8.04	8.06	8.08	8.10	8.12	8.14	8.16	8.18
	NT34_W	92.97	80.03	52.97	35.08	26.02	20.87	17.57	15.29	13.59	12.28

[부록그림 III-7] 분산분해 결과-모델 1(GDP J35_W J29 NJ29 NT29)



[부록그림 III-8] 분산분해 결과-모델 2(GDP J35_W J29 NJ29 NT29_M)

[부록그림 III-9] 분산분해 결과-모델 3(GDP J35_W J29 NJ29 NT29_W)

[부록그림 III-10] 분산분해 결과-모델 4(GDP J34 J35_W NJ34 NT34)

[부록그림 III-11] 분산분해 결과-모델 5(GDP J34 J35_W NJ34 NT34_M)

[부록그림 III-12] 분산분해 결과-모델 6(GDP J34 J35_W NJ34 NT34_W)

참고문헌

- 강영배(2005). 「청소년의 직업불안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 일본형 NEET족(族)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21-47.
- 강영배(2005). 「일본의 청년무업자(NEET)」, 한국교육사회학회, 2005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기현(2005). 「니트(NEET): 일본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55-63.
- 김기현·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화(2004). 「사교육 선호 경향 및 선호 요인 분석 연구」, 교육학 연구, 42(2).
- 김해경 외(2005). 『경제 및 금융자료를 위한 시계열분석』, 경문사.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pp. 140-157
- 문권순(1997). 「백터자기회귀(VAR)모형의 이해」, 『통계분석연구』, 제2권 제1호, pp. 23-56.
- 문숙재(1998).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박유성 외(2002). 『SAS/ETS를 이용한 시계열 자료분석 I』, 자유아카데미.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오호영(2006). 「공무원 채용시험과 대학교육」,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1호, pp. 49-79.
- 유금록(1998). 「Johansen 공적분 검정의 검정통계량과 약의생성 검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9권 제2호, pp. 3-14.
- 이홍재 외(2005). 『Eviews를 이용한 금융경제 시계열분석』, 경문사.
- 정성미(2007). 「이슈분석 :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분석」, 『노동리뷰』, 통권29호 5월호, pp. 49-61.

- 조준모 외(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 정인수 외(2005). 『청년층의 실업대책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후식(2004).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 비정규직 및 니트(NEET) 인구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은조사연구 2004-14, 한국은행
- 최문선(2006). 『공적분모형을 이용한 국내 다변량 시계열자료 분석』, 석사학위논문.
- 최용석(2001). 『SAS 대응분석의 이해와 응용』, 자유아카데미, 서울.
- 채구목(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pp. 159-181.
- 채창균 외(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4).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I) -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200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동향과 특징 조사」, 보도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5). 『한국 청소년들의 자발적 실업과 NEET족 발생 징후에 대한 지적』
- 허명희(1999). 『다변량 변수화』, 자유아카데미, 서울.
- 후타가미 노우키(이성현 옮김, 2005).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홍익출판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Ali K, Erdener K. & Orsay K.(1996). Positioning of fast-food outlets in two

- regions of North America: A comparative study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14(2): 99-119.
- Benzecri, J. P.(1993). *Correspondence Analysis Handbook*, New York: Marcel Dekker inc.
- Bynner, John and Samantha Parsons(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60 n2 p289-309
- Chen, J. S.(2001). A case study of Korean outbound traveller's destination images by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 345-350.
- Coleman, J. C. and Hendry, L. B.(1999). *The Nature of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Engle, R. F. and C.W.J. Granger(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Vol. 55, No. 4. pp. 251-276
- Good, C. V.(1973).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 Granger, C.W.J.(1986). "Development in the study of cointegrated economic variabl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8, pp. 213-228
- Granger, C.W.J.(1988), "Some Recent Developments in a Concept of Causality", *Journal of Econometrics*, Vol.39, pp. 199-211
- Hori, Yukie(2005), *Situations of Social Network of Jobless Youth and Assistance Measures*, *Japan Labor Review*, v2, n3 (Summer 2005), pp. 26-48
- Inui, Akio(2005). "Why freeter and NEET are Misunderstood: Recognizing the new Precarious Conditions of Japanese Youth", *Social Work &*

Society, Volume 3, Issue 2.

- Jaffe, M.(1998).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Johansen, S.(1988).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12, pp. 231-254.
- Joyce, M. and Stewart, J.(2004). "What Can We Learn from Time-Use Data?", *Monthly Labor Review*, 127(12): 3-6.
- Khondaker, M. Rahman(2007). *Freeters' and Part-timers' Challenge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Japan*, Prof., Business School, Nanzan University, February 2007, No. 0605.
- Larson, M and Richards, M.(1989). "The Changing Life Space of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01-509.
- Khondaker, M. Rahman(2007). *Freeters' and Part-timers' Challenge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Japan*, Prof., Business School, Nanzan University, February 2007, No. 0605.
- OECD(1999).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 Work*.
- Oh, Min-Hong(2007).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n Korea",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Page, G. and Thomas, J. B.(1977).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Kogan page/Nocholas Publishing Company.
-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s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United Kingdom.
-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White, M. and Riley, R.(2002). *Findings from the Macro Evaluation of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Londo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_____ (2002). Does Welfare-to-Work Policy Increase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K New Deal for Young People, London: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White, M. and Knight, K.(2003). Benchmarking the Effectiveness of NDYP: A Review of European and US Literature on the Microeconomic Effects of Labour Market Programmes for Young People,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Wilkinson, D.(2003). New Deal For Young People: Evaluation Of Unemployment Flows,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저자 약력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휴청년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08년 월 일 인쇄
2008년 월 일 발행 |
| · 발행인 | 권대봉 |
|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 · 인쇄처 | 에덴복지재단 (02)2271-3130 |
|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매품>